

E02-2008-04/2009.01

제10권 제4호/Vol. 10 No. 4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일반인이 북한농업을 이해하고 정부가 대북 농업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연구팀이 북한의 최근 농업 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이 자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이 책은 1년에 4회(1, 4, 7, 10월) 발간되며,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북한농업정보”

- 연락처: 전화 02-3299-4324 전송 02-965-8401
- 내용 문의:

권태진 kwontj@krei.re.kr 02-3299-4255

김영훈 kyhoon@krei.re.kr 02-3299-4367

남민지 mj0801@krei.re.kr 02-3299-4359

목 차

□ 포커스

2009년 북한의 식량수급 전망과 남북한 협력과제 / 3

□ 동향분석

- | | |
|--------------|------------------|
| 1. 농업정책 / 20 | 6. 농업기반 / 60 |
| 2. 벼농사 / 33 | 7. 산 림 / 68 |
| 3. 밭농사 / 49 | 8. 기타 작물 / 77 |
| 4. 감자농사 / 52 | 9. 기타 보도 동향 / 80 |
| 5. 축 산 / 55 | |

□ 농업교류협력 동향

-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 85
 - 1.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 85
 - 2. 교류협력사업 동향 / 96
 - 3.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정책 / 97
-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 107
 -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 107
 - 2.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단체 동향 / 114
- 북중 교역 동향 / 129
 - 1. 북한의 수입동향 / 129

□ 농업자료

- 북한의 기상 / 135

포 커 스

- 2009년 북한의 식량수급 전망과
남북한 협력과제

2009년 북한의 식량수급 전망과 남북한 협력과제

권 태 진

(선임연구위원, kwontj@krei.re.kr)

농촌진흥청은 2008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을 431만 톤으로 추정하였다. 이는 전년에 비해 7.5%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유엔식량농업기구는 이보다 100만 톤이나 낮은 334만 톤으로 추정하였다. 북한의 연간 곡물 소요량은 아무리 낮게 잡아도 520만 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해 북한의 작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90만 톤가량 외부에서 조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이 상업적 수입을 통해 부족한 식량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제 곡물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고는 하지만 한국인이 선호하는 중·단립종 쌀은 현재 톤당 가격이 1,100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른 곡물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곡물 파동 이전보다는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국제곡물시장을 통해 부족한 식량을 조달하려면 과거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지난해 가을부터 불어 닥친 국제금융위기와 세계 각국의 경제 침체는 북한을 포함한 식량 부족 국가에 대한 대외 원조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난해 미국이 북한에 지원하기로 약속한 식량 지원분 이외의 추가적인 식량 지원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또한 최근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점도 한국이 북한에 대한 식량 및 비료 지원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북한의 상업적 수입과 국제사회의 식량 지원 가능성을 감안할 때 30~60만 톤 정도의 곡물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만 수급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 차원의 식량 수급 상황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나아졌지만 개별 가구 차원에서 판단할 때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최근 북한 당국의 시장 통제 움직임이 강하고 협동농장에 대한 경영 간섭과 통제가 다시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도시와 농촌 할 것 없이 주민들의 식생활은 훨씬 어려워지고 내년도 식량 수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북한이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단기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다. 해답은 북한이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약속한 것을 신속히 이행하고 남북협력을 강화하는 일이다. 정부는 향후 남북한 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북 정책의 목표와 원칙을 재차 확인하고 협력을 위한 실용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원칙에는 철저히되 비료나 식량 등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유연한 자세를 취하면서 남북한 사이에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정책 집행의 우선순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2007년 10.4 정상선언 및 후속 회담을 통해 남북한이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국민의 동의를 기초로 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국민을 설득할 준비도 갖추어야 한다.

1. 서 론

북한 핵실험 이후 경색되었던 남북한 관계는 2007년 10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회복되었다가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다시 얼어붙고 있다. 이 때문에 정상회담 및 이후 후속적으로 추진된 남북총리회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회담, 농업실무회담 등을 통해 남북한 당국자 사이에 합의된 농업분야 협력사업은 한 발짝도 전진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2008년에는 북한에 대한 식량 차관과 비료 지원이 전면적으로 중단되었다.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제공하던 인도적 식량지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남북한 사이의 이러한 변화는 북한의 식량수급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2007년 북한은 좋지 않은 기상 여건과 대규모 수해 피해로 인해 작황이 매우 좋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2008년에는 자체 곡물 공급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더구나 2008년은 전 세계적인 곡물 파동으로 인해 곡물 가격이 크게 올랐으나 많은 국가에서 곡물 수출을 중단하거나 통제함으로써 북한처럼 곡물을 수입해야 하는 국가에게는 커다란 고통을 주었다. 외환 사정이 좋지 않은 북한으로서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옥수수 수입을 크게 늘렸지만 전체 곡물 수입량은 전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였다. 세계 경제사정도 좋지 않은데다 에너지 및 곡물 파동까지 겹쳐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처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2008년 북한의 식량 사정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에 버금갈 정도로 어려웠다. 단지 1990년대와 다른 점은 주민들이 시장을 통해 어느 정도 식량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연초 kg당 1,200~1,300원 수준이던 북한 시장의 쌀 가격이 한 때 4,000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등하기도 하였지만 주민들은 용케도 이 위기를 잘 넘겼다. 대량 아사의 가능성도 제기되었지만 그와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2008년 한국 정부의 대북 비료 지원 중단은 북한의 곡물 생산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기상 여건이 좋고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334만 톤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평가를 하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431만 톤으로 이보다 100만 톤이나 높게 평가하는 기관도 있다. 어느 기관의 평가가 정확한지는 북한 당국만이 알 것이지만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2009년 북한의 식량사정을 가늠하는 것 자체가 큰 수수께끼이다.

북한이 한 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곡물 소요량은 대략 520만 톤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어떻게 평가하든 자체의 곡물 생산량만으로는 최소소요량조차 충당하기 어렵다. 적게는 90만 톤, 많게는 190만 톤 가까이 외부에서 식량을 조달해야만 수급 균형을 이룰 수 있다. 그것도 모든 주민에게 식량이 공평하게 분배된다고 가정했을 때의 이야기다. 국가 단위의 식량 수급 균형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만일 일부 계층이 최소소요량보다 더 많은 양의 식량을 소비한다면 다른 계층은 필연적으로 식량 부족을 겪게 된다. 현재 북

한국의 식량배급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으며 상당 부분의 식량을 주민 스스로 시장에서 조달해야 하는 상황임을 이해한다면 식량 사정이 어려운 가구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최근 북한 당국은 시장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장을 더욱 통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구 수입의 감소와 함께 곡물 가격의 상승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농민들도 충분한 양의 식량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며 비공식적인 영농활동마저 위축되고 있어 시장의 곡물 공급이 감소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대부분의 도시 근로자 가구는 식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특히 취약계층은 심각한 영양부족이 우려된다.

금년 1월 1일 북한은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식량문제 해결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자체적으로 식량 증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종자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콩농사방침 등 전통적인 농업정책을 지속할 뜻을 내비추고 있다. 농산과 축산의 결합을 통한 유기질 비료의 공급과 경영의 다각화도 강조한다.

과연 이와 같은 정책 의지만으로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이 글에서는 2009년 북한의 식량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시각을 살펴보고 전망을 해 보기로 한다. 그리고 북한 식량난 해결을 위한 남북한의 협력 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2. 2008년 북한의 식량수급 실태

북한은 식량생산량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를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식량생산량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의 추정치, 그리고 전문가들의 예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FAO는 2004년까지 북한의 곡물생산량을 추정하여 발표하였으나 그 후 중단하였다가 2008년 가을부터 다시 실시하였다. 2009년에 공급될 자체 식량은 2008년 가을에 수확한 곡물과 2009년 여름에 수확될 이모작 곡물을 합한 것이지만 이는 2008년 1년 동안의 곡물 생산량과 동일하게 가정해도 큰 무리는 없다.

농촌진흥청은 2007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을 401만 톤(정곡기준)으로 추정 발표한 바 있다. 곡물 생산량 가운데는 쌀, 옥수수, 보리, 밀, 콩, 잡곡뿐만 아니라 감자까지 곡물로 환산하여 포함하고 있다<표 1>. 2007년 북한은 좋지 않은 기상여건 여름철 홍수 피해까지 겹쳐 전년에 비해 곡물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FAO는 2008년 초 북한의 2007년 곡물생산량을 380만 톤으로 추정하였다가 3월 말 경 300만 톤으로 대폭 낮추어 발표한 바 있다. FAO는 북한 농업성의 자료를 바탕으로 2007년의 곡물 생산량을 조곡 기준 403만 톤으로 추정하였으나 정곡으로 환산하면서 왜 300만 톤으로 발표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연초에 발표한 380만 톤에 비해 20% 가량 대폭 하향 조정하였기 때문이다.

표 1. 2007년 북한의 곡물생산량 추정

구 분	계	쌀	옥수수	두류	서류	맥류	잡곡
재배면적 (1,000ha)	1610	587	526	139	201	137	25
수량 (kg/10a)		260	302	111	319	177	70
2007생산량 (만 톤)	401	153	159	15	47	25	2
2006생산량 (만 톤)	448	189	175	16	45	21	2
2006년 대비 (만 톤)	-47	-36	-16	-1	2	4	0
2006년 대비(%)	-11	-19	-9	-2	4	17	0

북한은 자체 식량 생산량이 최소 소요량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매년 일정한 양의 식량을 중국 등지에서 수입하고 있다. 과거 태국에서 곡물을 수입하기도 하였지만 최근에는 중국이 주된 수입처이다. 2008 양곡연도(2007.11-2008.10) 동안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식량은 밀가루와 밧 두류를 포함하여 약 232,621톤이다<표 2>. 이는 전년에 비해 11% 감소한 양이다. 곡물 수입량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수입액은 전년에 비해 5.7% 가량 증가하였다. 그러나 밀가루와 두류를 제외한 곡물의 수입량은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옥수수의 수입량은 전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다.

표 2. 북한의 대중 곡물 수입실적, 2007-2008

HS코드	품 목	2007(2006.11-2007.10)			2008(2007.11-2008.10)		
		수입액(천\$)	단가(\$/kg)	수입량(톤)	수입액(천\$)	단가(\$/kg)	수입량(톤)
1003	보리	8	0.29	28	160	0.41	390
1005	옥수수	6,450	0.18	35,845	32,275	0.27	121,259
1006	쌀	19,288	0.31	61,723	15,508	0.33	46,966
1007	수수	1	0.20	5	-	-	-
1008	잡곡	171	0.31	548	433	0.41	1,045
1003-1008	소계	25,917		80,248	48,376		169,660
1101	밀가루	31,095	0.24	131,992	10,647	0.26	40,518
1201	두류	10,040	0.31	32,155	11,860	0.52	22,443
1003-1201	합계	67,051		262,296	70,882		232,621

2008년 북한의 곡물 총공급량은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하였으며 이로 인해 시장의 곡물 가격이 급등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연초 kg당 1,000원 안팎이던 쌀 가격이 한 때 4,000원에 육박하기도 하였다. 시장의 곡물 가격 상승과 절대적인 곡물 공급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하여 북한 당국은 보유하고 있는 비상식량까지 방출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절대 공급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여 곡물 가격의 상승은 피하기 어려웠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았다. 국제 곡물 시장의 불안정과 중국의 곡물 수출 제한 조치, 그리고 어려운 외환 사정 때문에 북한은 2중 3중의 고통을 받았다.

3. 2009년 북한의 식량수급 전망

가. 식량 공급 전망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2009 양곡연도(2008. 11 ~ 2009. 10) 북한의 자체 곡물 생산량은 334.2만 톤인데 비해 소요량은 512.9만 톤으로 178.6만 톤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였다<표 3>. 상업적 수입 50만 톤과 국제사회의 무상 지원 45만 톤을 감안하더라도 북한은 2009 양곡연도 동안 83.6만 톤의 곡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만일 식량 순부족량이 83.6만 톤에 이를 경우 1990년 중후반 고난의 행군 시절과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FAO의 추정에 대해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FAO가 발표한 국내 생산량 334.2만 톤은 지난 2008년 11월 북한 농업성의 리일섭 대외협력국장이 밝힌 2008년도 예상 수확량 468만 톤(조곡 기준이며 정곡으로 환산할 경우 410만 내외)에 비해 80여 만 톤 적은 양이며 농촌진흥청의 추정치와는 100만 톤가량 차이가 있다. 2008년 3월 말 FAO가 발표한 북한의 2007년 곡물 생산량 300만 톤과 비교할 때 이번에 발표된 2008년 생산량은 11% 증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08년 곡물 생산량이 전년 대비 11% 증가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할 수 있지만 앞에서 언급한대로 FAO가 평가한 북한의 2007년 곡물 생산량 300만 톤은 믿기 어려운 추정치여서 2008년 추정치 또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FAO의 2008년 곡물생산량 추정치는 2004년까지 동 기구가 수행한 북한의 곡물생산량 추정 결과와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2004년의 북한 곡물(감자 포함) 재배면적(이모작 포함)은 142.8만 ha, 텃밭과 경사지 밭은 포함할 경우 152.8만 ha이었으나 2008년은 곡물 재배면적을 154.2만 ha, 텃밭과 경사지 포함 187.6만 ha로 26.5만 ha 높게 추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의 곡물생산량은 2004년의 423.5만에 비해서는 90여 만 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표 3. FAO의 2008년과 2004년의 곡물 생산량 추정치 비교(조곡 기준)

구 분	2008년			2004년		
	면적 (천ha)	수량 (톤/ha)	생산량 (천톤)	면적 (천ha)	수량 (톤/ha)	생산량 (천톤)
본답(A)						
쌀	570	2.90	1,657	583	4.06	2,370
옥수수	503	2.81	1,411	495	3.49	1,727
감자	181	2.20	380	89	2.90	258
기타	82	1.39	114	60	1.99	119
소 계	1,336		3,562 (2,751)	1,227		4,475 (3,695)
이모작(B)						
겨울밀/보리	56	1.70	96	70	2.37	166
봄밀/보리	22	1.46	32	32	2.04	64
봄감자	128	2.31	295	100	2.56	255
소 계	206		423 (423)	201		485 (485)
합 계(A+B)	1,542	-	3,985 (3,174)	1,428	-	4,959 (4,235)
텃밭(C)	25	3.00	75 (56)	25	-	50 (50)
경사지 등(D)	300	0.50	150 (113)	75	-	55 (55)
총 계(A+B+C+D)	1,867	-	4,210 (3,342)	1,528	-	5,064 (4,235)

* ()안은 정곡 환산량.

그런데 농촌진흥청은 2008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을 전년에 비해 7.5%(30만 톤) 증가한 431만 톤(정곡 기준)으로 추정하였다<표 4>. 벼는 비료 부족과 생육 초기 물 부족이 있었지만 생육 후기 일조량이 충분히 확보되고 태풍 등 기상재해가 적어 전년에 비해 33만 톤 증가한 186만 톤으로 추정하였다. 옥수수는 생육 초기와 등숙기의 가뭄, 비료 부족으로 2007년에 비해 5만 톤 감소한 154만 톤으로 추정하였다. 이 밖에 두류 16만 톤, 감자와 고구마 51만 톤, 맥류 및 잡곡 24만 톤으로 추정하였다. 2008년 북한의 기상은 작물생육기간인 4-9월의 평균기온이 18.0℃로 평년의 17.8℃와 비슷하였으며 강수량은 739.7mm로 평년의 742.7mm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2008년은 비료 공급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곡물 생산량이 증가한 것은 생육 후기인 8-9월의 일조량이 2007년에 비해 16% 증가하였고 기상재해가 없었던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2008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에 대해 FAO와 농촌진흥청이 추정한 결과는 100만 톤 정도 격차가 있다. 100만 톤은 대량 아사가 발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름할 정도로 엄청난 양이다. 1990년대 중후반 북한에서 대량 아사가 발생하였을 당시 곡물의 공급 부족량을 대략 80여만 톤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두 기관의 추정치는 얼마나 차이가 큰지를 짐작할 수 있다.

표 4. 농촌진흥청의 2008년 북한 곡물 생산량 추정치(정곡 기준)

구 분	계	쌀	옥수수	두류	서류	맥류 및 잡곡
재배면적 (1,000ha)	1614	587	526	139	201	137
수량 (톤/ha)	-	3.17	2.89	1.15	2.54	1.76
2008생산량 (만 톤)	431	186	154	16	51	24
2007생산량 (만 톤)	401	153	159	15	47	27
2007년 대비(만 톤)	+30	+33	-5	+1	+4	-3
2007년 대비(%)	+7.5%	+21.6	-3.1	+6.7	+8.5	-11.1

* 감자와 고구마는 곡물(정곡) 환산율 25% 적용.

FAO의 2008년 곡물추정치에 대한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쌀의 수량(정곡 톤/ha)을 1.9톤으로 평가함으로써 북한농업전문가의 예상치 3톤과는 큰 격차가 있다. 둘째, 옥수수의 수량은 2.8톤으로 전문가의 예상치와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정도지만 지금까지의 추정(정곡환산율 100% 적용)과는 달리 정곡 환산율 85%를 적용하여 ha당 정곡 수량을 2.4톤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셋째, 감자의 수량(곡물 환산 정곡 톤/ha)을 봄감자 2.1톤, 가을감자 2.3톤으로 추정함으로써 북한 관계자의 추정치 하한인 3톤보다도 더 낮게 추정하였다. 넷째, 경사지 재배면적을 30만 ha로 기존의 추정치 보다 대폭 높게 잡았으나 ha당 수량(조곡)을 0.5톤(정곡 기준 0.35톤)으로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였다.

2008년 북한에 대한 한국의 비료 지원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2007년 후반기에 제공한 비료의 일부가 2008년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통상 30만 톤으로 추정되는 대북 비료 지원 중단 효과가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FAO는 2008년 북한의 비료 사용량을 2007년 대비 60%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평야지대는 70%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한국의 대북 비료 지원 중단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폭은 50만 톤 이하일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당국이 비료를 분배할 때 밭보다는 논, 논 중에는 토지의 등급이 높은 평야지대에 우선하기 때문에 평야의 벼농사 지대에 비료를 우선 분배하였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008년 남한의 벼 수량이 2007년 대비 10% 정도 증가하였으며 전년과는 달리 자연재해의 피해가 없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2008년 북한의 쌀 수량은 ha당 3톤(정곡기준) 이상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FAO는 북한의 2008년 감자 재배면적을 예년에 비해 10만 ha이상 증가한 30만 ha로 높

게 추정한 반면 우량 씨감자의 공급 증가에도 불구하고 ha당 수량을 2.2톤으로 낮게 추정하였다. 이 점 또한 북한의 감자 전문가조차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따라서 이하 2009년 북한의 식량수급 추정에서는 농촌진흥청의 곡물 생산량 추정치를 기초로 한다.

나. 식량 수요 전망

식량수요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식용 수요 이외 종자용, 사료용, 가공용, 감모 등 용도별 수요를 각각 추정하여 합산한다. 이 중에서도 식용 수요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인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1인당 연간 식용 소요량에다 인구수를 곱하면 전체 식용 소요량을 구할 수 있다. 문제는 북한의 인구를 파악하는 일이다. 북한은 1993년 인구센서스를 실시한 이래 15년 동안 한 번도 인구센서스를 실시하지 않았다. 유엔인구기금(UNFPA)은 한국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2008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북한 당국과 공동으로 북한 지역의 인구센서스를 실시하였다. 지난해 실시한 인구센서스 결과가 나오면 최근의 북한 인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1993년 인구센서스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추정 기관에 따라 북한의 인구 추정치가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통계청은 2007년 7월 1일 기준 북한 인구를 2,320만 명으로 추정하였다.¹⁾ 연간 인구증가율을 0.8%라고 가정할 경우 2009년 7월 1일 기준 인구는 2,357명으로 추정된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2008년 7월 기준 북한의 인구를 23,479,088명, 2008년의 연간 인구증가율을 0.732%로 추정하였다.²⁾ 이를 바탕으로 2009년 7월 기준 북한 인구를 추정하면 2,365만 명으로 예상된다. FAO와 WFP는 2009년 연도 중 북한의 인구를 2,360만 명으로 추정하였다.³⁾ 이들 세 기관의 2009년 연도 중 북한 인구 추정치는 거의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추정치를 사용해도 큰 오차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식량 수요를 파악할 때도 추정 기관에 따라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WFP는 북한의 식량 수요를 추정할 때 정상적인 수요보다는 최소소요량 기준으로 추정 발표하고 있다. WFP는 북한을 긴급식량지원 국가로 취급하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1일 2,130 kcal의 75%만을 감안하여 1인당 1일 1,600 kcal (연간 167 kg)을 식용 소요량으로 추정한다. FAO/WFP가 추정한 인구를 적용하여 식용 소요량을 추정하고 사료용, 종자용, 가공용, 감소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가정을 바탕으로 2008/09 양곡연도의 곡물 총소요량을 추정하면 520만 톤으로 추정된다.

1) 통계청,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2008.

2)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kn.html#People>

3) FAO/WFP, Special Report: 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ec. 8, 2008.

- 식용 3,941,000톤(1인당 연간 167kg)
- 사료용 300,000톤(북한당국의 추정치)
- 종자용 190,000톤(ha당 정곡 기준 쌀 97.5kg, 옥수수 45kg, 밀·보리 200kg, 감자 375kg, 두류 45kg 적용)
- 가공용 118,000톤(식용 소요량의 3%)
- 수확 후 손실 646,000톤(농촌진흥청 곡물 생산량 추계치 431만 톤의 15%)
- 총소요량 5,195,000톤

통일부는 세계식량계획과는 달리 북한의 식량수요를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정상적인 에너지 섭취량을 기준으로 추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식용 곡물 소요량은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정상적인 에너지 섭취 기준 1인당 1일 2,130 kcal, 연간 222 kg과 통계청이 추정한 인구를 적용한다. 사료용, 종자용, 수확 후 손실 등 기타 용도는 위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2008/09 양곡연도의 곡물 총소요량을 추정하면 6,525,000톤으로 전망된다.

- 식용 5,232,000톤(1인당 연간 222kg)
- 사료용 300,000톤(북한 당국 추정치)
- 종자용 190,000톤(ha당 정곡 기준 쌀 97.5kg, 옥수수 45kg, 밀·보리 200kg, 감자 375kg, 두류 45kg 적용)
- 가공용 157,000톤(식용 소요량의 3%)
- 수확 후 손실 646,000톤(농촌진흥청 곡물 생산량 추계치 431만 톤의 15%)
- 총소요량 6,525,000톤

추정 기관에 따라 식량 수요의 기준이 다르며 인구, 곡물 생산량, 곡물 재배면적에 대한 추정치도 다르기 때문에 전체 식량소요량 추정치에 차이가 있다. 통일부의 기준을 적용하면 2008/09 양곡연도의 북한 곡물 소요량은 646만 톤, 세계식량계획 기준을 적용하면 513만 톤이 된다<표 5>. 세계식량계획 기준을 적용하여 추정한 513만 톤은 최소소요량, 통일부 기준을 적용한 646만 톤은 정상소요량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식량 수급 전망

농촌진흥청의 2009년 자체 식량공급량 추정치는 최소소요량 520만 톤에 비해 90만 톤 가량 부족하다. 식량 공급 부족량 90만 톤 중 국제사회의 지원과 통상적인 상업적 수입량 20만 톤을 감안하면 70만 톤 내외의 부족이 예상된다.

표 5. 2009 양곡연도 북한의 곡물소요량 추정

단위 : 정곡 1,000톤

용도		추정기관		비 고
		통일부 기준	WFP 기준	
인구(만명)		2,320	2,360	연도 중간 인구
용 도 별	식 용	5,232	3,941	기타는 수확 후 손실 등
	사료용	300	300	
	종자용	190	190	
	가공용	157	118	
	기 타	646	646	
	합 계	6,525	5,195	

국제사회의 지원 가운데는 미국의 지원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2008년 6월 북한에 50만 톤의 곡물을 지원하되 2009년까지 40만 톤은 WFP를 통해, 10만 톤은 5개의 구호단체(NGO)를 통해 제공기로 하였다. 2008 양곡연도 동안 총 118,000톤의 식량이 북한에 지원되었다. 이 중에서 WFP를 통해 지원된 식량은 98,000톤이며 나머지는 NGO를 통해 지원되었다. 당초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2009년 양곡연도 동안 나머지 38만 여 톤의 식량이 북한에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다. 그런데 최근 WFP를 통해 지원되는 식량의 분배투명성 문제가 제기된 데다 미국의 정권 교체까지 겹쳐 WFP를 통한 지원이 중단되고 있으며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다. 만일 WFP를 통한 대북 식량 지원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30여 만 톤의 식량이 2009 양곡연도 동안 추가로 제공되었지만 최악의 경우 전혀 제공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세계식량계획(WFP)은 2009년 북한의 취약계층 558만 명을 지원하기 위해 3억 4,600만 달러의 원조 계획을 설정하고 있으나 국제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계획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제곡물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해외 곡물 수입 여건은 개선되고 있으며 2009년에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이 예상대로 이루어질 경우 북한의 식량 부족량은 30만 톤으로 줄어들게 되지만 WFP를 통한 대북 식량 지원이 여의치 않을 경우 식량부족량은 60만 톤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최근의 남북관계에 비추어 볼 때 2009년 한국의 대북 식량지원 여부는 매우 불투명하다. 한국 정부는 2009년부터 대북 식량지원을 기존의 차관 방식에서 무상지원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지만 무상지원에 따르는 제반 절차를 북한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조차 어렵다. 만일 예년 수준의 대북 식량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의 식량 부족현상은 상당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2009년 북한의 식량수급은 2008년에 비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가 차원의 수급은 거의 균형을 이루거나 부족하더라도 약간의 부족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가계 수준의 식량안보는 2008년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당국이 이미 밝힌 바 있듯이 2009년부터는 시장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대신 국영 유통망을 통한 물자의 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가을 수확 이후 북한 당국은 협동농장에서 생산된 곡물의 수매 확대를 통해 양곡 재고량을 증대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는 2008년 한 해 동안 식량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보유하고 있던 비상 양곡을 대부분 소진하였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2009년부터 식량배급 및 국영 유통망을 통한 양곡 판매를 확대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을 통제하고 배급과 국영 유통망을 통한 식량 분배를 확대하더라도 식량이 부족한 계층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식량을 거래하는 암시장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 경우 암시장의 식량 가격은 공식 가격에 비해 높게 형성되기 마련이다.

시장을 통제할 경우 주민의 시장 활동 기회가 줄어들게 되므로 가계 소득은 현재보다 크게 감소하지만 시장의 식량가격은 상대적으로 더욱 올라가게 되어 특히 도시 주민의 식량 구입능력은 현저히 떨어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협동농장에서 식량을 분배받는 농촌 주민도 2008년 수확된 곡물의 정부 수매 확대와 비공식 생산 활동에 대한 통제에 따라 실질적인 식량 분배량이 평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상황이다. 따라서 시장을 통해 식량을 판매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어 현금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농촌과 도시 모두 주민의 소득이 감소하여 상품의 구매력이 떨어지게 되므로 전반적으로 생활의 질이 낮아지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 주민의 경우 소토지 농사의 축소와 시장의 통제는 식량 증산 유인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2009년 식량 생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4. 북한의 식량문제와 남북협력

북한의 식량문제는 외부로부터의 식량조달 확대와 자체 식량공급 능력의 증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외부로부터의 식량조달은 상업적 수입과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해 가능하다. 자체 식량공급 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곡물 재배면적의 확대, 영농자재의 공급 증대, 기술개발, 농업관리체계의 개편이 주된 수단이다. 현재의 상황은 이러한 수단 모두가 가능하지 않거나 실행에 옮기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북한이 자체 식량공급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농자재의 확대와 농업기술의 발전, 그리고 농업관리체계의 개선을 통해 가능하다. 이 중에서 단기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농자재의 공급확대이며 그 중에서도 비료의 공급

을 증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농업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인데 현재의 주체농법을 고집하는 한 농업생산성 향상은 한계가 있다. 농업관리체계를 현재의 집단영농에서 가족농 제도로 전환하게 되면 추가적인 투입 없이도 30% 정도의 생산성 증대가 가능하지만 이는 체제의 문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기대하기는 어렵다.

2006년 중반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국제 곡물가격은 2008년 하반기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2007년 초 수준으로 떨어져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나 향후 전망은 밝지 않다. 아직도 국제 곡물 가격은 2006년 수준보다 높으며 특히 한국인이 선호하는 중립종 쌀의 국제가격은 톤당 1,10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어 2006년의 2배 수준이다. 앞으로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 바이오 연료와 개도국의 식품 수요 증가로 곡물 가격은 다시 상승하여 과거와 같은 낮은 수준으로 되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의 주된 곡물 수입처인 중국의 곡물 수급 상황은 앞으로 더욱 나빠지고 곡물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국제 곡물시장 상황은 곡물을 수입해야 하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지 않다. 또한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은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 지원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2000년부터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지원을 통해 북한의 식량 부족 현상을 완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식량차관과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식량의 무상지원이 중단되었으며 향후 지원 전망도 밝지 않다. 2008년에는 대북 식량 지원 중단과 함께 비료 지원도 중단함으로써 북한은 심각한 비료 부족에 직면하였다. 향후 북한 경제가 회복되어 충분한 영농자재를 자체적으로 공급하고 농업기술이 발전하면 북한은 최소소요량 수준의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자체 식량 구입 능력을 높이거나 국제사회의 지원에 더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의 북한 경제 상황으로 판단할 때 적어도 중단기적으로 북한은 자체적으로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결국 북한이 식량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과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식량수급 안정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한국정부의 대북 식량차관 및 비료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중장기적으로 남북 협력은 필수 농자재의 지원과 농업기술 교류를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지난해 한국 정부는 향후 대북 식량 차관을 무상지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며 이는 2009년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다. 식량지원을 차관형태에서 무상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만 효과적이지 못한 무상지원은 차관보다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차관은 상업적 형태의 거래에 속하기 때문에 차관 제공에 대한 경제적 조건만 충족되면 그만이지만 무상지원은 지원 대상의 선정과 지원 방식, 그리고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적절한 평가가 따르지 않을 경우 역작

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재의 상황에서 남북한이 식량의 무상 지원을 위한 제반 조건을 협의, 합의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식량의 무상 지원을 위한 원칙을 정하지 않은 가운데 무리하게 무상지원을 추진하기 보다는 분위기가 성숙할 때까지 기존의 차관형태 지원을 고수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판단된다. 현 상황에서 굳이 무상지원을 추진코자 한다면 직접 지원보다는 세계식량계획 등을 통한 간접 지원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남북 대화가 재개되면 2007년 10.4 정상선언 및 그 후속 회담을 통해 남북한 사이에 합의한 내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북한 농업을 효과적으로 회생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NGO를 통한 농업개발협력도 함께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이 농업협력이나 민간차원의 농업협력 모두 효과적이고 성과가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동 향 분 석

1. 농업정책
2. 벼농사
3. 밭농사
4. 감자농사
5. 축 산
6. 농업기반
7. 산 림
8. 기타 작물
9. 기타 보도 동향

동향분석요약

북한은 신년공동사설에서 “총진군의 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올해를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글을 게재하고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속도전’과 ‘사상전’을 강조하였음. 농업부분에서는 생산증대를 위해 당의 방침(종자혁명, 두벌농사, 감자농사혁명, 콩농사 방침) 관철 및 자체의 힘으로 농사 투쟁을 전개할 것을 주장함.

각 협동농장에서는 봄내, 여름내 애써 가꾼 낱알을 한알도 허실없이 제때에 거두어들이기 위한 가을걷이와 낱알털기가 시작되었음. 또한 농산과 축산을 배합하고 농촌경리를 다각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며 전군중적으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고 있음.

콩 가을걷이와 동시에 다음해 콩농사 준비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음. 제때에 콩 가을걷이를 끝내기 위해 각 농장에서는 노동력과 농기계의 원만한 보장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다음해 콩농사 준비를 위한 콩종자 보관관리 사업과 콩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각 협동농장에서는 수확고가 높은 우량품종의 감자종자와 기후풍토조건에 맞는 감자 종자를 마련하고 보관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고산지대 감자산지에서는 다음해 감자 농사 차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감자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인민의 식생활을 윤택하기 위한 풀먹는 집짐승 기르기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어 토끼기르기와 염소기르기에서 큰 성과가 이룩되었음. 집짐승 겨울나기 준비를 위하여 집짐승의 먹이를 충분히 마련하여 제반 조건을 완비시키고 있음. 또한 수의방역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곡산간선 흙물길 공사가 마감단계에 들어섰으며, 평암저수지의 자연흐름식 물길공사와 구월산의 자연흐름식 수도화 공사 또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 가을철 국토관리 사업을 통해 각 지역의 도로건설 및 정리, 강하천 정리 사업, 나무심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수림화, 원림화를 위한 산림조성사업과 산림 보호 관리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각 군에서는 더 많은 나무모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나무모밭의 지력 향상, 종자 마련 사업 또한 진행되고 있음. 또한 산불방지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음.

각 협동농장에서는 가을 남새 비배관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실속 있게 하고 있음. 가을철 과수원 관리를 통한 과일 생산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키낮은 사과나무모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우량품종의 과일나무모 생산을 실시하여 많은 양의 과일나무모를 생산하고 있음.

서해벌방지역, 평안북도 등의 지역에서 수백세대의 살림집이 건설되어 인민 생활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음. 올해 알곡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 농촌에 대한 지원 사업이 실시되고 있음.

1. 농업정책

- 북한은 신년공동사설에서 “총진군의 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올해를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글을 게재하고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속도전’과 ‘사상전’을 강조하였음. 농업부분에서는 생산증대를 위해 당의 방침(종자혁명, 두벌농사, 감자농사혁명, 콩농사 방침) 관철 및 자체의 힘으로 농사 투쟁을 전개할 것을 주장함.

□ 신년공동사설

- 신년공동사설 ‘총진군의 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올해를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해로 빛내이자!’를 게재(로동신문 1. 1, 민주조선 1. 1)

정치

- 사상의 위력, 우리의 무한대한 정신력을 분출시키기 위한 정치사상공세를 높이 벌려야 함. 우리는 오늘의 격동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전당, 전군, 전민을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더욱 세차게 벌려나가야 함.
- 전후 어려운 시기 당과 수령을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위대한 천리마시대를 열어놓은 것처럼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켜 나가야 함.
- 우리식의 투쟁방식, 창조방식을 철저히 구현해야 함. 집단주의와 자력갱생은 우리 고유의 혁명방식이며 우리에게 이보다 더 좋은 식은 없음. 또한 자력갱생에 우리의 힘이 있고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열쇠가 있음.

경제

- 현시기 경제건설에서 우리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우월

성에 의거하여 생산정상화와 현대화를 밀접히 결합시켜 힘 있게 밀고 나감으로써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최고 생산수준을 돌파하는 것임.

- 우리는 금속공업의 선차적 발전을 중심고리로 틀어쥐고 인민경제 중요부문의 생산 잠재력을 최대한 동원하는데 힘을 집중해야 함.

[금속공업부문]

- 금속공업은 우리 사회주의 자립경제의 기둥임. 주체철의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리고 금속공장에 전기와 연료, 원료를 집중적으로 대주어 이미 개건된 현대적인 생산 공정이 큰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함.

[전력, 석탄, 철도운수 부문]

- 전력, 석탄, 철도운수 부문에서 혁신을 일으켜 전반적 인민경제의 발전 추동해야 함.
- 화력발전소를 만부하로 돌리는데 힘을 넣으면서 건설 중에 있는 수력발전소의 조업을 최대한 앞당겨야 함.
- 석탄공업부문에서는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며, 국가적으로 탄광의 생산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함.
- 철도운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수송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철도의 통과능력을 훨씬 높여야 함.

[채취공업부문]

- 유망한 광산을 실리 있게 개발하며 기계공업부문의 생산을 추동하고 현대화를 추진해야 함.

[화학공업부문]

- 기초화학제품생산을 늘리며 남홍가스화대상공사를 빨리 끝내야함.

[농업부문]

- 자체의 힘으로 먹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하는데 총력을 집중해야 함.
- 당의 종자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콩농사방침의 생활력을 더 높이 발양시키며 농촌에 대한 물질기술적 지원을 강화해야 함.

- 농산과 축산을 배합하고 농촌경리를 다각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며 전군중적으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어야 함.
- 농업근로자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함.

[수산부문]

- 수산물 생산과 재배어업, 양어를 발전시켜 인민의 식생활향상에 기여해야 함.

[경공업부문]

- 공장, 기업소, 지방산업공장, 가능한 모든 단위에서 내부예비를 동원하여 인민소비품 생산을 대대적으로 늘리고 상품공급사업을 개선하여 생활필수품에 대한 인민의 수요를 원만히 보장해야 함.

국방

- 선군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을 군사적으로 확고히 담보해야 함.
- 인민군대에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더욱 높이들고 나가야 함.
- 전군의 혁명화를 힘 있게 다그치고 동지애에 기초한 관병일치, 군정배합을 더욱 확고히 실현해야 함.
- 우리의 자주권, 존엄, 사회주의제도를 건드리는 자의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임.
- 온 사회에 총대중시, 군사중시의 기풍을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함.

대남·대외

-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가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자!”는 구호 밑에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야 함.
-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는 것은 현 시기 조국통일운동의 절박한 요구임.
-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할 것임.

표 1 신년 공동사설의 경제 및 농업분야 주요 내용, 1995~2009

연도	경 제 전 반	농 정 방 향
1995	· 혁명적 경제전략의 관철을 통한 인민 생활의 획기적 향상	· 협동적 소유, 전인민적 소유의 우월성을 높이 발휘하고 주체농법의 관철로 알곡생산목표 달성
1996	· 혁명적 경제전략 관철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여 인민생활 향상 및 자립적 경제토대 구축	· 주체농법에 따라 농사를 주인답게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알곡생산에서 결정적인 전환 달성
1997	· 자력갱생의 구호하에 경제적 밀천을 최대한 동원·이용하여 먹는 문제를 해결하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토건설로 부강한 조국의 토대 구축	· 주체농법에 따라 농민들의 지향, 자체의 실정에 맞게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고 쌀풍년, 고기풍년 마련. 초지를 대대적으로 조성하고 초식가축 사육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계속 전개
1998	· 경제건설은 최대의 힘을 넣어야 할 주전선임. 농업과 석탄공업, 전력공업과 철도운수, 금속공업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고 민족경제의 위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함.	· 농업생산의 증대, 먹는 문제 완전 해결 - 종자문제해결, 2모작 확대 - 농업을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민의 의사와 자체 실정에 맞게 수행 - 초식가축을 기본으로 축산업의 대대적인 발전
1999	· 경제건설은 강성대국 건설의 가장 중요한 과업. 정치사상적, 군사적 위력에 경제적 힘이 밀받침될 때 명실공히 강성대국 지위에 올라설 수 있음.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경제전반을 자기의 궤도에 확고히 올려 세우며 인민생활의 안정, 향상	· 농사에 전 국가적인 힘을 넣어 먹는 문제 해결 - 감자농사혁명 - 적지적작·적기적작 원칙에서 농업구조개선 - 2모작 확대와 종자혁명의 계속적 추진 - 토지정리사업의 대대적 전개
2000	· 올해 보다 큰 힘을 넣어야 할 전선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임. · 당의 경제정책을 옹호 관철해 나가며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립적 민족경제를 하나씩 추켜세워야 함. 모든 부문에서 실리를 철저히 보장하여 경제적 타산을 앞세우고 절약투쟁을 강화하며 생산물과 건설물의 질을 높여야 함.	· 주체농법의 철저한 관철 - 종자혁명과 감자농사혁명, 2모작 확대, 초식가축 사육 증대 - 양어사업을 대중적 운동으로 전개 - 토지정리와 산림조성을 비롯한 국토관리사업의 지속적 추진 - 개천-태성호 관개수로공사의 적극적인 추진

표 1 신년 공동사설의 경제 및 농업분야 주요 내용(계속), 1995~2009

연도	경 제 전 반	농 정 방 향
2001	· 경제건설의 중심 과제는 경제토대를 정비하고 경제전반을 현대적 기술로 개선하는 것임. ·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가장 중요한 부문은 전력, 석탄, 금속 및 철도운수부문임. - 대규모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전력생산을 정상화하고, 석탄생산 증대 - 금속공업의 설비 현대화를 통해 철강재 생산의 활성화 - 철도운수를 정비 보강하여 증가하는 수송수요 보장 · 경공업부문에서는 1차 소비품과 기초식품의 생산 증대	· 농업생산을 늘이는 것은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결정적 고리임. - 종자혁명과 감자농사혁명의 지속적 추진 - 2모작 면적의 확대 - 메기를 비롯한 생산성이 높은 물고기를 위주로 양어 확대 - 현대적인 축산기지 건설 - 황해남도 토지정리사업과 개천-태성호 관개수로공사를 비롯한 대자연개조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2002	· 제도 제일주의 구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촉진하여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임. - 채취,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돌파구 마련 · 주민생활 향상과 관련된 문제들을 최우선적으로 해결 · 경제관리의 개선 및 완성 · 제도 제일주의 구현을 위해 과학기술과 교육사업 발전에 전 국가적인 관심 증대	·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관철하여 농업생산 증대 · 황해남도 토지정리사업과 개천-태성호 관개수로공사의 조속한 완료
2003	· 사회주의원칙을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을 수 있게 경제를 관리운영해 나가야 함. · 국방공업을 중시하고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를 바탕으로 한 인민경제활성화 · 경공업의 현대화를 통한 인민소비품의 대대적인 생산 ·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선진기술을 배우고 최첨단과학기술을 받아들임 · 모든 부문, 단위에서 현대화의 뚜렷한 전망목표를 세우고 기술개건사업을 추진해나감.	· 당의 종자혁명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을 철저히 구현하여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함. · 대규모토지정리사업을 계속 힘 있게 밀고 나가며 혁명의 수도 평양을 새세기 맛이 나게 더욱 웅장화려하게 꾸려야 함.

표 1 신년 공동사설의 경제 및 농업분야 주요 내용(계속), 1995~2009

연도	경 제 전 반	농 정 방 향
2004	· “경제와 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나라의 국력을 백방으로 다지자!”라는 구호를 들고 힘찬 투쟁을 벌려야 함. · 경제전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에 주된 힘을 넣어야 함. · 화학발전소와 대규모수력발전소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중소형발전소들을 쓸모있게 건설하여 전력생산을 늘려야 함. · 석탄공업과 금속공업발전에 힘을 집중하고, 철도운수부문에서 수송조직과 지휘를 체계적으로 세워나가야 함.	·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기 위하여 종자혁명을 기본고리로 감자혁명과 두벌농사를 발전시켜야 함. · 콩농사와 과수업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하고, 축산기지들과 개건현대화된 닭공장을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함. · 토지정리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으며, 백마-철산 물길공사를 다그쳐야 함. · 평양시와 도, 시, 군소재지들의 면모를 일신시키며 국토관리사업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함.
2005	· 올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공전선은 농업전선임. ·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의 문제해결은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데 있음. · 전체 인민은 혁명적 각오로 농업부문에 필요한 노력과 설비, 물자들을 최우선적으로 무조건 보장해주어야 함. ·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을 발전시키며, 대규모수력발전소 건설을 앞당기고 석탄생산을 정상화하며 화력발전설비들의 능력을 높여 전력생산을 늘여야 함. · 경공업부문에서는 경공업공장들을 개건현대화하고 갖가지 질 좋은 인민소비품을 공급해야 함. · 평양시를 더 잘 꾸리고 도시와 농촌들에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많이 건설하여야 함.	· 농업부문에서는 종자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과 콩농사 방침을 비롯한 당의 농업혁명방침들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야 함. · 다수확품종을 심고, 비료와 농약을 보장해주며, 선진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농사일의 기계화비중을 높여야 함. · 농업지도기관들의 역할을 높여 농업생산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며 농업과학발전에 힘을 넣어야 함. · 백마-철산물길공사를 앞당겨 끝내며 대규모토지정리사업의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휘되게 하여야 함. · 전당, 전국, 전민이 농촌을 노력적으로, 물질적으로 힘있게 지원하여야 함.

표 1 신년 공동사설의 경제 및 농업분야 주요 내용(계속), 1995~2009

연도	경 제 전 반	농 정 방 향
2006	· 선군시대 경제건설 노선의 요구대로 국방공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최우선 보장해 줘야 함. · 전력공업부문의 전력문제를 풀어나가야 함. 석탄공업과 금속공업은 인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관건적 고리임. · 채취, 기계, 화학, 건재공업과 임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초적인 것부터 해결하면서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새로운 생산적 양상을 일으켜야 함. 경공업부문에서 생산공정을 적극 현대화하여 질 좋은 인민소비품 생산을 늘려야 함. · 경제부문 지도일꾼들은 과학적인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가지고 실리를 따져가며 경제사업에 대한 작전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창발적으로 해야 함.	· 올해에도 농업전선을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으로 내세우고 농사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 총집중하여야 함. · ‘쌀은 곧 사회주의다’라는 말을 지침으로 온 나라가 농업전선에 펼쳐나서야 함. 농업부문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물자들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함. · 당의 종자혁명방침, 감자농사 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콩농사방침 관철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와야 함. ·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답게 농사일을 간지게하며 모든 지원자들은 지난해처럼 농촌을 적극 도와줘야 함. · 미루벌을 비롯한 도처에서 물질(수로)공사와 토지정리사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며 토지관리를 잘해야 함. 기계화, 화학화를 적극 다그쳐 농업생산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야 함.
2007	· 사회주의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경제문제를 푸는데 국가적 힘을 집중해야 함. · 주된 과업은 인민생활을 빨리 높이는 데 선차적인 힘을 쏟으면서 우리 경제의 현대화를 위한 기술개선을 다그치는 것임. · 경공업에서는 인민소비품 생산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워야 함. 축산기지, 양어기지, 기초식품생산기지들이 은을 내게 하여야 함. · 인민경제의 4대 선행부문인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부문이 경제강국 건설의 전초선을 튼튼히 지켜야 함. 전기, 석탄문제를 결정적으로 풀어야 하며, 금속공업은 철강재 생산을 늘려야 함. 철도운수부문은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함. · 에너지 및 자원개발사업을 위해 채취, 기계, 화학, 건재, 임업부문들에서 생산을 활성화해야 함.	· 지난 시기와 다름없이 농사를 천하지대본으로 틀어쥐고 인민들의 먹는 문제 해결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여야 함.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농업혁명 방침관철에서 주인공다운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자체로 농사짓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함. · 농업발전의 전망에 대한 신심을 가지고 알곡생산을 훨씬 높일 수 있는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함. 농업생산에 필요한 영농물자와 자재들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함. 미루벌을 튼튼한 알곡생산기지로 꾸려야 함.

표 1 신년 공동사설의 경제 및 농업분야 주요 내용(계속), 1995~2009

연도	경 제 전 반	농 정 방 향
2008	- 강대국건설의 주공전선은 경제전선임 - 인민경제의 주체성 강화,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한 현대화를 통해 자립민족경제를 발양시켜야 함 - 인민경제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추켜세워야 함 -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는 내각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함.	-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문제를 해결하는것보다 더 절박하고 중요한 과업은 없음. - 다수확품종을 많이 심고 선진적인 영농기술과 영농방법을 받아들여 알곡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함. - 지난 10년간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 관철에서 이룩된 성과를 공고히하며 인민군대에서처럼 콩농사를 잘해나가야 함. - 농사에 필요한 영농설비와 자재들을 제때에 보장해주어야 함. - 자체로 농사를 짓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함. - 현대적인 축산기지, 양어기지, 과일생산기지들을 잘 운영하여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하여야 함.
2009	-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우월성에 의거하여 생산정상화와 현대화를 밀접히 결합시켜 힘 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최고 생산수준을 결정적으로 돌파해야 함. - 금속공업의 선차적 발전을 중심고리로 틀어쥐고 인민경제 중요부문의 생산 잠재력을 최대한 동원하는데 힘을 집중하여야 함.	- 자체의 힘으로 먹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하는데 총력을 집중해야 함. - 당의 종자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콩농사방침의 생활력을 더 높이 발양시키며 농촌에 대한 물질기술적 지원을 강화해야 함. - 농산과 축산을 배합하고 농촌경리를 다각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며 전군중적으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어야 함. - 농업근로자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함.

□ 농업정책

○ 당의 두벌농사 방침의 정당성(로동신문 10.14)

- 두벌농사는 한해에 같은 포전에서 농작물을 순차적으로 두 번 심어가꾸는 것으로 부침땅의 이용률을 2배로 높여 같은 면적에서 훨씬 많은 수확을 낼 수 있게 함. 현재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 의해 두벌농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농업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고 있음.
- 북한은 국토의 대부분이 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부침땅으로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벌농사를 해야만 함. 두벌농사를 하는 것은 새땅을 얻는 것과 같은 것으로 간석지를 개간하여 새땅을 얻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더 유익함.
- 또한 두벌농사방침은 농업의 전망적 발전방향을 규정하는 중요 방침의 하나임. 부침땅을 늘려 인민들에게 식량뿐 아니라 고기, 알, 과일, 남새뿐만 아니라 다양한 작물을 공급하여 식생활을 윤택하게 함.
- 따라서 두벌농사 방침의 정당성을 깊이 체득하고 이의 관철을 위하여 우리 농업의 주체적인 영농체제, 우리식의 농법을 확고히 발전시켜 나가야 함.

○ 농촌의 모든 힘을 가을걷이와 낱알털기에 집중하자(민주조선 10.18)

- 김정일은 “경제지도일꾼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경제사업을 실속 있게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함.
- 올해농사가 성공하는 것은 한알의 낱알이라도 제때에 허실 없이 더 많이 거두어들여 나라의 쌀독에 채워넣는데 있음. 농업지도기관 일꾼들의 모든 사색과 활동은 여기로 지향되어야 하며 그것으로 일관되어야 함.
- 일꾼들은 당면한 가을걷이와 낱알털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는데 자신의 본분을 다해야 하며, 모든 영농공정마다에서 일꾼들의 열의를 최대한으로 발양시켜야 함. 농업지도일꾼들은 이와 동시에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려 협동벌마다에 가을걷이와 낱알털기를 위한 분위기를 확산시켜야 함.
- 모든 노동력을 최대한으로 동원이용하여 작업능률을 높여야 하며 가을걷이와 낱알털기를 일정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한 조건보장사업에 응당한 관심을 돌려 트랙터를 비롯한 가재의 만가동 또한 보장해야 함.

- 또한 영농공정별 수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이해하고 장악하며 총화대책하는 사업을 밀접히 결합시켜야 함.

○ 당의 농업방침의 생활력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로동신문 10.18)

- 김정일은 “각 협동농장에서는 노동력을 가을걷이에 집중하며 모든 운반수단을 다 동원하여 가을한 곡식을 제때에 실어들이고 난알털기를 빨리 끝내도록 해야 한다”고 말함.
- 강냉이 가을걷이와 벼가을을 빨리 끝낸 농장에서는 그 기세를 늦추지 않고 벼단실어들이기와 난알털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농장원들이 봄내, 여름내 애써 가꾼 농작물을 한알도 허실 없이 거두어들여 나라쌀독에 채워넣는 사람이 바로 애국농민임을 인식함에 따라 벼단실어들이기는 마감단계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난알털기 실적도 날마다 오르고 있음.

○ 농산과 축산의 유기적인 배합(로동신문 11.11)

- 김정일은 “산간지대나 벌방지대나 할 것 없이 모든 농장에서 농산과 축산을 배합하여 발전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말함.
- 원래 농산과 축산은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 농사를 잘하여 알곡생산을 늘려야 집짐승먹이 문제가 풀려 축산을 발전시킬 수 있고 축산을 잘해야 거름을 많이 생산하여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음.
- 농산과 축산을 유기적으로 배합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두 분야의 매 공정과 요소가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로 맞물려지게 한다는 것임.
- 농산과 축산을 유기적으로 배합하여 발전시키는 것은 자체의 힘으로 농사를 안전하면서도 실리가 나게 잘 지어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인민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할 수 있게 하는 현실적인 방도임.
- 모든 농업부문, 협동농장에서는 농산과 축산을 유기적으로 배합하여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농업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적극 이바지 해야 함.

○ 자체로 농사짓는 농장이 늘어났다(로동신문 12.5)

- 김정일은 “농촌에서 <농장 포전은 나의 포전이다!>라는 구호 밑에 지원 노동력을 받지 않고 농사를 자체로 짓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함.

- 올해에 자체로 농사를 짓는데서 평안북도, 량강도, 평안남도가 앞장서고 있음. 룡천군, 운전군, 만경대구역, 덕천시, 삼지연군을 비롯하여 올해에 지원 노동력을 받지 않고 자체로 농사지은 시, 군은 수십 개에 달함.
- 전국의 본보기로 제시되는 운전군 운하협동농장을 본받아 보석, 관해협동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협동농장에서는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된 자각을 안고 모내기, 김매기, 가을걷이를 자체의 노동력으로 질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배천군 수원농장, 승호구역 리천협동농장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수많은 농장에서는 노동력 조직사업과 농장경영활동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자체로 농사를 짓는데서 높은 성과를 이룩하였음.

○ 농업전선에서 혁신의 불길 세차게(로동신문 1.2)

- 김정일은 “농사를 잘 지어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풀어야 인민들의 살림살이가 흥성하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사업이 잘 펼쳐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함.
- 새해 공동사설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체의 힘으로 먹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올해 알곡 생산 목표를 점령하는데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음.
- 농업부문에서는 올해 당의 종자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콩농사방침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올해 농사를 잘 지을 것임.

□ 농업관리

○ 분조관리제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나가자(민주조선 11.21)

- 김정일은 “농사를 잘 짓자면 농업생산의 직접적 담당자인 농장원이 일을 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함.
- 평강군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올해의 농사를 빨리 결속하기 위한 중요 방도의 하나를 분조관리제의 우월성을 계속 높이 발양시켜 나가는데서 찾고 이 사업에 큰 힘을 넣고 있음.
- 위원회에서는 가을걷이에 앞서 협동농장 일꾼에게 분조관리제를 더 잘 실시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를 다시금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음. 그리고 협동농장에서 앞선 분조의 성과와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음.

- 각 일꾼들은 분조농사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안고 농사일을 책임적으로 하도록 해야 함.
- 알곡증산의 예비는 대중의 심장에 있다(로동신문 11.28)
 - 김정일은 “농사의 주인은 농민이며 농민의 애국적 헌신성과 노력적 열성을 불러일으켜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고 말함.
 - 분조는 농사의 말단단위임. 따라서 농사일은 분조단위로 진행되며 분조가 얼마나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일하는가에 따라 알곡생산성고가 좌우됨.
 - 또한 농장원이 자신이 바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일할 때 알곡증산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음.
- 자체로 농사짓는 농장 수백개 장성(민주조선 12.9)
 - 김정일은 제힘으로 농사를 잘하고 있는 농장을 본받아 농촌에서 자체로 농사를 짓는 운동을 벌이기 위한 과업을 밝혔음.
 - 이에 농업성과 각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운전군 운하협동농장을 모범으로 삼고 농장원의 주인다운 자각을 높이고 있음. 매 영농과정에서 다음단계 준비를 선행시키고 입체적으로 일을 하여 농사차비와 모내기, 김매기와 가을걷이 등을 적기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룡천군 신암, 태천군 은흥, 선천군 은정협동농장 등 도내 많은 농장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농사일을 잘 해나가고 있음.
 - 증산, 숙천, 문덕, 연안, 안악군 내 여러 농장에서는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하고 영농방법을 개선하여 봄철과 가을철의 바쁜 시기에도 지원자를 받지 않고 있음.
 - 황주, 봉산, 연탄군 내 농촌에서는 농기계 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려놓고 트랙터, 모내는 기계 등의 이용률을 높여 자체로 농사를 짓도록 하고 있음. 단천시, 신흥, 허천, 함주군 내 농촌에서는 분조관리제를 실시하여 농기계, 부림소 등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있음.

□ 과학영농

- 농업전선을 과학기술로 힘 있게 추동(로동신문 11.12)

- 김정일은 “농업과학연구부문에서는 당의 과학기술중시방안을 높이 받들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함.
- 농업과학원에서는 인민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농업과학원에서는 1대 잡종벼를 하루빨리 넓은 면적에 확대도입하기 위한 사업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음. 작물재배연구소, 토양학연구소, 식물보호학연구소 등의 과학자도 1대 잡종벼의 확대도입에서 제기되는 여러 과학기술적 문제를 제때에 포착하고 풀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올해 농업과학원에서는 평안남도 도농촌경리위원회와 협동하여 도적인 규모에서의 본보기를 창조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도안의 시, 군에 나간 과학자들은 과학적인 농사방법을 내세우고 모든 영농공정에서 과학기술적 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농업과학원에서는 강냉이 종자가공을 높은 과학수준에서 공업화하기 위한 사업도 실속 있게 추진하고 있음. 이 사업이 성과적으로 실현되면 많은 알곡예비를 얻어낼 수 있음.

2. 벼농사

□ 각 협동농장에서는 봄내, 여름내 애써 가꾼 낱알을 한알도 허실없이 제때에 거두어들이기 위한 가을걷이와 낱알털기가 시작되었음. 모든 것이 부족한 실정에 맞게 합리적인 방법을 받아들여 농기계의 가동률을 높여 올해 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고 있음. 올해농사결속과 함께 다음해 농사차비를 위하여 다음해 농업생산 목표를 정하고 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유기질 비료 생산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음.

□ 가을걷이

○ 낱알을 한알도 허실없이 제때에 알뜰히 거두어 들이자(민주조선 10.14)

- 김정일은 “벼를 잘 걷어들이고 낱알털기를 꼼꼼히 하여 한알의 낱알도 허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함.
- 평안남도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이를 받들고 봄내, 여름내 애써 지은 낱알을 한알도 허실없이 거두어들이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위원회에서는 올해 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조직지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벼단뭉기로부터 낱알털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에 대한 기술적 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산하공장, 기업소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온천군과 대동군, 증산군에서도 가을걷이를 다그치고 있음. 군 안의 농업근로자들은 벼단뭉기와 동가리치기를 실시하면서 일정계획대로 벼단 실어들이기를 실시하고 있음. 또한 탈곡장으로부터 포전까지의 거리 등을 따져가며 실리에 맞게 노동력과 운반수단을 배치하여 제때에 실어들이고 있음.

○ 일꾼의 역할을 더욱 높여(로동신문 10.15)

- 중화군 채송협동농장에서는 강냉이가을과 밀보리심기를 끝낸데 이어 짧은 기간 안

에 벼가을을 빠르게 끝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음.

- 작업반, 분조에서는 한알의 낱알도 허실하지 않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있으며, 실천적 모범을 보이며 일꾼들을 이끌어나가고 있음.
- 제1작업반에서는 벼가을을 적기에 끝낼 수 있도록 공정별에 따르는 노동력 조직을 빈틈없이 조직한데 기초하여 분조장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나가고 있음.
- 농장원들의 불타는 열의, 주인다운 자세로 인해 가을걷이 실적은 하루가 다르게 부쩍 오르고 있음.

○ 가을걷이를 제때에 질적으로 끝낼 일념안고(민주조선 10.16)

- 김정일은 “가을걷이는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함.
- 신계군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협동농장에서 봄내, 여름내 애써 가꾼 낱알을 한알도 허실없이 제때에 거두어들이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화야, 사정, 대평, 대정 등 사정지구의 협동농장에서는 벼가을은 물론 동가리치기에도 응당 관심을 돌리고 있음. 또한 베어놓은 벼를 논판에 오래 두면 들수록 그만큼 낱알허실을 보게 된다는 것을 여러 실례를 통해 농장원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여 벼가을 및 동가리치기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 위원회에서는 군안의 협동농장에서 동가리치기를 기술규정의 요구에 맞게 하도록 기술적 지도를 심화시키고 있음.

○ 가을걷이와 낱알털기에 계속 큰 힘을(민주조선 10.17)

- 김정일은 “모든 일꾼들은 맡은 사업을 책임지고 하여 자기 손으로 씨를 뿌리고 자기 손으로 거두어들이는 사업기풍을 세워야 한다”고 말함.
- 길주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올해 농사를 성과적으로 짓기 위하여 당면한 가을걷이에 대한 지도를 착실하게 하고 있음. 또한 올해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는 데서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봉암협동농장에서는 작업반, 분조별로 노동력과 운반수단의 가동정형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한명의 노동력과 한대의 운반수단이라도 더 많이 가을걷이에 돌리도록 하면서 이미 세운 계획에 따라 가을걷이에 대한 기술지도를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 있게 해나가고 있음.

○ 역량을 총집중하여(민주조선 10.17)

- 김정일은 “다 지어놓은 낱알을 한알도 허실함 없이 제때에 거두어들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말함.
- 평안남도에서는 가을걷이를 제철에 끝내기 위해 모든 노동력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특히 안주시, 문덕군, 평원군, 온천군이 앞서 나가고 있음.
- 안주시 송학협동농장에서는 벼가 익은 상태를 일일이 알아보고 일정계획대로 그날 계획을 무조건 수행하도록 힘을 기울이고 있음. 또한 가을걷이와 벼단꺼들이기, 낱알털기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음.
- 립석, 동사, 남이, 상팔 협동농장을 비롯한 문덕군 안의 협동농장에서도 가을걷이에 기세를 올리고 있음. 동사, 남이협동농장에서는 가을걷이 계획을 날짜별, 포전별로 면밀히 세우고 온 역량을 총집중하고 있음.

○ 한알의 낱알도 허실없이 제때에(로동신문 10.18)

- 정주시 시당위원회에서는 “나를 따라 앞으로!”란 구령에 따라 가을걷이에 온 노동력을 집중시키고 있음. 또한 시에서는 벼단실어들이기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고 있음.
- 압두, 서주협동농장에서는 농사를 잘 지어 나라의 식량문제를 풀겠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하여 벼단실어들이기 실적을 올리고 있음. 오산, 일해, 흑록협동농장에서도 논면적이 많은 조건을 타산하여 목표를 높이 세우고 날마다 성과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음.

○ 벼가을을 빨리 다그쳐 끝낼 열의에 넘쳐(로동신문 10.19)

- 벼가을을 위한 만단의 준비를 갖춘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에서는 일정계획에 따라 벼가을을 추진하고 있음.
- 평안남도에서는 벼가을을 제일먼저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음. 도안의 농업근로자들이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하여 농기구를 충분히 마련함에 따라 벼가을을 짧은 기간안에 끝내고 벼단실어들이기와 낱알털기를 실시할 수 있었음.
- 평안북도의 룡천, 운전, 태천, 박천, 꾀산군을 비롯한 여러 시, 군에서는 벼베기가 이미 끝나고 벼단 실어들이기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황주군, 사리원시를 비롯한 황해북도의 농촌에서도 봄내, 여름내 애써 가꾼 곡식을

한알도 허실없이 거두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가을걷이를 떠미는 당조직정치사업(로동신문 10.21)

- 각지 당조직에서는 인민의 식량문제, 먹는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해서 당면한 가을걷이와 낱알털기에서 모든 역량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조직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황해북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모든 것이 부족한 조건에서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방법을 받아들여 벼탈곡기의 가동률을 높임으로써 낱알털기 실적을 높여나가고 있는 사리원시 구룡협동농장의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보여주기 사업을 조직하였음.
- 황해남도의 농촌당조직에서는 가을걷이의 추진에 맞게 벼탈곡기의 가동률을 높여 낱알털기 실적을 높여나가고 있는 협동농장의 사례를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땀 흘려 지은 낱알을 한알도 허실없이 제때에 알뜰히 거두어들이자(민주조선 10.21)

- 황해남도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여름내 땀흘려 지은 곡식을 허실없이 거두어들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위원회에서는 능력 있는 일꾼을 시, 군의 현지도 단위에 내려 보내 여러 형식과 방법으로 가을걷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위원회에서는 현지도단위의 가을걷이에 대한 지도를 실속있게 진행하는 한편 실정을 구체적으로 이해 장악하고 올해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물질적 조건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도농촌경리위원회의 실속 있는 조직정치사업에 의하여 도안의 현지도단위가 당면한 가을걷이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벼단실어들이기를 앞세우자(로동신문 10.23)

- 벼가을이 마감단계에 들어섰음. 가을한 벼를 빨리 실어들이야 낱알허실을 마고 낱알털기도 중단 없이 내밀 수 있음. 벼단을 논판에 놓아두면 놓아둘수록 여러 가지 피해를 입어 낱알허실이 많아짐.
- 벼단실어들이기를 최단기간에 끝내기 위해서는 모든 운반수단을 총동원하고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함. 일꾼들은 현지에 내려가 운반수단을 총집중하여 논판에 있는 벼단을 탈곡장에 빨리 실어들이기 위한 조직사업을 추진하고 제기되

는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어야 함.

- 협동농장에서는 트랙터 가동률을 더욱 높이고 달구지 등 운반수단을 모조리 동원하여 그날 계획은 그날로 어김없이 수행해야 함. 합리적인 부림장치는 모든 트랙터에 받아들여 벼단을 심는 속도를 높여 매일 실적을 올려야 함.
- 농업부문 일꾼, 근로자, 지원자는 나라의 쌀독을 책임졌다는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벼단실어들이기를 난알털기에 확고히 앞세워 나감으로써 애써 농사지은 곡식을 한알도 허실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벼단운반을 확고히 앞세워(민주조선 10.24)

- 금야군에서는 공동사설을 높이 받들고 애써 지어놓은 난알을 한알도 허실없이 거두어들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를 벼단을 빨리 꺼들이는데서 찾고 관련 사업을 면밀히 추진하고 있음.
-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벼가을을 끝낸 실정에 맞게 벼단꺼들이기를 난알털기에 확고히 앞세우기 위한 지도를 실속 있게 하고 있음.
- 위원회에서는 협동농장에서 트랙터를 비롯한 운반수단을 총집중시키는 한편 작업조직을 합리적으로 하여 운반수단의 가동률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벼단꺼들이기에 필요한 영농물자와 자재를 원만히 보장하는데 힘을 넣는 한편 이 일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는 단위의 성과와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실시하고 있음.
- 량탄협동농장에서는 품들여 지은 난알을 한알이라도 허실할세라 서로가 마음을 쓰며 집단주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고 있음. 흥평협동농장에서도 벼단꺼들이기 성과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음. 노동력과 운반수단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한편 분조관리제의 우월성이 뚜렷이 나타나도록 노력일 평가사업을 정확히 하여 그날 계획은 그날로 무조건 수행하고 있음.

○ 한알의 난알도 허실없이(로동신문 10.25)

- 안변군에서는 벼가을을 끝낸 기세로 벼단실어들이기와 난알털기를 다그쳐 끝내기 위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군에서는 운반수단을 최대한 동원하여 벼단을 제때에 꺼들여 애써 지은 곡식을 한알도 허실하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도 세워나가고 있음.

- 천삼협동농장에서는 일정계획을 포전별, 날짜별로 구체적으로 세우고 노동력과 운반수단을 집중하여 벼단실어들이기와 낱알탈기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 사평, 읍협동농장을 비롯한 군 안의 다른 협동농장에서도 벼단실어들이기와 낱알탈기를 동시에 추진하여 실적을 올리고 있음.
- 비산, 오계협동농장에서는 포전도로에 대한 보수와 운반수단의 수리정비에 깊은 관심을 돌려 베어놓은 곡식을 실어들이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음. 더불어 곡식을 실을 때 낱알허실을 막기 위한 대책도 빈틈없이 세워나가고 있음.

○ 한사람 같이 떨쳐나(민주조선 10.25)

- 광산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군안의 협동농장에서 벼단꺼들이기와 탈곡에 힘을 집중하여 짧은 기간에 결속을 맺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협동농장에 내려가 있는 경영위원회 일꾼은 트랙터를 비롯한 운반수단의 이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이고 탈곡기에 만부하를 걸기 위한 대책을 면밀하게 세우면서 이신 작칙의 모범으로 농장원을 이끌고 있음.
- 로하, 관상협동농장에서는 올해 농사를 짧은 기간에 끝맺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벼단운반을 낱알탈기에 확고히 앞세우도록 노력하고 있음.
- 원하, 문장, 초장협동농장에서는 여러 난관을 농업근로자들이 자체의 힘으로 극복해 나가면서 탈곡기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있음.

○ 낱알탈기를 다그친다(민주조선 10.26)

- 온천군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한해 농사결속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 총집중하여 낱알탈기를 빨리 끝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위원회 일꾼들은 현장에 나가 제기되는 문제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제때에 풀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일꾼들은 벼탈곡기와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의 예비부속품을 원만히 보장해주고 고장이 나면 제때에 수리정비할 수 있게 연관부문 단위와 수리공파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여러 효과적인 운반수단을 이용하여 낱알탈기에 벼단운반을 앞세우도록 하고 있음.
- 금당, 읍, 서화협동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협동농장에서는 봄내, 여름내 애써 지은

곡식을 허실없이 말끔히 건어들이기 위해 역량을 총집중하고 있음.

○ 낱알털기에 모든 힘을 집중(로동신문 10.28)

- 평양시 주변 농촌에서는 벼단꺼들이기와 낱알털기가 마지막 단계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였음. 평양시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시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벼단꺼들이기와 낱알털기를 짧은 시간 안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일꾼들은 벼단꺼들이기와 낱알털기에 모범을 보이는 협동농장을 내세워주고 그 경험을 적극 일반화하면서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벼단꺼들이기와 낱알털기를 제때에 진행하도록 잘 이끌고 있음.
- 낱알털기 작업에서는 벼단꺼들이기를 제일 먼저 끝낸 만경대구역 안의 농장과 승호구역, 강동군 안의 협동농장에서 앞서나가고 있음.
- 승호구역에서는 트랙터, 달구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운반수단을 이용하여 벼단꺼들이기를 집중적으로 진행하면서 낱알털기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

○ 한알의 낱알도 허실없이(민주조선 10.28)

- 평원군 삼봉협동농장에서는 가을걷이와 낱알털기를 제때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가을걷이가 시작되기 전에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의 준비를 빈틈없이 한 농장에서는 그 가동률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힘 있게 추진하고 있음.
- 농장에서는 또한 가을걷이가 빠른 속도로 진척되는데 따라 베어놓은 벼를 빨리 묶어 동가리를 치기 위한 사업을 진공적으로 내밀고 있음. 특히 베어놓은 벼를 논판에 묵이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말이어 꺼들일 수 있도록 벼단묶음의 크기를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함께 필요한 곳에서는 동가리를 크게 쳐 낱알손실을 크게 줄이고 수송수단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게 하고 있음.
- 제9작업반에서는 노동력과 운반수단을 가을걷이에 총집중하고 있으며, 제11작업반 농장원들은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낱알 한알이라도 허실하지 않도록 주인다운 입장에서 벼단꺼들이기와 낱알털기를 실속있게 해나가고 있음.

○ 역량을 집중하여 낱알털기를 제철에(민주조선 10.30)

- 덕성군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낱알털기를 짧은 기간에 끝낼 목표를 세우고 모든 협동농장에서 운반수단을 총동원하여 벼단꺼들이기를 앞세우면서 탈곡을 빨

리 다그치도록 하고 있음.

- 임자협동농장에서는 벼단꺼들이기와 낱알털기를 짧은 기일 안에 끝낼 목표 밑에 모든 노동력과 운반수단을 총동원, 총집중하고 있음. 이곳에서는 트랙터와 달구지를 비롯한 운반수단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벼단꺼들이기를 앞세워 일정계획대로 낱알털기를 실시하고 있음.
- 덕우, 삼기협동농장에서는 아직은 부족한 것이 많은 조건에 맞게 탈곡기의 이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한편 족답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탈곡수단도 총동원하여 매일 낱알털기 실적을 높이고 있음.
- 군안의 협동농장에서는 운반수단이 마력을 충분히 낼 수 있도록 포전도로손질 또한 자주 실시하고 있음.

○ 올해 농사를 빛나게 결속할 일념안고(민주조선 11.14)

- 평안남도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올해 농사결속의 마지막 공정인 낱알털기를 질적으로 하기 위한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이의 추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낱알털기에서는 강서군, 천리마군, 안주시, 평원군이 앞장서고 있음. 강서군안의 협동농장에서는 낱알털기 목표를 현실성 있게 세우고 낱알털기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음.
- 태성협동농장에서는 낱알털기에 동원되는 농기계의 가동률을 높여 실적을 올리고 있음. 안주시, 천리마군의 농업부문 일꾼은 식량문제, 먹는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해 책임감을 높이고 있음.
- 원화, 삼봉, 송석협동농장을 비롯한 평원군 안의 협동농장에서는 불리한 작업조건을 과감히 이겨내면서 한알의 낱알도 허실할세라 일을 알뜰하고 꼼꼼하게 하면서도 낱알털기 실적을 부쩍 높이고 있음.

○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마감고비에서(민주조선 11.16)

- 벽성군 통산협동농장에서는 벼단꺼들이기와 낱알털기에 역량을 집중하여 성과를 올리고 있음.
- 농장일꾼들이 한개 작업반씩 맡아 곡식을 말끔히 거두도록 조직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제3작업반에서는 작업조를 조직하고 탈곡기에 만가동, 만부하를 걸어 일정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해 나가고 있음.

- 낱알털기 실적이 높은 단위에는 제6작업반도 있음. 작업반에서는 노동력과 운반수단을 낱알털기에 집중하고 그날 계획은 그날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한알도 허실없이 말끔히 거두어들인다(민주조선 11.13)

- 김정일은 “낱알털기를 빨리 하지 않으면 많은 낱알이 허실된다”고 말함.
- 사리원시 구룡협동농장에서는 일꾼, 근로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당면한 낱알털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음. 농장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낱알털기를 끝낼 높은 목표를 내걸고 온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음.
- 제 2작업반에서는 탈곡기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장사업을 맡은 사람들 사이의 협동작업을 강화하여 낱알털기 속도를 높이도록 하고 있음.
- 제3작업반을 비롯한 농장 안의 다른 작업반에서도 모든 농장원이 주인다운 입장에서 열심히 탈곡을 진행하여 교대당 많은 양의 벼를 털어내도록 하고 있음.

○ 가을갈이 힘 있게 추진(민주조선 11.20)

- 알곡증산예비의 하나가 지력을 높이는데 있다는 것을 명심한 각급 농업지도기관 일꾼은 각 농장에서 낱자별, 포전별에 따라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노동력과 농기계수단을 집중하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황해북도에서는 논밭갈이가 힘 있게 추진되고 있음. 봉산군, 연산군, 평산군, 장풍군 내 협동농장에서는 트랙터의 가동률을 높이면서 부림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짧은 기간에 계획된 면적의 논밭갈이를 전부 끝내었음.
- 평성시, 강서군, 성천군을 비롯한 평안남도 내 농촌에서는 가을갈이를 제때에 빨리 끝낼 목표를 세우고 매일 수백정보의 논밭을 갈아엎고 있음.
- 함경남도 내 농촌에서도 논밭갈이 성과가 확대되고 있음. 황해남도과 강원도 등에서도 가을갈이를 빨리 추진하는 것을 비롯하여 다음해 농사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고 있음.

○ 논밭갈이를 다그친다(민주조선 11.25)

- 은파군의 협동농장에서는 땅이 얼기 전에 가을갈이를 전부 끝낼 목표를 내세우고 논밭갈이에 힘을 쏟고 있음.

-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가을갈이를 최적기에 해내기 위해 일꾼을 협동농장에 내려보내어 실태를 알아보고 낱짜별, 포전별로 논밭갈이계획을 빈틈없이 세우며 갈이수단을 최대한 집중하는데 힘을 넣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음.
- 초구협동농장에서는 가을갈이 실적을 부쩍 올리고 있음. 농장에서는 가을갈이가 낱알털기와 겹쳐 진행되는 실정에서 노동력 조직을 조직하고 작업반, 분조별로 성과를 더 올릴 수 있도록 선동하고 있음.
- 갈현협동농장에서는 질보장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하나의 포전을 갈아 엮어도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농사차비

○ 낱알털기와 다음해 농사차비에 힘을 집중(로동신문 11.11)

- 함경북도 안의 농촌에서는 낱알털기가 마지막 단계에 들어섬.
- 도당위원회에서는 낱알털기를 짧은 기간에 신속하게 끝낼 목표를 세우고 대중을 동원하고 있음. 특히 일꾼들은 각 시, 군에 내려가 지도사업을 강화하여 낱알털기의 속도를 높이고 있음.
- 회령시 안의 협동농장에서는 낱알털기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음. 시 안의 일꾼, 근로자들은 올해 농사를 꼼꼼하고 성실하게 해온 것처럼 낱알털기에서도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고 있음. 특히 탈곡기의 만가동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기울이고 있음.
- 경성군을 비롯한 도안의 다른 군에서도 노동력 조직과 지휘를 실시하여 기세를 북돋움으로써 낱알털기 실적을 더욱 높여나가고 있음.

○ 다음해 농사차비에 큰 힘을(민주조선 11.15)

- 화대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 당면한 올해농사결속과 함께 다음해 농사차비를 실속있게 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에서는 다음해 농사차비에서 여러 가지 유기질 비료생산에 큰 힘을 넣도록 하고 있음.
- 위원회에서는 낱알털기를 마지막 고비에서 힘있게 하도록 격려하는 한편 다음해 농사에 쓸 여러 가지 유기질 비료생산 준비를 착실하게 하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양촌, 교향협동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모든 협동농장에서는 난알털기를 일정계획대로 내미는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태양열온실을 짧은 기간에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음.
- 창촌협동농장에서는 난알털기를 하면서 탈곡장마다에 생물활성퇴비 생산장을 만들어놓고 복대기를 비롯한 농부산물이 나오는 족족 여기에 모아놓도록 하고 있음.

○ 농사차비를 착실히(민주조선 11.20)

- 김정일은 “농사차비를 잘하는 것은 한해농사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말함.
- 강계시 서산협동농장에서는 농사차비를 빈틈없이 갖추는 것을 다음해 농업생산목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 문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농장일꾼들은 작업반, 분조를 맡고 다음해 농업생산목표와 실태를 정확히 이해한 데 기초하여 농사차비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단계별로 힘 있게 추진하고 있음.
- 또한 가을갈이, 종자선별과 관리, 거름생산, 모판자재 확보, 소농기구 준비 등 다음해 농사차비의 모든 지표가 다 계획대로 진척되도록 조직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제1, 3작업반에서는 농업생산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땅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 도시거름생산과 니탄캐기에 힘을 집중하여 매일 계획된 거름생산과제를 넘쳐 수행하고 있음.
- 농장에서는 가을갈이와 거름생산, 모판자재확보, 소농기구준비 등 다음해 농사차비정형을 작업반, 분조별로 구체적으로 따져가면서 농사차비 준비를 실속있게 해나가고 있음.

○ 다음해 농사차비를 다그친다(로동신문 11.23)

- 회령시에서는 다음해 농사차비에 큰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 있음. 시에서는 역량을 집중하여 가을갈이와 거름, 중소농기구 생산을 힘 있게 밀고나가면서 흙보산비료생산준비 등 다음해 농사차비에서 연일 혁신을 일으키고 있음.
- 창효, 금생협동농장의 농장원들은 농업생산에서 종자문제가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명심하고 소출이 높으면서도 지대적 조건에 맞는 종자를 확보하는데 큰 힘을 넣고 있음.
- 각 농장에서는 해당 단위와의 긴밀한 연계 하에 지대적 조건에 맞는 우량품종의

종자를 적지 않게 해결하였음. 이에 기초하여 거름원천을 적극 찾아내어 거름생산을 늘이기 위한 대책도 빈틈없이 세우고 있음.

- 풍산협동농장을 비롯한 시안의 협동농장에서는 모판자재준비와 모판자리 만들기도 잘해나가고 있음.

○ 다음해 농사차비에 모든 힘을 집중(민주조선 11.26)

- 강원도에서는 다음해 농사차비 준비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였음.
-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시, 군안의 협동농장에서 땅이 얼기 전에 가을갈이와 모판자리 만들기를 앞세우면서 거름생산과 실어내기, 자გი지방의 기후풍토에 알맞은 다수확품종의 종자확보를 잘해나가도록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원산시, 천내군의 협동농장에서는 올해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한 기세로 거름생산과 물거름 실어내기를 착실히 수행하고 있음.
- 협동농장에서는 작업반, 분조별로 유기질 비료생산과제를 정확히 주고 그 수행을 힘 있게 추진하고 있음. 특히 천내군 읍협동농장의 일꾼들은 짧은 기간에 600여톤의 질 좋은 도시 진거름을 실어들였음.
- 세포, 법동 등 산간지대 군에서는 땅이 얼기 전에 가을갈이와 모판자리 만들기를 끝낼 목표 밑에 노동력과 같이수단을 집중하여 매일 실적을 올리고 있음.

○ 다음해 농사차비에 큰 힘을(로동신문 11.28)

- 평안북도 도당위원회에서는 다음해 농사차비를 위해 조직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도당위원회에서는 세계적인 식량위기에 대처하여 부족한 식량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사차비를 실속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당원, 근로자에게 인식시키고 있음.
- 도에서는 다음해 농사차비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태천군 은흥협동농장에서 보여주기를 조직하고 농장의 경험을 일반화하고 있음. 한해 전부터 생산한 거름을 정보당 30-50톤씩, 흙보산비료는 5톤 이상씩 내어 알곡생산에서 성과를 거둔 이 협동농장에서는 벌써 논밭에 정보당 거름을 30톤씩 실어내고 많은 거름을 더 장만하고 있음.
- 운전군당위원회에서는 농사차비에서 기본을 유기질 비료생산에 두고 군안의 모든 노동력과 수단이 이 사업에 집중되도록 하고 있음.

○ 다음해 농사차비를 실속 있게(민주조선 11.29)

- 은천군의 협동농장에서는 다음해 농사차비를 다그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군당위원회의 지도 밑에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올해의 농사결속 마감단계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다음해 농사차비에서 중요한 영농공정의 하나인 벼모판갈이를 일정계획대로 내밀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안리, 량담협동농장에서는 당면한 농사일로 노동력이 긴장한 속에서도 모판갈이를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음. 농장원에게 벼모판자리를 제때에 질적으로 갈아야 다음해 논벼농사에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고 알려주면서 자기가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하도록 적극 불러일으키고 있음.
- 제도, 은혜협동농장에서는 작업반, 분조를 조직하고 매일 실적을 정확히 평가하면서 앞선 단위와 농장원의 혁신적 성과를 널리 소개선전하고 있음.

○ 논밭갈이에 힘을 집중(로동신문 12.6)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각지 농촌에서 논밭갈이에 힘을 집중한 결과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훨씬 많은 면적의 논밭을 갈아엎는 성과를 거두었음.
- 함경남도와 황해북도가 올해 논밭갈이에 앞장섰음. 허천군의 근로자는 농사차비에서 논밭갈이가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력하여 밭갈이를 100%로 끝냈음. 장진군, 부전군에서는 부림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평지밭, 비탈밭 할 것 없이 밭갈이의 많은 몫을 해내었음.
- 황해북도에서는 땅이 얼기 전에 논밭을 기본적으로 갈아엎을 높은 목표를 세우고 논밭갈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양강도에서는 부림소를 적극 이용하여 밭갈이 실적을 부쩍 올리고 있음. 김형권군, 운흥군, 풍서군에서는 땅이 얼기 전에 밭갈이를 끝낼 높은 목표를 세우고 밀, 보리, 감자밭갈이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거의 모든 면적의 밭을 갈아엎는 성과를 거두었음.
- 서해곡창지대인 황해남도와 평안남도에서도 논밭갈이가 한창임.

○ 다음해 농사차비로 들끓는 협동벌(로동신문 12.7)

- 신천군 군당위원회에서는 협동농장에 내려가 농업근로자에게 다음해 농사차비가 갖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시키면서 농사차비에 온 힘을 집중하도록 격려하고 있

음.

-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새길협동농장에서 다음해 농사차비를 위한 보여주기 사업을 조직함. 보여주기 사업에서는 가을갈이와 질 좋은 흙보산비료, 생물활성퇴비 생산에 힘을 넣고 있는 이 농장의 경험이 소개되었음.
- 보여주기 사업에 이어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꾼들은 한개 농장씩 맡고 내려가 다음해 농사차비를 위한 기술차비를 실속 있게 하고 있음.

○ 다음해 농사차비에 역량을 집중(민주조선 12.7)

- 김정일은 “농사차비에 모를 박아야 한다”고 말함.
- 황해남도 도당위원회에서는 가을갈이와 유기질비료 생산, 중소농기구 생산 및 수리정비를 힘 있게 추진하고 있음.
- 신천군 새길협동농장에서는 군적인 보여주기사업을 조직하고 논밭갈이와 가을 밭, 보리비배관리, 흙보산비료 및 생물활성퇴비생산, 트랙터와 중소농기구 수리 등 다음해 농사차비에서 나서는 기술적 문제를 시, 군 농업부문 일꾼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음.
- 다음해 농사차비에서는 신천군, 안악군, 연안군, 봉천군이 앞장서 나가고 있음.

○ 다음해 농사차비에서 혁신(로동신문 12.10)

- 각 농장에서 다음해 농사차비에 박차를 가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거름생산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600여만 톤이 더 늘어났음. 또 흙갈이는 2배, 흙보산 비료생산은 1.5배, 벼모판 만들기는 1.9배 이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다음해 농사차비에서는 황해북도가 앞장서고 있음. 황주, 연탄, 신평군 내 협동농장에서는 논밭지력이 높아야 알곡생산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거름생산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계획된 양의 40% 이상을 수행하였음.
- 황주, 은파, 평산, 금천군에서는 벼모판 만들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은률, 연안, 신천 등 여러 군 농업근로자의 양양된 열기 속에 황해남도에서는 매일 수만 톤의 거름이 마련되고 있음.
-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매일 수만 톤의 거름이 더 생산되고 있는 함경남도에서는 장진, 부전, 홍원, 리원군이 계획의 60% 이상을 수행함으로써 도적으로 앞서나가고 있으며 단천시에서는 벌써 계획한 면적에 대한 흙갈이를 전부 끝내는 성과를 거두

있음.

- 평안남도, 함경북도, 자강도, 양강도 내 농촌에서도 거름, 부식토, 흙보산비료 생산과 흙갈이, 벼모판만들기 등 다음해 농사차비를 실속 있게 진척시키고 있음.

○ 다음해 농사차비를 앞질러가며(민주조선 12.11)

- 초산군에서는 올해 농사결속과 함께 다음해 농사를 잘 짓기 위한 준비사업을 힘 있게 추진하고 있음.
- 군일꾼들은 다수확품종의 종자를 마련하고 그 보관관리를 기술적 요구대로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음. 또한 벼와 강냉이, 감자와 콩종자 등 다음해 농사에 필요한 종자를 원만히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양토, 연무, 와인협동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협동농장에서는 종자관리공이 자신의 책임 하에 종자창고의 온습도를 정확히 보장하고 있음. 또한 질 좋은 유기질 비료를 많이 생산하는데 커다란 힘을 쏟고 있음.
- 또한 각 농장에서는 거름더미가 곧 쌀더미라는 것을 명심하고 생물활성 퇴비생산에 필요한 원천과 종균을 제때에 확보하고 기술적 요구대로 거름을 생산하도록 하고 있음.

○ 다음해 농사차비를 힘 있게(민주조선 12.16)

- 성천군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올해 농사정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다음해 농사 대책안을 빈틈없이 세웠음. 이에 기초하여 위원회에서는 모든 단위에서 다음해 농사차비를 실속 있게 하도록 경제조직을 실시하고 있음.
- 일꾼들은 농장일꾼과 함께 곳곳을 밟아가며 지력 상태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내야 할 거름량을 확정하는데 기초하여 거름생산을 올리도록 하고 있음.
- 읍, 상하협동농장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노동력 조직사업을 추진하여 매일 많은 양의 거름을 생산하고 있음.
- 삼덕, 룡흥협동농장에서도 다음해 농사차비로 바쁜 모습임. 이곳에서는 축산에 계속 힘을 넣어 질 좋은 거름을 많이 생산해내고 있음.

□ 동가리치기

○ 동가리치기를 따라세워(민주조선 10.18)

- 은파군 레로협동농장에서는 땀흘려 지은 난알을 한알도 허실없이 제때에 알뜰히 거두어들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레로협동농장에서는 벼가을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벼단묶기와 동가리치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농장에서는 작업반장과 분조장들로 하여금 베어놓은 벼단을 빨리 묶고 동가리를 치도록 노동력 조직을 합리으로 조직하고 있으며 농장원들이 일정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제반 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고 있음.
- 제1작업반에서는 긴장한 식량문제, 먹는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한 결의 밑에 마을을 합쳐 갇힌 일숨씨를 발휘하여 높이 세운 벼단묶기와 동가리치기를 일정계획대로 수행해나가고 있음.
- 제3작업반에서는 농장원의 체질과 능력에 맞게 벼단묶기와 동가리치기를 조직하고 작업수행의 양과 질에 따라 노동력일 평가사업을 실시하여 성과를 올리고 있음.

3. 밭농사

- 콩 가을걷이와 동시에 다음해 콩농사 준비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음. 제때에 콩 가을걷이를 끝내기 위해 각 농장에서는 노동력과 농기계의 원만한 보장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다음해 콩농사 준비를 위한 콩종자 보관관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콩밭의 지력을 높이고 비배관리를 잘하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

□ 콩농사

○ 콩농사를 중시한 보람(로동신문 10.28)

- 김정일은 “콩농사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 재배기술과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다”라고 말함.
- 회령시 대덕협동농장에서는 농장의 콩농사에서 수확고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배방법을 받아들였음. 주로 콩과 강냉이의 사이그루재배방법을 받아들였음. 이는 한 개 포전에서 일정한 이랑을 사이에 두고 강냉이와 콩을 갈라 심는 재배방법임.
- 농장의 사이그루재배에서 주목되는 것은 지난 시기보다 포기 사이간격을 실정에 맞게 정해놓고 콩을 한줄씩 심는 방법을 받아들인 것임. 줄과줄방법이라고 하는 이 방법대로 콩농사를 하면 포기마다 영양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고 평당 콩포기수를 더 늘릴 수 있어 수확고가 오르게 됨.
- 농장에서는 이러한 재배방법을 받아들인 조건에 맞게 종자와 적지를 선정함. 그리고 정보당 콩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해 많은 거름과 흙보산비료를 생산하여 콩을 심을 때와 자라는 시기에 과학기술적으로 시비함.
- 또한 해마다 그루바꿈을 하여 강냉이를 심었던 이랑에는 콩을 심고 콩을 심었던 이랑에는 강냉이를 심어 같은그루심기에 의한 피해를 막음으로써 최대수확을 낼수 있게 하고 있음.

○ 콩종자 준비도 미리부터(민주조선 11.16)

- 자성군에서는 다음해 콩농사 준비를 착실히 실시하고 있음.
 -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책임 일꾼들은 류삼, 삼거협동농장을 비롯한 콩을 많이 심는 농장에 내려가 우량품종의 종자확보를 책임적으로 하도록 조직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읍, 귀인협동농장에서는 탈곡장을 따로 정하여 놓고 모든 정성을 다해 종자콩을 털어 내고 있음.
 - 자성군 내 협동농장에서는 콩종자 보관관리를 잘하기 위한 준비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 군에서는 콩종자 보관용으로 쓸 수많은 포장용기를 생산하였음. 그리고 이미 있던 종자창고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빈틈없는 대책을 세우고 있음.
 - 호례협동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협동농장에서는 다음해 콩심을 면적에 따르는 종자량을 확보하고 그것을 보관할 장소를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음.
- 콩농사도 인민군대처럼(민주조선 12.14)
- 김정일은 “콩을 많이 심도록 해야 한다”고 말함.
 - 도농촌경리위원회와 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콩농사를 잘짓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각 농업지도기관에서는 우량품종의 종자를 심고 콩밭의 지력을 높이며 비배관리를 잘하기 위한 사업을 그 어느해 보다 실속있게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콩농사를 전문으로 하는 단위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 한편 모든 협동농장에서 농사차비로부터 씨불임, 비배관리와 가을걷이에 이르기까지의 영농공정을 과학기술적 요구에 맞게 하기 위한 사업을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진행하였음.
- 기대되는 콩농사 작전(로동신문 1.9)
- 김정일은 “콩농사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 재배기술과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다”라고 말함.
 - 정초부터 화대군의 일꾼은 당의 콩농사 방침을 더욱 더 잘 관철하기 위한 각오를 다졌음. 이미 파악이 있는 콩종자가 확보되는데 만족하지 않고 최대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재배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대책을 찾아나가고 있음.
 - 군 안의 기관, 기업소에서는 협동농장을 담당하여 적극 도와주도록 하고 있음.
 - 앞선 재배방법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질 좋은 거름을 콩포전에 많이 내어 땅의 지력

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모든 농장에서는 흙보산비료, 생물활성퇴비 등 질 좋은 유기질 비료를 많이 생산하여 콩포전에 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가을걷이

○ 주인다운 자세로(로동신문 10.15)

- 강서군 약수협동농장에서는 강냉이 가을걷이가 마지막 단계에 이를수록 한알, 한 이삭의 강냉이라도 허실하지 않도록 모두가 주인다운 기풍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한개 작업반씩 맡고 내려간 일꾼들은 가을을 끝낸 포전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사업을 빈틈없이 마무리하고 있음. 그리고 강냉이를 가을하여 실어들일 때 한이삭이라도 흘리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음.
- 그 결과 농장원들의 책임감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강냉이 이삭을 담는 구역을 촘촘히 엮고, 이삭따기를 꼼꼼히 하여 높은 소출을 올리고 있음.
- 시간이 흐를수록 농장원들의 사기는 더욱 높아져 모든 작업반의 농장원들이 한 이삭의 강냉이라도 허실하지 않고 책임적으로 거두어들이고 말리기 위한 사업을 주인공답게 해나가고 있음.

○ 콩가을걷이를 질적으로(로동신문 10.16)

- 동신군 약수협동농장에서는 당의 콩농사 방침을 높이 받들고 애써 지은 콩을 한알도 허실없이 거두어들이기 위하여 가을걷이에 온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농장일꾼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때에 콩가을을 끝낼 목표 하에 포전에 나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콩가을걷이는 습도가 높은 오전에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아침일찍부터 농장원들은 콩가을에 열을 올리고 있음.
- 콩을 한알도 허실없이 거두어 들이기 위하여 농장원들은 가을한 콩밭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떨어진 콩꼬투리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음. 또한 노동력 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고 평가사업을 정확하게 하여 일꾼의 열의를 높이고 있음.
- 농장에서는 가을한 콩은 인차단을 묶어 세워놓았다가 제때에 실어들여 잘 말리고 있음.

4. 감자농사

- 각 협동농장에서는 수확고가 높은 우량품종의 감자종자와 기후풍토조건에 맞는 감자 종자를 마련하고 보관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고산지대 감자산지에서는 다음 해 감자 농사 차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감자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또한 대홍단식 과학농법의 하나인 복주기 방법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에도 힘쓰고 있음.

□ 감자농사 정책

- 대홍단식 과학농법의 우월성을 높이 발휘할 때(로동신문 12.21)
 - 김정일은 “현대적인 과학기술에 기초하여 감자농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적극 받아들이야 한다”고 말함.
 - 백암군에서는 감자농사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기술일꾼을 대홍단군에 보내어 야외감자종자 싹틔우기장을 만드는 방법과 그 우월성을 배워오게 하여 모든 농장에서 받아들이도록 하는 사업을 전개하였음.
 - 농장에서는 야외감자종자 싹틔우기장을 실리있게 만들어 단련된 실한 싹이 나와 감자종자가 감기에 걸리는 현상을 막았음. 또한 이를 통해 정보당 감자수확고도 높였음.
 - 군에서는 이런 성과에 기초하여 대홍단식 과학농법의 하나인 복주기 방법을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에도 힘쓰고 있음.
 - 또한 포전관리정형을 이해하고 장악한데 기초하여 농장일꾼과 포전관리원 모임을 조직하고 장점은 일반화하고 단점은 제때에 고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 대홍단군의 일꾼, 농업근로자들(민주조선 1.7)
 - 김정일은 “대홍단군의 모든 일꾼과 농업근로자는 더욱 분발하여 투쟁하여 당의 감

자농사혁명방침 관철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해야 한다”라고 말함.

- 군농업경영위원회에서는 대홍단식 과학농법을 철저히 구현해 나가기 위한 사업을 통이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또한 포전에 나간 위원회 일꾼은 농장원과 함께 천리마대고조기 시기의 정신과 투지로 감자농사에서 비약을 이룩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 위원회에서는 종자문제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고 이미 확보된 다수확품종의 감자 종자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보관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감자종자보관 관리에 대한 정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한편 관리공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또한 이미 마련되어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에 기초하여 군농기계작업소에서 트랙터 수리를 실시하고 필요한 부속품 생산을 끊임없이 늘려나가도록 하고 있음.

□ 감자농사

○ 종자문제를 중시하고(민주조선 12.3)

- 김정일은 “감자농사에서는 다수확품종을 심는 것이 기본이다”라고 말함.
- 삼수군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협동농장에서 기후풍토조건에 맞는 종자를 마련하고 잘 보관하게 하기 위한 사업을 진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일꾼들은 협동농장에 내려가 적지적작의 원칙에서 감자를 심을 밭을 다시 확정하고 지대적 특성에 맞는 품종의 종자를 짧은 기간에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도와주고 있음.
- 또한 적지와 품종이 정해지는데 따라 종자준비에 주목을 돌리고 있음. 이미 마련되어 있는 종자량과 더 마련해야 할 종자량을 면밀하게 따져보고 사업을 구체적으로 조직하고 있음.
- 모든 협동농장에서는 수확고가 높은 우량품종의 감자종자를 확보하고 잘 보관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음.

○ 다음해 감자농사차비를 빈틈없이(로동신문 12.9)

- 랑림군에서는 인민의 식량문제, 먹는문제 해결에서 감자농사가 가지는 중요성에 맞게 미리부터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거름생산을 다그치면서 흙보산 비료생산 준

비를 착실히 해나가고 있음.

- 군안의 협동농장에서는 대흥단군의 감자농사경험을 적극 따라배워 종자문제를 해결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고 있음. 특히 협동농장의 매 작업반마다 감자의 생육조건에 맞게 저장고를 잘 지어놓고 감자 종자를 확보한데 기초하여 그 보관관리를 책임적으로 하고 있음.
- 읍협동농장 제1작업반과 서중협동농장이 종자보관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군적으로 이미 많은 양의 감자종자가 마련되었음.
- 특히 인산, 갈점협동농장에서는 부림소를 이용하여 밭갈이를 힘있게 실시하여 군적으로 제일 높은 실적을 올렸음.

○ 다음해 농사차비로 들끓는다(민주조선 12.26)

- 김정일은 “감자농사에서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함.
- 고산지대 감자산지에서는 다수확품종의 종자준비에 큰 힘을 넣고 있음. 군농업경영위원회 일꾼은 아랫단위에 자주 내려가 감자종자의 보관관리정형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에 해결해주고 있음.
- 백암군에서는 감자밭의 토질조건에 맞게 지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실정에 맞게 구운흙 생산시설을 만들어놓고 여기에서 매일 여러 톤의 구운흙을 생산하여 밭에 내고 있음.
- 니탄을 많이 캐어 흙보산비료 생산에 이용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되고 있음. 군안의 여러 협동농장에서는 니탄매장량이 풍부한 동계지구에 노동력과 운반수단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생산을 늘리고 있음.

5. 축 산

- 인민의 식생활을 윤택하기 위한 풀먹는 집짐승 기르기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어 토끼기르기와 염소기르기에서 큰 성과가 이룩되었음. 집짐승 겨울나이 준비를 위하여 집짐승의 먹이를 충분히 마련하여 제반 조건을 완비시키고 있음. 또한 수의방역 사업의 일환으로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축산동향

- 집짐승 겨울나이 준비를 원만히(민주조선 11.19)
 - 덕성군의 협동농장에서는 집짐승 겨울나이 준비를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추진하고 있음.
 - 각 협동농장에서는 겨울에 길러야 할 집짐승 마리수와 우리조건, 먹이준비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짧은 기간에 그 준비를 원만히 끝내도록 조직사업도 책임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위원회에서는 집짐승 겨울나이 준비에 앞선 농장의 성과와 경험을 제때에 일반화함으로써 이 사업이 보다 활기를 띠고 진행되도록 하고 있음.
 - 월명, 직동, 신흥협동농장에서는 겨울철 집짐승 먹이마련에서 앞장서 나가고 있음. 월명협동농장에서는 염소, 돼지 등 집짐승별로 겨울철 소비해야 할 먹이량을 타산하고 때를 놓치지 않고 그 준비를 실시하고 있음.
- 집짐승기르기에서 이룩된 성과(로동신문 11.30)
 - 김정일은 “인민이 고기를 넉넉히 먹을 때까지 풀먹는 집짐승 기르기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함.
 - 당의 종자혁명방침에 맞추어 농업성에서는 우량품종의 염소마리수를 대대적으로 늘리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성과를 이룩하였음. 황해북도에서는 시, 군의 염소종

축장에 우량품종의 종자염소를 공급하여 그 마리수를 대대적으로 늘렸음.

- 황해남도 계남목장, 평양시 구빈축산전문협동농장을 비롯한 축산부문의 많은 단위에서 풀먹는 집짐승기르기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한 결과 질 좋은 젓가공품을 생산하여 인민의 식생활에 크게 기여하였음.
- 토끼기르기에서도 큰 성과가 이룩되었음. 태천토끼종축장에서는 지난해보다 새끼 토끼 생산을 늘려 많은 단위와 가정에 보내주었음. 장강토끼종축장, 연탄토끼종축장에서는 수의방역사업에 큰 힘을 넣으면서 더 많은 새끼토끼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소, 양, 개사니 등 풀먹는 집짐승을 대대적으로 기르기 위한 사업이 전국각지에서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음.

○ 각지에서 집짐승기르기에 클로렐라 적극 이용(민주조선 12.11)

- 축산부문에서 클로렐라를 집짐승 기르기에 적극 이용하고 있음.
- 도당위원회를 비롯한 강원도의 여러 단위에서는 겨울철임에도 불구하고 중단없이 클로렐라를 생산할 수 있도록 클로렐라 생산기지를 재건확장하여 그 능력을 2배 이상으로 높였음.
- 연간 150여 톤의 클로렐라 배양액을 생산한 청진염소목장에서는 클로렐라를 첨가제로한 먹이를 만들어 집짐승의 영양관리를 잘해나가고 있음.
- 사리원시, 은파군, 연산군의 협동농장과 여러 단위에서는 클로렐라 생산기지를 잘 갖춰놓고 적극 활용하여 먹이소비기준을 훨씬 낮추면서도 축산물 생산을 늘리고 있음.

□ 염소

○ 염소 턱을 보는 단위가 늘어남(로동신문 12.22)

- 김정일은 “풀을 먹고 빨리 자라는 염소를 많이 길러 인민이 젓과 젓가공제품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함.
- 황해북도의 축산기지에서는 우량품종의 염소를 대대적으로 기르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져 짧은 기간에 젓 생산량을 크게 늘렸음.

- 평안북도의 축산기지에서는 튼튼한 축산 토대에 기초하여 생산을 정상화함으로써 버터와 요구르트 등 젓가공품을 도 안의 인민에게 보내주었으며, 함경남도의 염소 목장에서는 염소기르기와 젓생산조건을 더욱 개선시켜 마리수와 젓가공 생산을 늘렸음.
- 평양시 구빈축산전문협동농장, 황해남도 계남목장을 비롯하여 수많은 축산기지에서도 풀판조성과 수의방역사업에 힘을 넣어 이전보다 젓생산과 젓가공품 생산을 더 늘리는 성과를 이룩하였음.

□ 토끼

○ 토끼기르기를 일관하게 내밀어(민주조선 10.18)

- 김정일은 “토끼기르는 운동을 널리 벌려야 한다”고 말함.
- 구성시 량정사업소에서는 풀만 있으면 어디서나 기를 수 있고 실리가 있는 토끼기르기를 추진하여 지난해에만도 3,000여 마리의 토끼를 길러 4,800kg의 고기를 생산하였음.
- 처음부터 토끼기르기가 쉽게 된 것은 아님. 일꾼들이 다른 단위에 가서 선진 경험을 배워오고 참고서를 독파하고, 주변야산에 여러 정보의 풀판을 조성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토끼 마리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고기생산량도 늘어남.

○ 토끼기르기에 큰 힘을(민주조선 10.29)

- 숙천군에서는 군농업경영위원회 산하 종축장의 일꾼과 종업원들이 종자토끼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기울이고 있음.
- 토끼의 생리학적 특성에 맞게 굴형식 토끼우리를 건설하고 그 관리운영사업을 잘 해나가고 있음. 이들은 자체의 힘으로 토끼먹이 생산에 절실히 필요한 성형기를 훌륭하게 만들어 그 이용률을 높이고 있음.
- 군에서는 토끼기르기를 잘하고 있는 기관, 기업소와 가정에서 거둔 성과와 경험을 적극 소개선전하여 누구나 이 모범을 본받아 더 많은 토끼를 기르도록 하고 있음.

○ 토끼기르기를 군중적으로 더욱 힘있게(민주조선 11.16)

- 태천 청년토끼종축장에서는 우량품종 육종체계를 바로 세우는 한편 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새끼토끼 생산을 늘리기 위한 사업을 면밀히 추진하고 있음.

- 또한 관리공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음. 기술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이 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음.
- 종자토끼의 고르기과 무리구성, 생리적 특성 등 토끼기르기에 있어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를 직판물과 기술강습을 통해 알기쉽게 해설해주고 있음. 또한 토끼사양관리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관리공의 경험을 소개하여 일반화하고 있음.
- 수의방역에서도 큰 힘을 넣고 있음. 자체의 실정에 맞게 토끼우리에 대한 소독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하는 한편 예방접종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 한 마리의 토끼도 병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음.

○ 토끼기르기를 끈기있게 내밀어(민주조선 11.23)

- 문덕군 립석협동농장에서는 토끼종축기지를 꾸려놓고 100여마리의 우량품종 어미 토끼를 기르면서 새끼토끼 생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농장에서는 토끼기르기에 좋은 우리를 규모가 크게 지어 놓고 예방약 기지도 자체로 훌륭히 꾸리고 있음.
- 농장일꾼은 이에 그치지 않고 토끼를 과학기술적으로 길러내기 위한데 모를 박고 관리공에게 토끼기르기 상식자료를 알려주면서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고 있음. 또한 토끼기르기에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고 있음.
- 농장에서는 토끼기르기에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제때에 소개선전하여 농장원 세대에서 토끼기르기에 더 큰 의욕을 가지고 나서도록 하고 있음.

○ 각지 농촌에서 토끼기르기 활발(로동신문 12.2)

- 각 도에서는 종자토끼공급 체계를 바로세워 우량품종의 새끼토끼를 여러 단위에 보내주고 있으며 그 결과 시, 군협동농장과 농촌세대에서 토끼 평균마리수가 훨씬 많아졌음.
- 각 농촌에서는 올해 들어와 현재까지 종자토끼와 비육토끼, 새끼토끼마리수를 지난해 동기간에 비해 115% 늘렸음.
- 많은 시, 군에서는 종축기지를 현대화하는 등 토끼생산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수의방역사업을 강화하여 실적을 올리고 있음.
- 동신군, 위원군, 초산군 내 협동농장에서도 계절에 따르는 먹이보장대책을 세우면서 종자토끼를 많이 받아내고 있음.

- 황해북도와 황해남도 내 농촌에서는 모범적인 가정의 토끼기르기 경험을 널리 일 반화하고 기술지도 등을 추진하여 평균 40마리 이상 기르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음.

○ 늘어난 우량품종 토끼(로동신문 12.22)

- 김정일은 “토끼는 기르기도 쉽고 원가도 적게 들며 수익성이 대단히 높은 집짐승 이다”라고 말함.
- 각지 토끼종축장에서는 우량품종의 종자토끼 생산 목표를 높이 세우고 앞선 새끼 토끼 생산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음.
- 그리하여 각지 토끼종축장에서는 종축생산체계를 과학기술적 요구대로 세워 놓고 빨리 자라면서도 많은 고기와 털, 가죽을 생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품종의 토끼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태천토끼 종축장에서는 토끼를 과학기술적으로 기르기 위해 기술학습을 정상적으 로 조직하여 우량품종의 새끼토끼를 많이 생산하였음. 또한 토끼먹이를 자체의 힘 으로 해결하기 위해 풀판을 조성해 놓고 영양가 높은 먹이를 생산보장하면서 연간 어미 토끼 마리당 새끼낳이 횟수를 늘렸음.
- 각지 토끼종축장의 일꾼, 근로자는 금년에 이룩한 성과에 자만함 없이 다음해에 더 많은 우량품종의 토끼를 생산할 목표밑에 겨울철 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 가고 있음.

6. 농업기반

- 곡산간선 흙물길 공사가 마감단계에 들어섰으며, 평암저수지의 자연흐름식 물길공사와 구월산의 자연흐름식 수도화 공사 또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 가을철 국토관리 사업을 통해 각 지역의 도로건설 및 정리, 강하천 정리 사업, 나무심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또한 농사에 물을 제대로 대주기 위한 저수지 건설이 실시되고 있음.

□ 물길공사

○ 물길건설 마감단계에서 추진(로동신문 12.3)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물길 건설자들은 곡산간선 흙물길공사를 완전히 끝낸데 이어 수백만㎡의 흙을 처리하고 방대한 암반굴착작업과 콘크리트치기를 진행하여 물길건설을 마감단계에서 힘 있게 추진하고 있음. 또한 수백개의 구조물 공사를 끝내고 물길굴 뚫기를 진행하는 높은 성과를 이룩하였음.
- 물길건설자들은 이 기세로 하루빨리 물길건설을 완공하여 다음해 미루벌농사를 안전하게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지막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지휘부에서는 단계별 목표를 바로 정하고 역량을 집중하여 물길건설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음.

○ 자연흐름식 물길공사 마감단계(민주조선 12.6)

- 평암저수지, 총연장길이가 수십리에 달하는 물길굴, 수백개의 구조물 공사가 이미 끝났거나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음. 또한 수백리 구간에서 방대한 양의 성토작업이 진행되어 대운하를 방불케하는 흙물길이 기본적으로 완성되었음.
- 물길공사가 마감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해당단위, 물길건설자들은 기세충천하여 물길완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평암저수지공사를 맡은 평양시려단 건설자는 방대한 언제성토공사를 끝낸 기세를

늦춤없이 계속 일을 추진하여 돌채취와 언제경사면 장식 입히기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자연흐름식 수도화 공사 적극 추진(민주조선 12.10)

- 은천군 인민위원회에서는 자연흐름식 수도화 공사를 힘있게 추진하고 있음. 이 공사는 구월산 기슭에서 군소재지까지 흐름식으로 물을 끌어들이어 읍지구 주민의 먹는 물 문제를 원만히 풀기 위한 것임.
- 이 공사가 완공되면 전기를 전혀 쓰지 않고 읍지구는 물론 그 주변 가까운 농장마을까지 구월산의 맑은 물을 집집마다에서 볼 수 있게 됨.
- 그러나 이는 필요한 구조물 건설과 수십리 구간에 상수도관을 묻어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작업임. 위원회에서는 능력있는 일꾼, 청년을 바탕으로 조를 조직하여 성과를 올리고 있음.

□ 국토관리사업

○ 가을철 국토관리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다(로동신문 10.17)

- 김정일은 “국토관리사업은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보람찬 사업이다”라고 말함.
- 황해남도 도당위원회의 지도하에 황해남도에서는 이번 가을철 국토관리 총동원 기간에 신광천을 번듯하게 정리할 목표를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 공사는 수십만㎡의 흙을 처리하고 1만 5천여㎡의 장석을 입혀야 하는 등 많은 손이 드는 방대한 공사임. 신광천이 정리되면 천수백정보의 농경지를 더 잘 보호할 수 있게 되며 많은 부침땅을 얻어내게 됨.
- 해주항을 비롯한 기관, 기업소에서는 기계수단을 신광천 정리작업에 동원하여 강바닥을 파내고 제방을 정리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정비하고 있음. 설계, 시공을 맡은 국토관리부문의 일꾼들은 1m의 제방을 정리하고 1㎡의 장석을 입혀도 먼 훗날에 손색이 없도록 기술 지도를 실시하고 있음.

○ 미루벌 토지정리 계속 힘 있게 추진(로동신문 10.21)

- 김정일은 “토지정리는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이며 만년대계의 애국위업이다”라고 말함.

- 이미 수백만㎡의 토량을 처리하고 1,700여 정보의 토지를 정리한 황해북도려단이 가을철 토지정리 시작부터 기세를 올리고 있음.
- 미루별토지정리를 하면 수천정보의 밭이 논으로 전환되어 논농사를 대대적으로 할 수 있게 되며 패기논이 기계화포전으로 변모되어 기계농사를 맡껏 지을 수 있게 됨.

○ 국토의 면모를 보다 훌륭히(민주조선 10.21)

- 함경북도에서는 현재 도로건설과 도로기술개조가 힘 있게 벌어져 도안의 수많은 도로들이 새로 건설되거나 개조되어 견고성과 안정성이 담보되고 있음.
- 강하천 정리사업 또한 성과를 이룩하여 토지의 유실을 없애고 큰물피해로부터 많은 농경지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음.
- 산림부문에서도 많은 나무종자를 거두어들이고 다음해에 심을 나무모 준비도 빈틈 없이 해나가고 있음.
- 함경북도 인민위원회에서는 해당 부문 일꾼들로 하여금 가을철 국토관리 총동원지휘부를 조직하여 이 기간에 해야할 단계별 목표를 세운데 기초하여 그때그때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에 풀어나가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음.

○ 가을철 국토관리사업을 균중적으로 힘 있게 전개(로동신문 10.26)

- 김정일은 “국토관리사업을 잘해야 내나라, 내조국을 부강하게 만들고 인민들에게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줄 수 있다”고 말함.
- 혜산시 시당위원회의 지도 밑에 시국토환경보호관리부에서는 산림, 도로, 강하천을 비롯한 국토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추진하고 있음.
- 시에서는 역량을 집중하여 혜산-보천 사이 강안도로의 곡선펴기, 구배낮추기, 물도랑보수, 옹벽쌓기 등을 힘 있게 내밀어 도로의 문화성과 안정성이 더 잘 보장되게 하고 있음. 도로공사 과정에서 여러 곳에 다리가 건설되어 주민들의 교통상 편리를 도모하게 되었음.
- 시에서는 여러 곳에 하천제방 쌓기와 강바닥파기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하부구조건설 및 보수공사도 활발히 실시하고 있음.

○ 가을철 국토관리 총동원사업 활발히 전개(민주조선 10.28)

- 자강도에서는 도로건설과 개건, 하천정리 등 올해 가을철 국토관리 총동원기간의 계획을 기본적으로 완수하는 모범을 보이고 있음.
- 평양시에서는 락랑구역의 근로자들이 짧은 기간에 2km의 남사천제방 보수공사를 완성하였으며 시적인 역량이 동원되어 봉화거리 개건공사를 비롯한 거리와 마을을 새로 꾸리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음.
- 평안남도에서는 내부예비를 동원하여 10여리의 평성시 중심도로를 번듯하게 포장하여 도소재지를 보다 환하게 꾸리고 40여리 구간의 도로를 높은 수준에서 개건하였으며 철산군을 비롯한 평안북도의 여러 시, 군에서도 이 사업에 힘을 넣고 있음.
- 이번 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도적인 대상에 역량을 집중한 함경북도에서는 많은 도로의 노반공사를 진행하여 강원도 안의 시, 군에서도 도로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있음. 황해남도에서는 해주시와 벽성군 사이로 흐르는 신광천을 정리할 목표를 세우고 각 기관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국토관리사업을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으로 여기고(민주조선 11.11)

- 김정일은 “나무심기와 강하천정리, 도로정리를 비롯한 국토관리사업을 정상적으로 하면서 해마다 봄과 가을나무심기철을 계기로 총동원기간을 정해놓고 전당, 전민, 전군이 동원되어 집중적으로 하면 많은 문제를 풀수 있다”고 말함.
- 당조직의 지도 밑에 해산시에서는 가을철 국토관리 총동원기간에 수행해야 할 사업목표를 대상별로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산림조성사업을 위한 나무종자채취와 나무모발 조성, 나무모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음. 검산지구에서는 10정보의 나무모발을 꾸리고 그 관리사업을 추진하여 17만여 그루의 키 큰 나무를 생산하는 성과를 이룩하였음.
- 도로건설과 보수정비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었음. 20여km에 달하는 새 도로 건설을 추진하였으며 1개의 다리와 65개의 도로 표식기, 100여 개소에 대한 콘크리트 위험 방지석 설치작업을 진행하여 교통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되었음.
- 강하천건설과 정리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가 이룩되었음. 100여m에 달하는 성후천제방건설과 시안의 18km 구간의 강하천에서 바닥파기, 석축대 보수를 성과적으로 보수하였음. 이와 더불어 6개의 중소하천에 2000m³의 강바닥을 파내고 2000m³의 석축 쌓기 및 대보수를 진행하였음.
- 시안의 도시경영사업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됨. 해산동, 신흥동, 혜흥동, 혜신동

등 6개 지구에서 근 15km에 달하는 하수망을 새롭게 건설하고 연봉동-혜산동, 위연동-연풍동 사이의 14km 구간의 우수망을 대보수하여 물이 빠질 수 있게 하였음. 더불어 100여개의 우수망 뚜껑을 생산하여 도로의 문화성과 안전성을 보장함.

○ 하천정리에 큰 힘을(민주조선 11.21)

- 김정일은 “강하천관리사업을 잘하는 것은 국토관리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 중 하나이다”라고 말함.
- 은률군에서는 심은 나무에 대한 가꾸기와 수십km의 토사도로에 대한 수만m³의 잔자갈 깔기, 전반적인 도로시설물에 대한 보수와 설치작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여 국토의 면모가 더욱 일신되었음.
- 은률군 인민위원회에서는 첫단계로 정한 가을철 국토관리 사업이 성과적으로 결속된데 맞게 다음단계의 대상인 4개의 하천에 대한 정리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위원회에서는 송림천과 사동천을 비롯한 여러 개의 하천에 대한 정리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맞게 일꾼 한명당 한개 대상씩 맡아 현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작업량에 따라 노동력과 운수수단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공사속도를 계속 높여나가도록 하고 있음.

○ 미루벌 물길공사 적극 추진(로동신문 11.24)

- 김정일은 “황해북도의 물길공사를 해야 미루벌의 긴장한 물문제를 완전히 풀수 있다”고 말함.
- 물길공사중앙지휘부에서는 지난 3년간 어렵고 불리한 조건을 이겨내고 물길공사를 제기일 내에 무조건 끝내기 위해 온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여러 개의 물길굴과 취입굴 공사를 맡은 함경북도, 함경남도, 황해남도, 평안남도려단에서는 굴뚝기 및 콘크리트 타입공사를 올해 안에 끝내기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음.
- 미루벌 물길에서 중요한 저수지 언제공사를 맡은 황해관개건설려단은 공사속도를 부단히 높여나가고 있음.

○ 3천 정보의 토지를 정리할 목포로(로동신문 11.24)

- 라선시에서 토지정리가 전격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2천 정보

의 토지정리목표를 내세운 시안의 일꾼들은 이미 287만여㎡의 토량을 처리하고 연 100여리의 물길, 여러 개의 양수장, 수십개소의 구조물을 건설하여 2천5백여 정보의 땅을 전변시켰음.

- 라선시 시농업경영위원회에서는 식량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하여 3천정보의 갈밭, 습지대 등을 옥토로 정리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이룩한 성과에 만족함 없이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음.
- 시토지 및 강하천 건설사업소에서는 수십대의 불도저를 이용하여 와새풀밭을 밀어내고 있으며, 물길과 포전도로가 뻗어나가도록 하고 있음.

○ 도로건설과 관리를 최상의 수준에서(로동신문 12.25)

- 김정일은 “도로는 그 지역 사람의 문명 정도를 반영한다”고 말함.
- 원산-천내도로가 훌륭히 변모되어 보는 사람마다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음. 그 뿐 아니라 도로의 구간마다 이정표와 안내 표지판이 세워져 있어 더욱 효율적임.
- 도로의 다리도 확장 또는 보수되고 곳곳에 위험방지시설도 훌륭하게 세워져 있음. 또한 도로주변도 문화성 있게 잘 정리되어 이 일대의 면모가 일신되었음.

○ 집단적 혁신의 불길을 높이(민주조선 12.26)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12월 20일 현재 여러 저수지 언제성토와 취수구조물, 무덤이 공사가 끝났거나 마감단계에 이르고 많은 물길굴과 수백개의 각종 구조물이 완공되었으며 대운하를 방불케 하는 수백리의 흙물길이 기본적으로 형성된 것을 비롯하여 물길 공사가 작업양적으로 85% 계선을 훨씬 넘었음.
- 물길공사 중앙지휘부에서는 새해정초부터 목표를 높이 새우고 대담하게 미루벌 자연흐름식 물길공사를 할 것을 다짐했음. 이를 위해 지도부에서는 해당 단위와의 긴밀한 연계 하에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설비와 자재보장, 전기공급대책을 기동적으로 수립하였음.
- 저수지공사를 맡은 평양시려단, 황해관개건설려단의 건설자들은 언제성토와 취수구조물공사, 언제경사면 장식입히기와 잔디입히기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고 있음.
- 황해남도려단, 함경남도려단을 비롯한 다른 물길굴뚝기 단위에서도 굴진설비의 가동률과 이용률을 높여 굴진과 확장, 굴벽면 실적을 높이고 있음.

□ 저수지

○ 자체로 저수지를 건설한다(로동신문 10.23)

- 김정일은 “농사에 물을 제대로 대주기 위한 대책을 잘 세워야 한다”고 말함.
- 경원군에서 새로 건설하는 저수지는 수십만㎡의 흙을 운반하여 언제를 쌓고 여수로, 취수구, 취수탑 건설을 비롯한 방대한 공사를 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임. 이 저수지가 완성되면 군안의 여러 지구에서 논면적을 늘려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 수 있게 됨. 또한 10여개의 양수장이 없어져 많은 전기를 절약할 수 있게 됨.
- 군에서는 단계별 목표를 정확히 세우고 건설을 빠른 기간에 끝내기 위한 조직사업에 힘을 넣고 있음. 일꾼들은 건설현장에 수시로 나가 제기되는 문제를 즉시에 풀어주고 있음.
- 저수지 건설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군안의 인민들도 건설장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고 있음.

○ 20여개의 저수지에 물을 채운다(로동신문 12.13)

- 김정일은 “개천-태성호 물길관리와 대동강 물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말함.
- 개천-태성호 물길관리소에서는 먼저 물을 채워야 할 저수지를 바로 정한데 기초하여 각지 지구관개관리소 일꾼과 긴밀한 연계를 맺으면서 물관리를 과학적으로 하는데 힘을 넣고 있음.
- 이와 함께 저수지의 능력과 구조물의 상태에 맞게 물량과 속도를 조절하여 한방울의 물도 허실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지금 개천-태성 물길관리소 일꾼, 종업원들은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물길관리지휘체계를 더욱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수리화의 위력을 떨치고 있음.

○ 각지 농촌과 물길관리소에서(로동신문 1.12)

- 김정일은 “물이 빨리 차지 못한 저수지에는 빨리 물을 채워 넣고 관수시설도 제때에 수리정비해 놓아야 한다”고 말함.
- 자료에 의하면 각지 농업부문 일꾼과 근로자는 지난해 말 1만여 km의 물길을 가서

내고 여러 대상의 구조물을 보수한 기세로 정초부터 물길가시기와 구조물 보수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 평양시, 황해남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북도에서 물길가시기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 있음.
- 각지 농촌과 물길관리소에서는 아직은 부족한 것이 많고 어려운 조건이지만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수백개소의 물길구조물에 대한 보수공사를 제때 끝낼 목표를 세우고 추위를 이겨내며 공사를 힘 있게 추진하고 있음.
- 각지 농촌경리부문 일꾼은 현지에 나가 보수해야 할 구조물에 대하여 빠짐없이 이해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주면서 공사를 제 기일에 끝내도록 하고 있음.

7. 산 림

- 수림화, 원림화를 위한 산림조성사업과 산림 보호 관리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각 군에서는 더 많은 나무모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나무모밭의 지력 향상, 종자 마련 사업 또한 진행되고 있음. 겨울철 통나무 생산을 위해 모든 노동력과 설비를 통나무 생산에 집중시키고 있음. 또한 산불방지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 있음.

□ 산림조성

- 수림화, 원림화의 본보기로(로동신문 11.14)
 - 도시경영성, 평양시, 만경대구역에서는 광복거리를 전국의 도시수림화, 원림화의 본보기로 꾸리기 위한 준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리하여 이미 이를 위한 총설계가 작성되었으며 올해 가을철 국토관리 총동원 기간부터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들어가게 됨.
 - 바늘잎나무와 넓은잎나무, 떨기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나무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일대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광복거리는 수림속에 잠기게 되어 주민 1인당 차지하는 녹지면적은 수십㎡에 달하게 됨.
 - 나무모 확보사업을 힘 있게 벌리고 있는 구역일꾼들은 여러차례의 현지답사를 통해 종전에 5정보 밖에 안되던 원림 양묘장을 배로 늘리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 있음.
 - 구역에서는 구덩이파기, 나무모뜨기, 운반, 나무심기와 지대정리 등을 빠른 시일안에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면밀한 사업 구상 아래 실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을 통 크게(민주조선 12.17)
 - 김정일은 “산림은 나라의 귀중한 자원이며 조국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중요한 밑천이다”라고 말함.

- 화평군 인민군위원회에서는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지난 몇 달 사이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음. 특히 오가산 자연보호구에 더 많은 산림을 조성하고 보호관리하기 위한 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음.
- 오가산 자연보호구에 더 많은 산림을 조성하기 위해 위원회에서는 양묘장을 새로 꾸리기 위한 사업도 실시하고 있음. 그 결과 양묘장 부지가 짧은 기간에 정리되고 내년부터 나무모 생산을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음.
- 오가산 기슭에 수목원을 새로 꾸리기 위한 사업 또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 위원회에서 가을철 국토관리 총동원기간에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한 결과 수목원 구역 안에 당장이라도 수천 그루의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준비가 빈틈없이 갖추어지게 됨.

□ 나무모

○ 나무모 생산을 앞세워(로동신문 10.17)

- 김정일은 “시, 군마다 양묘장을 잘 꾸리고 나무모를 계단식으로 많이 키워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는데 필요한 나무모를 원만히 보장해야 한다”고 말함.
- 온성군 군당위원회의 지도하에 군에서는 국토건설 구성을 실현할 높은 목표 하에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대대적으로 생산하고 있음.
- 군에서는 더 많은 나무모를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부문에서만 아니라 군안의 모든 공장, 기업소에서 나무모밭을 실정에 맞게 꾸리고 있음. 관개관리소, 량정사업소 등 많은 기관, 기업소에서는 빈땅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무모밭으로 만들고 여러 종류의 나무모를 심어 정성스럽게 가꾸고 있음.
- 군공업림경영소에서는 이미 마련해 놓은 수백정보의 창성이깔나무, 잣나무채종림에서 해마다 많은 종자를 해결하여 나무모생산을 늘려나가고 있음. 나무모밭 관리공들은 나무모밭 생산에 여러 가지 앞선 기술을 받아들이고 김매기, 비료주기를 과학적으로 하여 사름률을 높이고 있음.
- 군에서는 여러 지구에 본보기 단위를 꾸리고 이를 일반화하여 모든 산에 수종이 좋은 나무를 심어 산림을 개조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다음해 나무모 생산준비 활발(로동신문 11.13)

- 김정일은 “나무모 생산을 앞세우는 것은 산림을 전망성 있게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라고 말함.
-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 할 목표 아래 전국 각지의 일꾼들은 다음해 나무모 생산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음. 최근 수백 톤의 수종이 좋은 여러 가지 나무종자를 마련한데 이어 거름생산과 나무모밭 정리, 소석회생산, 나무모 저장 등 다음해 나무모 생산준비를 다그치고 있음.
- 강원도 도국토환경보호관리국에서는 다음해 나무모 생산준비와 관련한 보여주기 사업을 천내군에서 조직하였음. 보여주기 사업에서는 소석회를 생산할 때 나오는 열을 이용하여 흙보산비료와 구운흙까지 생산하게 설계한 로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음.
- 국토환경보호관리부문에서는 나무모밭의 지력을 더욱 높여 다음해 나무모 생산준비를 미리부터 실속 있게 하도록 하고 있음. 고성군에서는 다음해 나무모 생산준비를 예견성 있게 잘하고 있음.
- 함경남도에서는 종자를 넉넉히 마련한데 이어 보관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있음. 요덕, 정평, 리원군 일꾼들은 수종이 좋은 여러 가지 나무종자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나무모 기르기를 과학기술적으로(민주조선 12.10)

- 김정일은 “임산사업소와 산림보호지역별로 순환구역과 보호구 중심지대에 나무모밭을 꾸리고 지력을 높이며 나무모 기르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실하고 튼튼한 나무모를 많이 키워내야 한다”고 말함.
- 양강도 산림관리처에서는 일꾼을 현지에 내려보내 나무심을 면적과 지대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조림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필요한 나무모 생산을 전망성 있게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이미 꾸려놓은 양묘장과 현재 건설 중에 있는 양묘장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빨리 자라며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계획적으로 키워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음.
- 그리하여 도안의 시, 군에 꾸려진 수백정보에 달하는 크고 작은 양묘장에서는 나무모 기르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실하고 튼튼한 나무모를 많이 키워내고 있음.
- 백암군 산림경영소 천수조림작업소에서는 16정보나 되는 모체양묘장을 꾸려놓고

지대적 특성과 기후풍토에 맞는 이깔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대대적으로 키워내고 있음.

□ 통나무생산

○ 겨울철 통나무생산 준비를 활발히(민주조선 10.22)

- 김정일은 “임업부문에서는 겨울철 통나무생산에 위한 임지를 잘 정하고 미리부터 생산준비를 실속 있게 하며 겨울철에 모든 노동력과 설비를 통나무생산에 집중시켜야 한다”고 말함.
- 함경북도 임업관리국에서는 당면한 겨울철 통나무생산준비에 역량을 집중하여 나날이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산하 임산사업소에 나간 관리국 일꾼들은 현지를 일일이 밟으며 겨울철 통나무 생산임지를 바로 정하고 기계, 기재의 정비보수를 다그치고 있음.
- 동연작업소에서는 작업소의 모든 노동력과 기계수단을 총동원하여 짧은 기간에 3.5km에 달하는 구간에서 자동차, 트랙터길을 보수, 정비하는 성과를 거둠. 한편 임산사업소에서는 연유가 부족한 조건에 맞게 부림소를 적극 이용하여 통나무를 운반할 계획하에 부림소 관리에 힘을 넣고 있음.
- 연산작업소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1.8km의 구간의 산지도로닥기를 완전히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음. 또한 룡신작업소에서도 김해골의 2.5km의 구간의 산지도로닥기에 온 작업소가 달라붙어 계획된 날짜보다 훨씬 앞당겨 끝냈음.

○ 겨울철 통나무 생산 준비 적극 추진(로동신문 10.23)

- 김정일은 “통나무생산을 끊임없이 늘려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필요한 목재를 원만히 보장하는 것은 임업부문 앞에 제기된 기본 과업이다”라고 말함.
- 자강도 안의 임산, 갯목생산사업소의 산판마다에서는 겨울철 통나무 생산을 위한 자동차, 트랙터, 소발구 길닥기와 산지합숙건설이 추진되고 있음.
- 관리국에서는 당조직의 지도 밑에 이번 겨울철에 더 많은 통나무를 생산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 준비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강계임산사업소와 위원임산사업소의 일꾼, 통나무 생산자는 자체의 힘을 믿고 일어나 생산준비건설을 제일먼저 끝내었음.

- 랑림임산사업소, 동신갱목생산 사업소에서는 준비건설을 다그치는 한편 물동보수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 있음. 또한 산지에서 일하는 통나무생산자가 겨울철 기간 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산지합숙을 잘 꾸려놓고 공급할 후방물자를 착실히 준비해놓고 있음.

○ 마지막 단계에서 힘 있게(민주조선 10.26)

- 김정일은 “임업부문에서는 겨울철 통나무생산을 위한 임지를 잘 정하고 미리부터 생산준비를 실속 있게 하며 겨울철에 모든 노동력과 설비를 통나무 생산에 집중시켜야 한다”고 말함.
- 자강도 임업관리국에서는 겨울철 통나무 생산준비를 잘하는 것을 당의 임업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여기고 여기에 역량을 집중하여 실속 있게 추진하고 있음.
- 관리국에서는 일꾼을 아래에 내려보내어 당면한 생산을 힘 있게 추동하는 한편 겨울철 통나무 생산준비에 역량을 집중하여 빠른 기간 안에 성과적으로 결속하도록 지도사업을 강화하고 있음.
- 랑림군, 동신군, 위원군, 화평군, 룡림군 등에서는 험한 순환구역과 채벌구에 나가 제기되는 문제를 앞장서 풀어주면서 겨울철 통나무 생산준비를 착실하게 해나가고 있음.

○ 겨울철 통나무생산을 다그치자(민주조선 11.11)

- 김정일은 “통나무 생산을 늘리는데서 겨울철 통나무 생산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함.
- 이 사업에서 중요한 문제는 노동력을 겨울철 통나무 생산에 집중시키는 것임. 노동력을 집중하지 않으면 겨울철 통나무 생산을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없고 생산과제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음.
- 임산사업소와 갱목생산사업소에서는 보조부문의 노동력과 비생산부문의 노동력을 동원하는 것을 비롯하여 노동력예비를 적극 찾아내어 더 많은 노동력을 겨울철 통나무 생산에 돌려야 함.

○ 통나무생산에서 연일 혁신(민주조선 11.13)

- 김정일은 “통나무 생산을 끊임없이 늘려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필요한 목재를 원만

히 보장하는 것은 임업부문에 제기되는 기본 과제다”라고 말함.

- 화평 임산사업소에서는 이번 겨울철 통나무 생산기간에 연간 통나무 생산계획의 80% 이상을 달성할 계획 밑에 임지를 바로 정하고 생산준비를 실속있게 한데 기초 하여 모든 노동력과 설비를 집중시키고 있음.
- 사업소의 일꾼들은 작업소를 맡고 나가 채벌장마다에서 화선식 정치사업을 벌리고 있음. 특히 “나를 따라 앞으로!”란 구호 하에 통나무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음.
- 황수작업소에서는 나무베기를 적극 앞세우면서 통쏘이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산 지토장에 통나무를 산더미처럼 쌓아가고 있음. 남소작업소에서는 나무베기와 아지 따기, 나무모으기, 사이나르기 등 통나무 생산의 모든 공정에서 상호 연계를 강화 하여 통나무 생산을 계획마다 매일 2배 이상 초과달성하고 있음.

○ 통나무 생산에서 혁신(로동신문 11.23)

- 량강도 도당위원회의 지도하에 도에서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더 많은 통나무를 보내주기 위한 목표를 현실성 있게 세우고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임업부문의 일꾼들은 현지에서 순환구역과 채벌구역을 빠짐없이 밟아보며 걸린 문제를 앞장서서 적극 풀어주고 있음.
- 상창림산사업소에서는 여러 난관을 뚫고 나무베기와 나무모으기 등 모든 공정별 작업을 힘 있게 추진하고 있음. 또한 통나무베기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룬전기재의 수리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베어낸 통나무를 산지토장까지 운반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백암갱목생산사업소에서는 베어낸 통나무 수송에서 임철기관차의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에 맞게 주행장치 등을 새롭게 개조하여 그 이용률을 훨씬 높이고 있음. 또한 임철길을 새로 보수하고 통쏘이 길을 잘 닦아놓고 있음.

○ 겨울철 통나무생산을 더욱 힘 있게(민주조선 11.28)

- 량강도임업관리국에서는 당의 순환식채벌방침의 요구에 맞게 30여 개의 새 임지를 정하고 120여개의 채벌구역에서 겨울철 통나무 생산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그리하여 겨울철 통나무생산에 들어가기 전 관리국적으로 150여km의 임철길과 자

동차길, 트랙터길, 소밭구길을 새로 닦고 50여 동의 산지합숙과 휴게실, 트랙터 보온고 그리고 70여개의 토장을 건설하였음. 이와 함께 80여개의 통나무 생산작업반을 새로 더 조직하여 생산역량을 보강하였음.

- 이러한 면밀한 준비 밑에 관리국에서는 산하임산사업소와 갯목생산사업소에서 겨울철 통나무생산에 일제히 들어가 첫 시작부터 기세를 올리고 있음.
- 유평임산사업소와 연암임산사업소가 통나무생산에서 앞장서고 있음. 유평임산사업소는 10월말까지 필요한 생산준비를 말끔히 끝낸 기세로 첫 시작부터 통나무 생산을 힘 있게 추진하고 있음.
- 갑산임산사업소에서는 생산전망이 좋은 새 임지에 역량을 집중하여 나무베기를 앞세우고 트랙터, 자동차에 의한 나무나르기에 힘을 넣어 날마다 통나무 생산계획을 1.2배 이상씩 해나가고 있음.

○ 겨울철 통나무 생산을 늘린다(로동신문 11.30)

- 각지 임산사업소, 갯목생산사업소에서 겨울철 통나무생산이 힘 있게 실시되고 있음.
- 각 도입업관리국 일꾼들은 현지에 나가 길닥기와 임철지선, 토장건설 등을 빈틈없이 하고 생산에 들어서도록 조직사업도 추진하고 있음.
- 자강도임업관리국 내 임산사업소, 갯목생산사업소에서는 설비의 가동률을 높이고 능률적인 사이나르기 방법을 받아들이면서 시작부터 기세 좋게 전진하고 있음.
- 겨울철 생산준비를 잘한 평안남도, 함경남도, 평안북도 내 임산사업소, 갯목생산사업소에서도 역량을 집중하고 생산조직과 지휘를 실정에 맞게 하면서 성과를 확대해나가고 있음.
- 덕천, 양덕갯목생산사업소, 장진, 도안, 대판, 구장임산사업소에서는 산판조건에 맞게 삭도, 통쏘이를 배합하면서 대용연료에 의한 운전기재의 가동률을 높여 매일 계획을 1.3배 이상 넘쳐 수행하고 있음.

○ 통나무 생산 힘 있게 추진(민주조선 12.9)

- 각지 임산사업소, 갯목생산사업소에서는 겨울철 통나무 생산이 힘있게 추진되고 있음.
- 자강도임업관리국 내 임산사업소, 갯목생산사업소에서는 설비의 가동률을 높이고

능률적인 사이나르기 방법을 받아들이면서 시작부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 강계, 고인, 랑림, 룡림 임산사업소에서는 나무베기를 적극 앞세우고 자동차와 트랙터, 소발구를 비롯한 운반수단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통나무생산에서 연일 혁신을 일으키고 있음.
- 겨울철 생산준비를 잘한 평안남도, 함경남도, 평안북도 내 임산사업소, 갯목생산사업소에서도 역량을 집중하고 생산조직과 지휘를 실정에 맞게 하면서 성과를 확대하고 있음.
- 덕천, 양덕 갯목생산사업소, 장진, 도안, 대관, 구장임산사업소에서는 산판조건에 맞게 삭도, 통쏘이를 배합하면서 대용연료에 의한 윤전기재의 가동률을 높여 매일 계획을 1.3배 이상 넘쳐 수행하고 있음.

□ 산불방지

○ 산불방지사업을 실속 있게(민주조선 10.21)

- 김정일은 “산불감시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산불을 철저히 감시하며 산불막이선을 만들어 산불이 일어나도 더 퍼지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함.
- 리원군 산림경영소에서는 산불방지기간을 계기로 산불을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나가고 있음. 또한 이를 통해 감시원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고 있음.
- 산불감시에 유리한 군안의 제일 높은 산봉우리에 고정감시초소를 만들고 통신 및 신변기재를 이용한 신호전달체계를 면밀히 세워 초소간의 협동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이와 함께 산불감시원을 위한 강습을 조직하고 지난 시기 산불방지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잘 알려주어 이들이 높은 자각을 가지고 사업을 수해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산림경영소에서는 군중 속에 들어가 산림보호가 산림조성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며 주민들이 산불방지사업에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도록 노력하고 있음.

○ 산불막이 대책을 철저히(민주조선 11.14)

- 덕천시 인민위원회에서 산불을 비롯한 자연재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성과를 올리고 있음.

- 우선 가을철 약초채취와 겨울나이 준비로 산에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 수 있는 조건에서 산불막이와 관련한 군중 교양사업을 강화하고 있음.
- 시의 산림경영소에서는 주민들이 산으로 들어가는 규정을 바로 지키도록 하는데서 산림감독원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게 하고 있음.

8. 기타 작물

- 각 협동농장에서는 가을 남새 비배관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실속 있게 하고 있음. 가을철 과수원 관리를 통한 과일 생산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키낮은 사과나 무모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우량품종의 과일나무도 생산을 실시하여 많은 양의 과일나 무모를 생산하고 있음.

□ 남새

- 가을남새 비배관리를 알심있게(민주조선 10.28)
 - 김정일은 “가을남새 농사도 잘 지어야 한다”고 말함.
 - 함경북도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도안의 시, 군에서 남새 생육상태를 다시금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기술적 지도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음. 배추와 무 등 가을남새를 수확하기 전까지 해야 할 일을 앞질러가며 알려준 위원회에서는 시, 군경영위원회에서 그 집행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룡동협동농장을 비롯한 명강군 안의 협동농장에서는 가을남새 비배관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알뜰히 하고 있음. 또한 이미 마련되어 있는 관수체계를 효과 있게 이용하여 물을 충분히 보장해주기 위한 대책도 철저히 세우고 있음.
 - 경성군 안의 협동농장에서는 남새 비배관리를 실속있게 하고 있음. 특히 생기령협동농장에서는 일꾼들이 자주 남새밭에 나가 생육상태를 알아보고 필요한 대책을 세우고 있음.

□ 과수

- 가을철 과수원 관리를 잘하자(로동신문 11.11)
 - 김정일은 “과일나무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함.

- 당면한 가을철 과수원 관리가 매우 중요함. 가을철 과수원 관리는 다음해 과일생산 뿐 아니라 과수업을 전망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임.
- 가을철 과수원 관리를 잘해야 이미 심어놓은 과일나무와 새로 심을 과일나무모의 사름률을 높일 수 있고 다음해 과일생산은 물론 목표에 맞게 과일생산을 체계적으로 늘릴 수 있음.
- 과수부문 지도기관에서는 과일생산을 늘리는 중요한 방안 중 하나를 가을철 과수원 관리에서 혁신을 일으키는데서 찾고 조직사업과 기술적 지도를 보다 심화시켜 나가야 함.
- 또한 과일나무 밀거름주기를 잘해야 함. 과수 농장에서는 포전별, 날짜별 과일나무 밀거름 주기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노동력을 집중하여 질 좋은 거름을 주도록 해야 한다.
- 과수원 조성사업도 단계별로 전망성 있게 해나가야 함. 과수농장에서는 과수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단계별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설계에 따르는 적지선정과 구덩이 파기, 거름넣기, 과일나무모 임시묻기를 땅이 얼기 전에 전부 끝내도록 해야 함.

○ 키낮은 사과나무 심기 준비 활발(로동신문 12.7)

- 김정일은 “과일생산을 과학화, 현대화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자혁명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라고 말함.
- 과수연합총회사에서는 아랫단위에 내려가 현지를 하나하나 밟아보고 과수밭 적지선정과 설계를 앞세우면서 과수원 조성사업을 전망성 있게 추진하고 있음. 또한 과수묘목농장에서 키낮은 사과나무모 생산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사과나무모를 많이 생산하여 각지 과수농장에 제때에 보내주게 하고 있음.
- 농장 안의 묘목작업반에서는 수백정보의 면적에 심을 키낮은 사과나무모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우량품종의 과일나무모 생산을 힘 있게 내밀어 지난해에 비하여 훨씬 많은 양의 과일나무모를 생산하여 겨울준비를 실속 있게 하고 있음.
- 또한 농장에서는 총회사와의 긴밀한 연계 하에 수십만 그루의 키낮은 사과나무모를 집중적으로 실어들여 겨울나이 임시묻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끝내는 성과를 기록함.
- 지난해와 올해 봄에 수십 정보의 면적에 키낮은 사과나무밭을 조성한 봉산과수농장에서는 사과나무가 얼지 않도록 복주기와 벼짚싸주기를 과학기술적으로 실시하

고 새로 조성하는 과수원에 키낮은 사과나무를 심기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하고 있음.

9. 기타 보도 동향

- 서해벌방지역, 평안북도 등의 지역에서 수백세대의 살림집이 건설되어 인민 생활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음. 가을걷이와 낱알털기 시기를 맞이하여 올해 알곡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 농촌에 대한 지원 사업이 실시되고 있음.

□ 살림집

○ 사회주의 선경을 펼친 새 살림집(로동신문 12.28)

- 회령시, 랑림군, 무산군으로부터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과 형제산구역 제산협동농장, 순안구역 대양농장 그리고 문역군 룡림리와 재령군 래림리, 신원군 신창리를 비롯한 서해벌방지대에 이르는 나라의 전반 지역에서 한날 한시에 수십, 수백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이 세워지는 모습이 연이어 펼쳐짐.
- 많은 군에서는 자체의 기술역량으로 외장재와 기와, 건구를 보장하고 공사기일을 줄임으로써 올해 곳곳에서 근로자의 새집들이기 기쁨이 연이어 넘쳐흐르게 하였음.

○ 수천세대의 살림집을 건설(로동신문 12.31)

- 김정일은 “인민에게 현대적인 살림집을 많이 지어주어야 한다”고 말함.
- 평안북도 도당위원회에서는 인민의 생활에 편리한 살림집을 더 많이 건설할 목표를 세우고 도안의 시, 군에서 살림집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도와 시, 군 살림집 건설지휘부에서는 노동력과 자재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면서 설계를 앞세우고 시공조직사업을 면밀히 하여 건설물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음.
- 동림군에서는 조직사업을 면밀히 하고 보장사업을 앞세우면서 살림집 건설을 힘있게 내밀어 올해에 읍지구를 비롯한 여러 지구에 현대적인 살림집을 수백세대 건설

하였음.

- 정주시에서는 군중적으로 건설자재를 마련하면서 건설을 추진하여 짧은 기간에 여러 지구에 많은 살림집을 건설하였음. 박천군, 선천군을 비롯한 다른 군에서도 목표를 높이 세우고 실정에 맞게 건설을 추진하여 올해에 살림집을 많이 건설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농촌지원

○ 농촌을 힘 있게 지원(민주조선 1.6)

-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실천하는데 총력을 집중하기 위하여 평안남도에서는 각 농촌에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있음.
- 평성시, 숙천군, 문덕군을 비롯한 도내 시, 군에서는 수천대의 자동차, 트랙터 등을 동원하여 16만 여 톤의 거름을 포전에 냈음.
- 또한 기관, 기업소에서 내부예비를 동원하여 마련한 23종에 5만 2700여 점의 중소 농기구도 농촌에 보내주어 농업근로자가 알곡증산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농사를 잘 지어 인민들의 먹는 문제해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일꾼, 근로자들은 힘들여 장만한 많은 양의 거름 또한 협동농장에 보내주었음.

○ 농촌을 힘 있게 지원(로동신문 1.9)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평양시에서는 1월 6일 하루동안 2만 4,800여 톤의 거름을 시주변 농촌에 보내주었음.
- 김정일은 “농업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농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적 보장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말함.
- 평양시당위원회의 지도 밑에 시인민위원회에서는 농촌을 힘 있게 지원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추진하였음. 시주변 협동농장에 내려간 시의 책임일꾼은 농사차비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시안의 기관, 기업소에서 올해 농사차비에 필요한 지원물자를 성의껏 마련하게 하면서 이신작척의 모범을 보이고 있음.
- 농촌지원사업에서는 시인민위원회와 대동강구역, 중구역, 평양시식료연합기업소의 일꾼과 종업원, 대동강구역 동문1동, 능라1동, 탑제1동의 인민반원이 모범을 보이고 있음.

□ 쫓기대회

○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농업근로자의 쫓기모임 진행(로동신문, 민주조선 1.8)

-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농업근로자 쫓기모임이 1월 7일 진행되었음.
- 모임에서는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종업원이 전국의 근로자에게 보낸 편지가 낭독 되었으며 관리위원장 송윤희의 보고에 이어 기사장 조룡남, 청년작업반 농장원 김철해, 작업반장 김성룡, 트랙터운전수 리금철이 토론하였음.
- 보고자와 토론자는 전인민이 노력하여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총력을 집중하여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할 의지를 다졌음. 또한 이들은 포전별 특성에 맞게 작물배치를 잘하고 다수확품종의 알곡작물을 심으며 선진적인 영농기술과 방법을 적극 도입할 것에 대해 언급하였음.
- 더불어 씨뿌리기와 모내기, 김매기, 가을걷이와 난알털기를 비롯한 모든 영농과정에서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고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이며 농사를 알뜰하고 간지게 지을 것을 다짐하였음.

농업교류협력 동향

●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1.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2. 교류협력사업 동향
3.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정책

●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2.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단체 동향

● 북중 교역 동향

1. 북한의 수입 동향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1.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 10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08년 10월 중 남북교역액은 16,306만 달러로 전년 동월 21,237만 달러에 비해 23.2% 감소하였음(전월 16,782만 달러 대비 2.8% 감소)
- 반입은 9,904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8,281만 달러에 비해 19.6% 증가하였음(전월 9,960만 달러 대비 0.6% 감소)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34.1%, 농림수산물 22.4%, 광산물 10.9%, 철강·금속제품 10.3%, 전기전자제품 10.0% 등임.
- 반출은 6,402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12,956만 달러에 비해 50.6% 감소하였음(전월 6,821만 달러 대비 6.2% 감소)
 - 품목별 구성은 철강금속제품 16.5%, 농림수산물 8.8%, 섬유류 22.8%, 기계류 17.7%, 전기·전자제품 13.6% 등임.

□ 10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08년 10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1,397만 달러로 전월 2,852만 달러 대비 51.0% 감

* 통일부 교류협력국에서 발간하는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과 통일부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여 재정리한 것임.

소하고 10월 전체 반입액 9,904만 달러의 22.4%를 차지했음.

- 반입 농림수산물: 마늘·고사리 등 농산물이 409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4.1%), 합판 등 임산물이 1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01%), 어패류 등 수산물이 986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10.0%)를 차지했음.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08년 10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585만 달러로 전월 420만 달러 대비 39.3% 증가하였음.
- 반출 농림수산물: 마늘·사료 등 농산물이 475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7.4%), 우유 등 축산물이 9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2%), 합판 등 임산물이 71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1.1%), 어패류 등 수산물이 28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4%)를 차지했음.

□ 11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08년 11월 중 남북교역액은 14,271만 달러로 전년 동월 19,731만 달러에 비해 27.7% 감소(전월 16,306만 달러 대비 12.5% 감소)
- 반입은 8,011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8,269만 달러에 비해 3.1% 감소(전월 9,904만 달러 대비 19.1% 감소)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41.7%, 농림수산물 18.8%, 광산물 10.0%, 철강·금속제품 7.3%, 전기전자제품 10.8% 등임.
- 반출은 6,259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11,461만 달러에 비해 45.4% 감소(전월 6,402만 달러 대비 2.2% 감소)
 - 품목별 구성은 철강금속제품 12.6%, 농림수산물 11.4%, 섬유류 24.8%, 기계류 17.7%, 전기·전자제품 15.4% 등임.

□ 11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08년 11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1,506만 달러로 전월 1,397만 달러 대비 7.8% 증가하고 11월 전체 반입액 8,011만 달러의 18.8%를 차지했음.
 - 반입 농림수산물: 마늘·고사리 등 농산물이 470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5.9%), 합판 등 임산물이 8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1%), 어패류 등 수산물이 1,027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12.8%)를 차지했음.

체 반입액의 12.8%)를 차지했음.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08년 11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711만 달러로 전월 585만 달러 대비 21.5% 증가하였음.
- 반출 농림수산물은 마늘·밀가루 등 농산물이 652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10.4%), 우유 등 축산물이 9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2%), 합판 등 임산물이 30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5%), 어패류 등 수산물이 19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3%)를 차지했음.

□ 12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08년 12월 중 남북교역액은 12,245만 달러로 전년 동월 16,100만 달러에 비해 23.9% 감소(전월 14,271만 달러 대비 14.2% 감소)
- 반입은 6,985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7,151만 달러에 비해 2.3% 감소(전월 8,011만 달러 대비 12.8% 감소)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35.7%, 농림수산물 25.5%, 광산물 9.2%, 철강·금속제품 3.6%, 전기전자제품 11.1% 등임.
- 반출은 5,260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8,948만 달러에 비해 41.2% 감소(전월 6,259만 달러 대비 16.0% 감소)
 - 품목별 구성은 철강금속제품 6.6%, 농림수산물 5.9%, 섬유류 34.8%, 기계류 18.3%, 전기·전자제품 13.7% 등임.

□ 12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08년 12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1,781만 달러로 전월 1,506만 달러 대비 18.3% 증가하고 12월 전체 반입액 6,985만 달러의 25.5%를 차지했음.
 - 반입 농림수산물은 마늘·고사리 등 농산물이 456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6.5%), 합판 등 임산물이 2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02%), 어패류 등 수산물이 1,322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18.9%)를 차지했음.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08년 12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311만 달러로 전월 711만 달러 대비 56.2% 감소하였음.
- 반출 농림수산물은 마늘·밀가루 등 농산물이 256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4.9%), 분유 등 축산물이 16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3%), 합판 등 임산물이 23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4%), 어패류 등 수산물이 15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3%)를 차지했음.

표 1 2008년 10월 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농산물	1,518,243	4,093	4.1	농산물	5,591,434	4,757	7.4
참깨	1,920	8		쌀	25,718	39	
들깨	160	1		보리	1,500	2	
기타곡실류	9,625	17		밀	300	-	
무	20,000	28		옥수수	44,055	149	
마늘	745,334	1,734		감자	138,495	335	
기타채소	186,678	407		밀가루	693,915	480	
고사리	119,330	871		옥수수가루	45,841	15	
영지버섯	6,320	62		참깨	19,100	96	
송이버섯	73	1		들깨	5,175	17	
표고버섯	12,046	110		해바라기씨	500	-	
기타버섯류	38,971	270		기타채유종실	11,200	8	
밤	38,000	43		사과	1,520	4	
참기름	116	1		배	30	-	
들기름	27,684	98		바나나	20	-	
기타유지가공품	6,927	22		감귤	70	-	
박류	5,200	1		무	800	6	
제조담배	905	7		마늘	906,810	862	
식물성한약재	139,674	388		기타채소	9,525	16	
물	159,280	23		난초	45	-	
				기타화초	12,411	6	
				고사리	2,500	12	
				기타산식물	35,345	21	
				대두유	244,096	357	
				기타식물성유지	40	1	
				식물성액즙	15	-	
				사료	3,186,915	1,782	
				간장	9,521	24	
				겨자	109	-	
				기타소스류	18,573	58	
				커피조제품	2,205	8	
				제조담배	1,915	64	
				소주	10,560	16	
				맥주	9,800	12	
				포도주	60	1	
				기타주류	2,751	8	
				정당	266	1	
				물	21,166	9	
				검	61	-	
				사탕	79	2	
				비스킷	2,801	9	
				곡류가공품	5,445	12	
				빵	59,974	159	
				면류	53,223	141	
				기타농산가공품	6,675	15	
				견	305	7	
				면	4	-	
축산물	-	-	-	축산물	35,372	98	0.2
				돼지고기	80	-	
				소시지	1,432	10	
				우유	27,294	80	
				기타낙농품	6,566	8	
임산물	13,800	11	0.01	임산물	599,846	713	1.1
합판	13,000	11		제재목	68,736	36	
목재장식품상자	800	-		합판	408,516	503	
				섬유판	5,789	88	
				건축용목제품	64,131	63	
				기타목재류	2,238	7	
				수목류	49,761	96	
				코르크	675	1	
수산물	4,955,632	9,866	10.0	수산물	281,432	287	0.4
넙치	490	4		대구	610	4	
기타어류	24,838	123		기타어류	50	-	
새우	303,435	1,517		김	30	-	
꽃게	6,998	18		꽃	3,400	43	
기타게	93,265	334		미역	235,440	88	
문어	85,137	321		기타수산가공품	41,902	151	
굴	3,315	13					
피조개	22,534	63					
기타조개	2,410,392	3,010					
기타연체동물	1,336,939	1,697					
미역	168,840	149					
기타수산물통조림	15,008	55					
건조수산물	38,920	385					
기타수산가공품	404,650	1,740					
기타수산물	40,871	437					
합 계		13,970	14.1	합 계		5,855	9.1

주: 구성비는 전체 반입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208호(2008.10.1~10.31).

표 2 2008년 11월 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농산물	1,742,087	4,706	5.9	농산물	2,964,813	6,521	10.4
완두	2,000	6		쌀	47,249	76	
참깨	17,520	80		옥수수	44,030	140	
기타채유종실	24,000	5		감자	131,766	274	
기타곡신태	5,160	9		고구마	10	-	
무	9,970	11		대두	17,500	19	
호박	58,512	22		밀가루	725,620	642	
마늘	715,740	1,668		들깨	4,500	10	
기타채소	194,792	360		해바라기씨	1,000	-	
고사리	84,700	595		사과	160	1	
죽순	11,376	24		감	30	-	
영지버섯	3,540	51		마늘	804,660	765	
표고버섯	58,669	549		기타채소	9,002	15	
기타버섯류	68,879	332		난초	185	1	
밤	95,000	107		기타화초	1,575	13	
참기름	540	4		기타산식물	121,898	63	
들기름	2,995	18		대두유	630,498	786	
기타유지가공품	13,243	37		박류	14,000	6	
식물성액즙	7,990	93		사료	226,124	3,020	
원장	24,508	25		기타식물성물질	1,980	-	
홍차	1	-		간장	17,673	34	
식물성한약재	188,744	626		겨자	235	-	
기타주류	4,207	19		기타소스류	324	1	
물	104,040	28		커피조제품	1,096	5	
기타음료	1	-		녹차	100	2	
면류	30,000	21		제조담배	785	26	
기타농산가공품	15,960	16		소주	3,040	3	
				맥주	4,650	3	
				위스키	826	42	
				정당	256	1	
				물	341	1	
				사탕	85	4	
				비스킷	3,432	8	
				곡류가공품	57,100	158	
				빵	42,364	130	
				면류	33,766	90	
				기타농산가공품	14,544	151	
				종자류	1,074	4	
				견	1,330	27	
축산물	-	-	-	축산물	46,411	97	0.2
	-	-	-	돼지고기	330	1	
				소시지	2,079	5	
				우유	38,054	82	
				기타낙농품	5,707	9	
				난류	241	1	
임산물	18,020	81	0.1	임산물	276,330	307	0.5
합판	13,000	73		합판	182,431	185	
목제식탁용품	5,000	8		섬유판	9,500	6	
기타목재류	20	-		건축용목제품	29,581	72	
				목재틀	10	-	
				목제장식품상자	27	-	
				기타목재생활용품	101	1	
				기타목재류	240	-	
				수목류	53,440	34	
				종자류	1,000	10	
수산물	6,023,466	10,278	12.8	수산물	119,772	191	0.3
넙치	3,540	33		기타조개	10,416	14	
대구	200	-		툰	3,400	54	
기타어류	49,016	73		미역	69,660	23	
새우	317,870	1,734		기타수산가공품	16,796	69	
기타계	71,998	229		기타수산물	19,500	31	
문어	244,319	681					
굴	38,857	127					
피조개	56,067	158					
기타조개	3,618,096	4,255					
기타연체동물	1,166,286	1,389					
툰	3,659	48					
미역	131,404	102					
기타수산물통조림	200	1					
건조수산물	36,149	318					
기타수산가공품	180,969	725					
기타수산물	104,836	405					
합 계		15,065	18.8	합 계		7,116	11.4

주: 구성비는 전체 반입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209호(2008.11.1~11.30).

표 3 2008년 12월 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농산물	1,857,116	4,564	6.5	농산물	2,384,692	2,568	4.9
감낭콩	89,670	58		쌀	12,736	18	
참깨	19,550	67		옥수수	38,930	117	
들깨	3,800	9		감자	148,206	273	
기타곡실횐류	23,860	84		밀가루	922,299	410	
무	20,000	26		참깨	28,600	117	
호박	7,210	22		들깨	5,040	11	
마늘	697,110	1,624		사과	65	-	
기타채소	299,945	496		오렌지	525	1	
고사리	88,580	733		감귤	60	-	
영지버섯	1,400	15		마늘	694,975	661	
표고버섯	41,942	352		기타채소	7,466	12	
기타버섯류	57,116	460		기타화초	4,850	27	
밤	38,000	43		밤	2,400	2	
호도	24,191	210		기타산식물	11,450	11	
기타견과류	50,000	51		대두유	269,705	339	
참기름	1,422	11		기타식물성유지	20	1	
들기름	362	3		식물성액즙	15	-	
기타유지가공품	10,665	40		간장	69	-	
박류	6,800	1		된장	100	-	
간장	1,703	1		고추장	100	-	
원장	22,885	26		기타소스류	50	-	
제조담배	60	7		커피조제품	2,035	6	
식물성환약제	82,956	176		제조담배	43	11	
기타주류	6,249	9		소주	3,400	5	
물	261,640	40		맥주	2,869	3	
				원당	60	-	
				정당	20,320	8	
				기타당류	3,400	2	
				물	1,469	2	
				비스킷	3,785	13	
				곡류가공품	29,150	46	
				빵	65,845	183	
				면류	25,969	78	
				빙과류	32	-	
				기타농산가공품	77,263	153	
				종자류	200	27	
				견	1,189	31	
				면	2	-	
축산물	-	-	-	축산물	44,869	163	0.3
	-	-	-	닭고기	210	1	
				소시지	243	1	
				우유	12,665	42	
				분유	28,000	114	
				기타낙농품	3,412	5	
				난류	339	1	
임산물	21,927	21	0.02	임산물	427,200	234	0.4
합판	15,600	15		합판	291,331	113	
젓가락	7	1		섬유판	13,030	9	
목제식탁용품	4,000	4		건축용목제품	7,049	12	
기타목재류	2,120	1		기타목재류	6,090	11	
기타임산부산물	200	1		수목류	64,700	79	
				종자류	20,000	10	
				코르크	25,000	-	
수산물	7,599,553	13,225	18.9	수산물	42,506	152	0.3
넙치	1,490	13		기타어류	8,900	7	
대구	11,220	8		기타게	1,389	16	
뽕장어	1,000	12		기타연체동물	1,800	1	
기타어류	99,560	140		김	198	4	
새우	215,121	1,945		꽃	1,830	29	
기타게	117,654	1,092		미역	450	4	
문어	182,322	553		기타해조류	270	4	
낙지	20,000	42		기타수산물물조립	36	-	
굴	97,379	149		기타수산가공품	6,213	25	
피조개	87,154	247		기타수산물	21,420	61	
기타조개	4,929,374	5,720					
기타연체동물	1,152,141	1,242					
꽃	10,262	189					
미역	163,212	126					
건조수산물	28,822	259					
기타수산가공품	243,563	1,081					
기타수산물	239,279	407					
합 계		17,810	25.5	합 계		3,117	5.9

주: 구성비는 전체 반입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210호(2008.12.1~12.31).

□ 남북한 교역 통계

표 4 연도별·월별 남북한 교역 실적

단위: 천 달러

연 도	반 입			반 출			총교역액 (A+B)	교역수지 (B-A)
	건수	품목수	금액(A)	건수	품목수	금액(B)		
1989	66	24	18,655	1	1	69	18,724	△ 18,586
1990	79	23	12,278	4	3	1,188	13,466	△ 11,090
1991	300	43	105,719	-	16	5,547	111,266	△ 100,172
1992	510	69	162,863	62	25	10,563	173,426	△ 152,300
1993	601	69	178,167	97	37	8,425	186,592	△ 169,742
1994	708	80	176,298	267	87	18,249	194,547	△ 158,049
1995	976	109	222,855	1,668	167	64,436	287,291	△ 158,419
1996	1,475	130	182,400	1,908	167	69,639	252,039	△ 112,761
1997	1,806	143	193,069	2,185	284	115,270	308,339	△ 77,799
1998	1,963	136	92,264	2,847	379	129,679	221,943	37,415
1999	3,089	172	121,604	3,421	405	211,832	333,436	90,228
2000	3,952	204	152,373	3,442	527	272,775	425,148	120,402
2001	4,720	201	176,170	3,034	492	226,787	402,957	50,617
2002	5,023	204	271,575	3,773	495	370,155	641,730	98,580
2003	6,356	186	289,252	4,853	530	434,965	724,217	145,713
2004	5,940	202	258,039	6,953	575	439,001	697,040	180,962
2005	9,337	381	340,281	11,878	712	715,472	1,055,754	375,191
2006	16,412	421	519,539	17,039	697	830,200	1,349,739	310,661
2007	25,027	450	765,346	26,731	802	1,032,550	1,797,896	267,204
소 계	88,340	3,247	4,238,749	90,163	6,401	4,956,801	9,195,551	718,052
2008.1	2,573 (1,759)	221 (169)	68,930 (55,581)	3,035 (1,848)	496 (340)	71,573 (37,168)	140,504 (92,749)	2,643 (△18,431)
2008.2	2,001 (1,533)	181 (170)	59,904 (44,431)	2,368 (1,586)	427 (339)	58,981 (37,797)	118,885 (82,228)	△923 (△6,634)
2008.3	2,513 (1,93)	209 (166)	79,310 (58,636)	2,886 (1,823)	460 (399)	78,587 (44,515)	157,897 (103,151)	△723 (△14,121)
2008.4	2,397 (1,803)	213 (180)	72,751 (46,029)	2,576 (1,891)	432 (431)	71,497 (86,840)	144,248 (132,869)	△1,254 (40,811)
2008.5	2,505 (2,222)	227 (187)	77,218 (63,397)	3,120 (2,115)	472 (443)	95,506 (88,531)	172,724 (151,929)	18,288 (25,134)
2008.6	2,332 (2,010)	209 (180)	64,410 (57,385)	3,091 (2,094)	471 (409)	82,128 (97,858)	146,538 (155,243)	17,718 (40,473)
2008.7	2,533 (2,060)	222 (192)	82,313 (78,414)	3,577 (2,254)	493 (426)	98,436 (105,150)	180,749 (183,564)	16,123 (26,736)
2008.8	2,367 (1,982)	212 (195)	78,800 (59,582)	2,715 (2,445)	427 (449)	83,966 (93,817)	162,766 (153,399)	5,166 (34,235)
2008.9	2,632 (2,013)	218 (198)	99,602 (64,868)	2,777 (2,161)	449 (403)	68,219 (107,206)	167,821 (172,074)	△31,383 (42,338)
2008.10	3,222 (2,464)	223 (203)	99,045 (82,810)	3,462 (2,798)	470 (485)	64,020 (129,568)	163,064 (212,378)	46,758 (46,758)
2008.11	3,365 (2,021)	261 (220)	80,117 (82,693)	3,281 (3,009)	456 (496)	62,596 (114,619)	142,714 (197,312)	31,926 (31,926)
2008.12	2,803 (2,585)	257 (224)	69,849 (71,520)	3,314 (2,707)	463 (501)	52,607 (89,481)	122,456 (161,001)	△17,242 (17,961)
소계	31,243	482	932,250	36,202	813	888,117	1,820,366	△44,133
총 계	119,583	3,729	5,170,999	126,365	7,214	5,844,918	11,015,917	673,919

주: 1) ()안은 2007년 동기 실적임.

2) 1995년 교역금액은 대북 쌀 지원 237,213천 달러 반출을 제외한 것임.

3)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끝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료: <http://www.unikorea.go.kr>,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210호.

그림 1 연도별 남북한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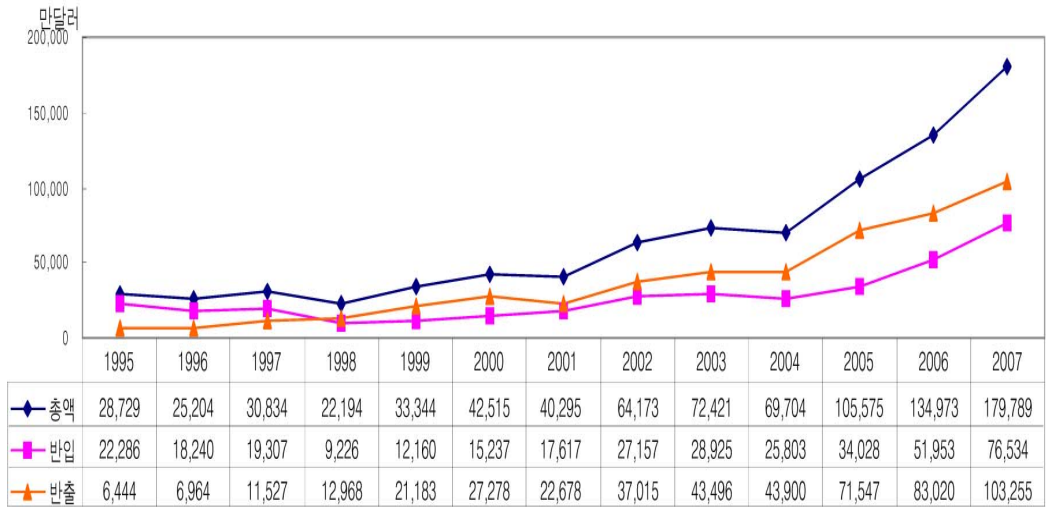


그림 2 연도별 · 월별 남북한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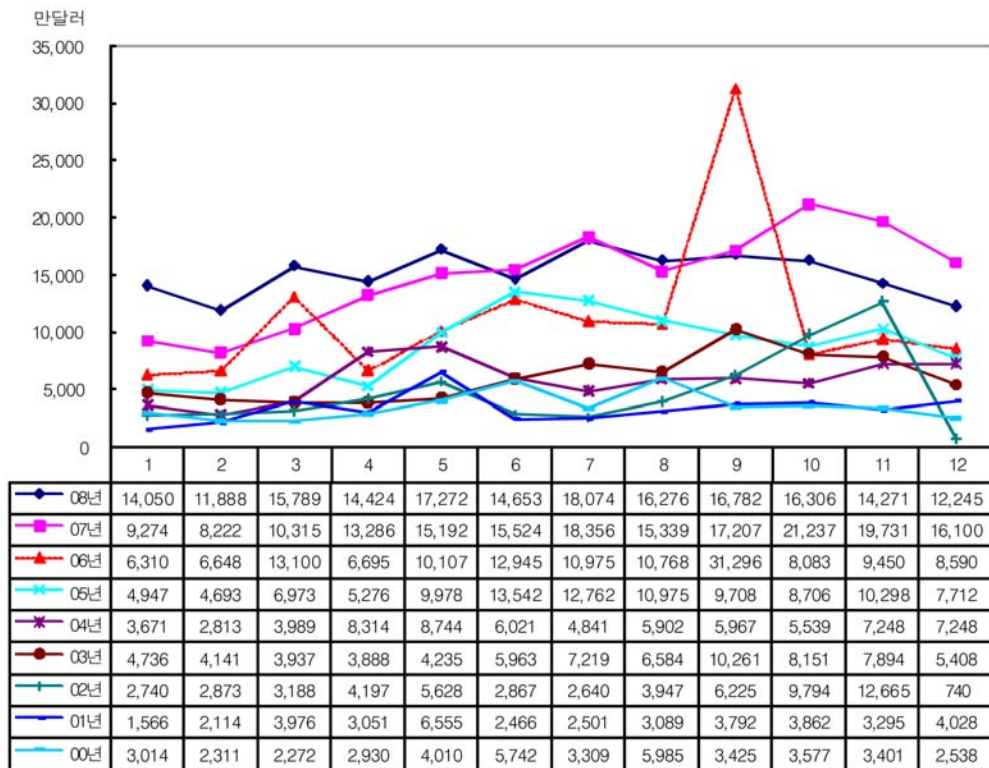


표 5 연도별·월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단위 : 천 달러

연 도	반입					반출					총교역액 (A+B)	교역수지 (B-A)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소계(A)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소계(B)		
1989	2,178	-	-	174	2,352	-	-	-	-	-	2,352	△2,352
1990	5,130	-	49	393	5,572	10	-	-	-	10	5,582	△5,562
1991	6,364	-	1,402	3,052	10,818	1,607	-	-	-	1,607	12,425	△9,211
1992	9,546	-	2,277	5,083	16,906	64	-	-	-	64	16,970	△16,842
1993	6,916	-	4,221	879	12,016	63	-	-	6	69	12,085	△11,947
1994	5,315	-	7,212	2,723	15,250	3,220	-	-	97	3,317	18,567	△11,933
1995	13,506	-	6,003	2,810	22,319	8,879	-	273	154	9,306	31,625	△13,013
1996	11,853	-	2,014	9,588	23,455	6,044	-	57	613	6,714	30,169	△16,741
1997	7,871	-	4,902	14,553	27,326	16,525	-	116	383	17,024	44,350	△10,302
1998	7,895	-	3,526	13,377	24,798	18,732	-	510	398	19,640	44,438	△5,158
1999	15,057	-	4,484	28,327	47,868	15,682	-	1,796	189	17,667	65,535	△30,201
2000	23,352	-	7,014	41,566	71,932	23,910	-	1,005	464	25,379	97,311	△46,553
2001	38,703	78	5,717	45,316	89,814	26,939	2,157	424	2,977	32,497	122,311	△57,317
2002	28,881	395	95	70,531	99,902	103,080	5,079	1,102	934	110,195	210,097	10,293
2003	36,203	1,474	245	89,714	127,636	112,345	7,425	2,206	3,583	125,559	253,195	△2,077
2004	32,965	443	244	68,209	101,862	60,649	2,411	2,006	2,075	67,141	169,003	△34,721
2005	21,425	664	318	57,430	79,837	73,303	1,638	2,160	821	77,922	157,759	△1,915
2006	37,670	184	437	99,563	137,854	206,702	1,745	4,451	994	213,892	351,746	76,038
2007	58,207	64	406	115,436	174,113	127,906	1,329	4,848	1,297	135,380	309,493	△38,733
소 계	369,037	3,302	50,566	668,724	1,091,630	805,660	21,784	20,954	14,985	863,383	1,955,013	△228,247
2008.1	5,324 (2,996)	- (-)	10 (26)	12,820 (13,345)	18,154 (16,367)	8,611 (3,002)	165 (32)	320 (41)	397 (27)	9,493 (3,102)	27,647 (19,469)	△8,661 (△13,265)
2008.2	2,751 (-)	- (-)	- (-)	10,849 (-)	13,600 (-)	3,979 (-)	51 (-)	207 (-)	317 (-)	4,554 (-)	18,154 (-)	△9,046 (-)
2008.3	3,855 (2,069)	1 (-)	24 (5)	12,155 (9,666)	16,035 (11,740)	4,475 (3,111)	97 (291)	1,141 (774)	158 (143)	5,871 (4,319)	21,906 (16,059)	△10,164 (△7,421)
2008.4	4,796 (3,386)	- (-)	16 (18)	12,519 (6,250)	17,331 (9,654)	6,674 (2,316)	97 (70)	756 (487)	489 (219)	8,016 (3,092)	25,347 (12,746)	△9,315 (△6,562)
2008.5	4,308 (4,229)	- (-)	2 (-)	11,159 (13,317)	15,469 (17,546)	6,918 (3,405)	120 (162)	1,433 (941)	397 (281)	8,868 (4,789)	24,337 (22,335)	△6,601 (△12,757)
2008.6	4,928 (4,826)	18 (33)	8 (-)	10,357 (11,322)	15,311 (16,181)	6,722 (25,530)	257 (16)	395 (160)	590 (161)	7,964 (25,867)	23,275 (42,048)	△7,347 (9,686)
2008.7	6,121 (5,636)	- (-)	2 (7)	14,410 (13,606)	20,533 (19,249)	7,022 (21,652)	97 (23)	147 (169)	1,100 (223)	8,456 (22,067)	28,989 (41,316)	△12,077 (2,818)
2008.8	5,920 (5,689)	- (26)	- (-)	10,187 (7,818)	16,107 (13,533)	3,896 (29,259)	256 (152)	230 (159)	345 (13)	4,727 (2,858)	20,834 (43,134)	△11,380 (16,068)
2008.9	19,287 (11,202)	- (-)	8 (2)	9,233 (5,085)	28,528 (16,289)	3,373 (19,011)	171 (59)	395 (92)	262 (72)	4,201 (19,234)	32,729 (35,523)	△24,327 (2,945)
2008.10	4,093 (7,696)	- (5)	11 (17)	9,866 (7,872)	13,970 (15,590)	4,757 (6,330)	98 (121)	713 (454)	287 (4)	5,855 (6,909)	19,825 (22,499)	△8,115 (△8,681)
2008.11	4,706 (5,359)	- (-)	81 (76)	10,278 (13,389)	15,065 (18,824)	6,521 (5,973)	97 (244)	307 (651)	191 (63)	7,116 (6,931)	22,181 (25,755)	△7,949 (△11,893)
2008.12	4,564 (5,119)	- (0)	21 (255)	13,225 (13,766)	17,810 (19,140)	2,568 (8,317)	163 (159)	234 (920)	152 (74)	3,117 (9,470)	20,927 (28,610)	△14,693 (△9,670)
소 계	70,653 (58,207)	- (64)	183 (406)	137,058 (115,436)	207,913 (174,113)	65,516 (127,906)	1,669 (1,329)	6,278 (4,848)	4,685 (1,280)	78,238 (108,639)	286,151 (309,494)	△129,675 (△38,732)
총 계	-	-	-	-	1,299,543	-	-	-	-	941,621	2,241,164	△357,922

주: 1) ()은 2007년 동기 실적임.

2)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끝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료: 통일부, 남북무역 통계자료(1989-1997), 1998.,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동향, 제208~210호. <http://www.unikorea.go.kr>

그림 3 연도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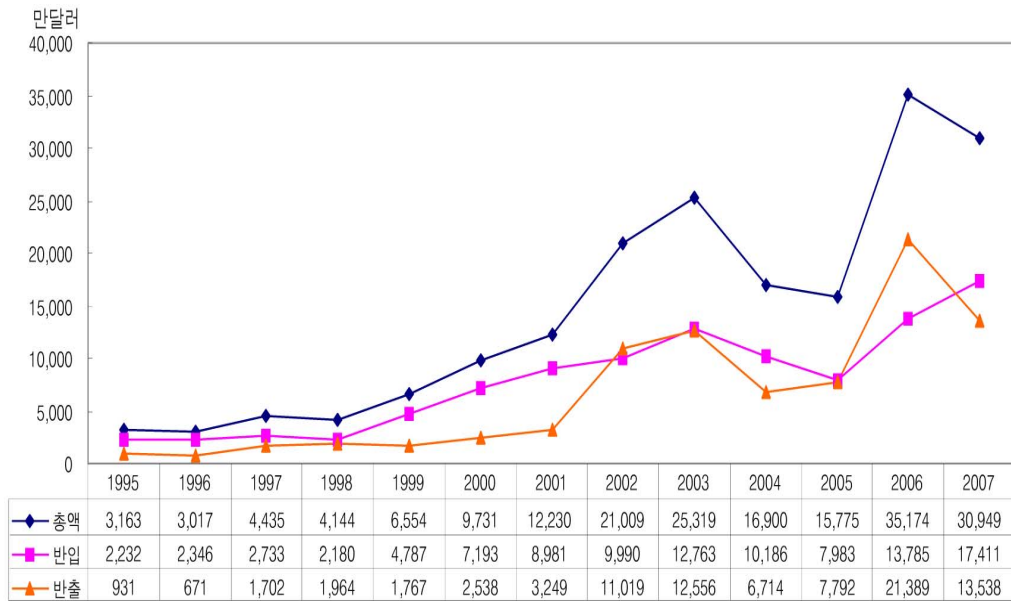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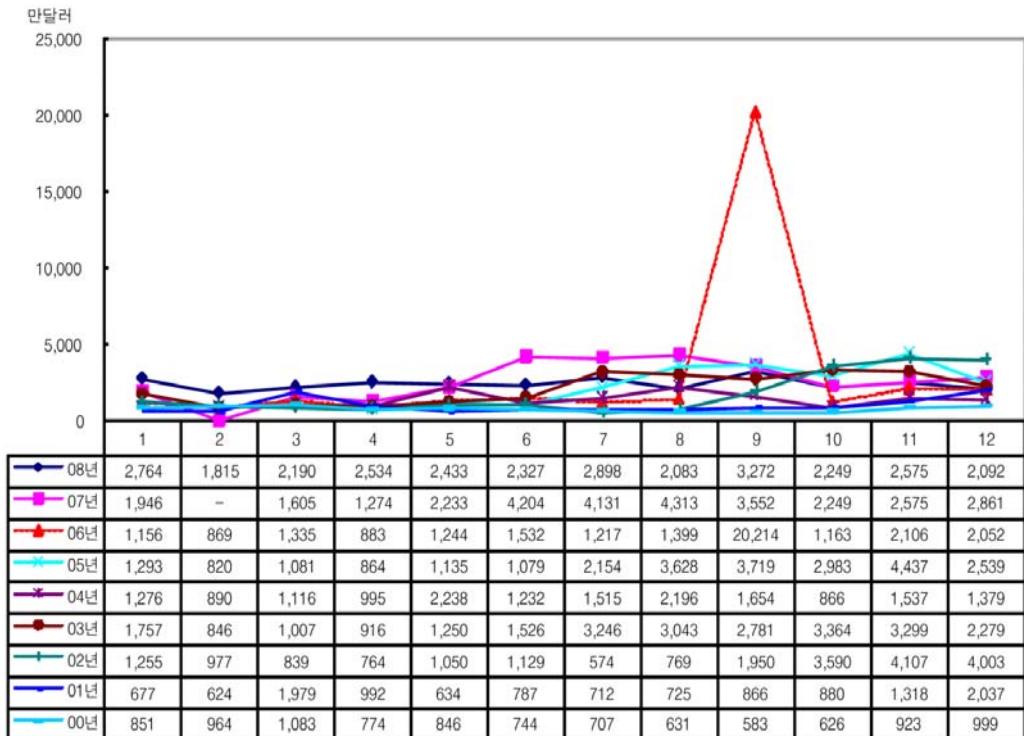


그림 4 연도별 · 월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2. 교류협력사업 동향

□ 농림수산분야,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 현황

- 2008년 10~12월 중 농림수산분야에서 협력사업이나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기업은 없음. 12월 말 현재, 농림수산분야에서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기업(단체)는 총 14개로 전체 382개 기업(단체)의 3.7%를 차지하고 있음. 승인된 협력사업 353건 중 농림수산분야는 17건으로 4.8%를 차지하고 있음.

농림수산분야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 현황, 2008년 12월 말 현재

기 업	사업상대자	사 업 내 용	지 역	금 액	사업자 승인일
미홍식품**(합 영)	조선철산무역총회사	수산물 채취·가공·양식 및 판매	청진, 함흥 원산, 남포	15만불 (47만불)*	'97.5.22 (*98.3.13)*
파라우수산(합 영)	조선은파산무역상사	수산물 생산·가공	원산, 해주	300만불	'97.8.1
금오식품(합 작)	은하무역총회사	냉면·고구마전분 제조	평양	40만불	'97.8.1
안흥개발(합 작)	조선56무역회사	참기름 가공공장 설립	남포	50만불	'98.3.13
백산식품**(합 영)	함경북도 선봉군 온실농장	버섯매지 생산 및 국내농가 보급, 표고·느타리·진주 등 버섯류 생산·수출	나진, 선봉 (선봉군읍)	20.8만불*	'98.10.28 (*98.10.28)*
(주)해주(합 작)	광명성총회사	북한 수산물 생산 및 판매	서해인근	299만불	'99.1.8
(주)G-한신 (주)경평인터내셔널**	광명성총회사	식품가공업 (김치, 된장, 상황버섯음료)	평양	-	'03.10.31 (*04.3.20)*
(주)안동대마방직**	새별총회사	북한내 대마제배 및 삼베제품	평양, 황해도	250만불*	'04.2.18 (*04.9.17)*
제일유통**	개선무역총회사	표고버섯 제배 및 가공	평양	546천불*	'04.8.21 (*04.8.21)*
(주)제이유네트웍스**	광명성총회사	김치제조공장 설립 및 유통·판매	평양	160만불*	'04.12.30 (*04.12.30)*
(주)에너지극동개발	광명성총회사	사료 제조·판매	평양	-	'04.12.30
아이니무역**	개선총회사	다슬기 가공설비 투자 및 반입·판매	원산	15만불*	'05.06.15 (*05.06.15)*
제일유통**	개선총회사	나무제배 및 판매	황북 봉산 황남 연덕	26만불*	'05.12.30 (*05.12.30)*
제일유통**	개선총회사	과수제배 및 생산물 판매	평양 만경대	164만불*	'05.12.30 (*05.12.30)*
제일유통**	개선총회사	소사육 생산 및 판매	황북/황남, 평양	30만불*	'05.12.30 (*05.12.30)*
(주)통일고려인삼**	광명성총회사	인삼제배 및 가공공장 운영(북한 내수 및 해외판매)	평양, 황북 봉산군	285만불*	'07.12.31 (*07.12.31)*
대동수산**	광명성총회사	수산물 가공업	남포	500만불*	'08.06.20 (*08.06.20)*

주: 1) *는 협력사업 승인 금액 및 날짜임.

2) **는 협력사업 승인까지 받은 기업(단체)임.

3) 현대아산과 금강산관광총회사간의 계약에 의한 금강산영농장사업은 현대아산이 영농장의 시설재·농자재를 금강산관광총회사에 연불수출(延拂輸出)하고 북한측은 생산물로 연불수출금을 상환하는 형태임(금강산관광총회사에서 영농장 운영은 고성군인민위원회에, 생산물 납입 가격 협의는 광명성총회사에 위탁).

자료: <http://www.unikorea.go.kr>,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210호.

3.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정책

□ 제21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결과

(통일부, 2008. 11. 18)

- 정부는 2008년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2008년도 대북지원 민간단체 합동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등 7건을 심의·의결

① 2008년도 대북지원 민간단체 합동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 북한의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농촌시범마을 조성사업(남북나눔 주관)과 보건의료분야 지원을 위한 종합검진센터 건립사업(나눔인터네셔널 주관) 등 2개 분야 합동사업에 18억 원 상당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

② 국제백신연구소를 통한 북한백신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 북한의 전염병 통제능력 향상과 보건의료체계 개선차원에서 국제백신연구소가 추진하는 북한 백신능력개발 지원사업에 대해 49만3천 달러 상당을 남북협력기금지원에서 지원

※ 주요 내용 : 전염병 진단실험실 지원, 북한 의료인력 교육 등

③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유지·관리 경비지원(안)

-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으로 총 7억 7,300만 원 상당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

※ 주요 내용 : 동절기 유지·관리 경비, 최소 유지·관리 경비 등 지원

④ 개성공단 1단계 기반시설 사업비 변경(안)

- 개성공단 내 폐기물소각장 소각방식 변경 등 기반시설 사업비 63억 원 증액

※ 당초 1,510억 원

⑤ 개성공단 탁아소 건립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78%를 차지하는 20~30대 여성근로자의 영유아 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탁아소 건립 소요자금 9억 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

⑥ 동해선 출입시설 공용야드 건설사업 기간연장 및 계획 변경(안)

- 2005년 10월부터 시작된 동해선 공용야드 건설사업이 문화재 발굴조사 등으로 공기가 연장됨에 따라 사업기간 및 기금 집행계획 변경 등
 - ※ 사업기간: 2005~2007 → 2005~2009
 - ※ 사업비: 489억 7,700만 원 → 476억 8,900만 원

⑦ 민간단체에 대한 기금지원 기준 구체화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 새 정부 출범 이후 기금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적용해 온 민간단체 기금지원 기준을 제도화
 - ※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과 ‘남북 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지침’

□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통일부, 2008. 12. 2)

-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2008년 12월 2일 공포·발효됨. 이 개정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음.

① 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심의·의결 범위를 확대(시행규칙 제2조)

- 주민왕래지원,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 : 5억 원 이상 → 3억 원 이상
- 금융기관에 대한 손실보전 등 : 5억 원 이상 → 5천만 원 이상

② 보험제도 운영방식 개선(시행규칙 제2조, 제3조)

-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보험계약 체결의 한도액을 설정하고 한도 내 보험계약은 기금수탁기관이 통일부와 협의하여 체결

□ 제21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결과

(통일부, 2008. 12. 26)

- 정부는 2008년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서면)

「현대아산주식회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승인안」 등 5건을 심의·의결.

① 현대아산주식회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승인(안)

-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이후 현대아산 협력업체의 경영상황 악화를 완화하기 위해 70억 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
- ※ 현대아산을 통해 협력업체에 대출하는 방식으로 지원

②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개정(안)

-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10. 10) 및 시행규칙(12. 2)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
- 주요내용 :
 - 세분화된 민족공동체회복지원(이산가족교류지원, 인도적 지원, 북한비핵화 지원 등)의 요건, 방법, 절차 등 구체화
 - 보험제도 운영방식 변경(교추협 의결을 통해 설정된 한도 내에서 개별기업과 계약체결은 통일부장관 결정) 등

③ 손실보조 취급기준 개정(안)

-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10. 10) 및 시행규칙(12. 2)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손실보조에서 보험으로 명칭을 일괄 변경하고 보험제도의 관련 규정을 개정
- 주요내용 :
 - 보험계약 연장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
 - 보험료율 조정근거 마련(0.5% → 0.5~0.8%)
 - 교역보험에서 담보하는 위험 중 신용위험 제도 폐지 등

④ 교역·경협보험 계약체결 및 보험금 지급한도 설정(안)

-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발효(12. 2)에 따라 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통해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한도를 설정
- 주요내용 :
 - 보험계약 체결 총액한도 : 5,000억 원
 - 종목별·기업별 보험계약 체결한도 : 경협보험 50억 원, 교역보험 10억 원
 - 기업별 보험지급한도 : 20억 원
 - 상기 한도 내 보험계약 체결이나 보험금 지급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통해 결정

⑤ 경협보험계약체결 승인(안)

-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발효 전(12. 2 이전) 보험계약체결을 신청한 18개 기업(보험금액 777억 원)에 대한 보험계약 체결을 승인

□ 2009년 통일부 업무보고

(통일부, 2008. 12. 31)

- 통일부는 2008. 12. 31(수)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에게 「2009년도 통일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 통일부는 2009년도 통일정책의 목표를 “새로운 남북관계로의 전환을 통해, 안정적 남북관계, 생산적 남북관계, 호혜적 남북관계”를 이룩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4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
 - 진정성 있는 남북 당국 간 대화 추진
 - 남북경제교류협력 추진
 -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노력
 - 상생공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강화
- 기타 통일부 업무개선 과제로 남북협력기금 투명성 강화, 미래 세대에 대한 통일 교육 강화 등을 제시
 - ① 추진과제 1 : 남북 당국 간 대화 추진
 - 주요 계기를 활용하여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를 지속 제의하여 북한이 남북대화 호응해 나오도록 촉구
 -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 비전을 제시하여 새로운 남북관계로의 전환 여건을 조성
 - 남북대화 재개 시에는 금강산 사건, 남북 간 군통신과 군사분계선 육로 통행 정상화, 판문점 연락체계 복원, 남북경제협력협약사무소 업무 재개 등 남북 간 현안 문제 협의·해결에 노력
 - ② 추진과제 2 : 남북경제교류협력 추진
 - 개성공단 사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북한의 「12.1 출입·체류 제한 조치」에 따른 기업 불편을 해소
 -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을 보아가며 북한 근로자의 공급 확대를 위한 근로자

숙소건설, 출퇴근 도로 개보수 등 개성공단 활성화 조치 추진

- 남북관계 전환 시에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 산림협력, 농수산 협력, 지하자원 개발협력, 철도·도로, 가스관 연결사업(PNG) 등 상생공영의 남북 관계 발전에 부합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와 함께 한강하구 골재채취, 임진강 수해방지 등 남북 접경지역 공동이용·개발사업도 추진

③ 추진과제 3 :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노력 지속

-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 실시 및 정례화를 추진하고, 남북자·국군포로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력
- 임산부·영유아 지원 등 북한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추진하고, 대북지원에 대한 분배투명성을 강화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하나원 교육기간을 확대하고, 지역적응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며 탈북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

④ 추진과제 4 : 상생공영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 강화

-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여야 조당적 협력을 강화
- 분야별 「상생공영포럼」을 정례화하고 민주평통, 통일운동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을 확대

⑤ 업무개선과제

- 남북협력기금 투명성 강화를 위해 매년 ‘남북협력기금 백서’ 발간, ‘남북협력기금 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남북협력기금 평가단’ 구성·운영 추진
- 통일미래를 준비해 나갈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통일교육을 강화
 - 학교 및 시·도 교육청과 연계하여 학교통일교육을 활성화
 - 「통일문화페스티벌」 등 체험형 통일교육을 확대

□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통일부, 2009. 1. 20)

- 2009. 1.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에 이송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금일 국무회의에 상정
 - 향후 공포(관보 게재) 등 발효 절차를 거쳐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

○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교역대상	물품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물품등)
교류협력 추진협의회	—	정부위원의 교추협 대리참석 가능
	실무위원회 설치 가능	실무위원회 설치 의무화
남북한방문	북한 왕래시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방문 증명서를 소지	북한 방문시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고 방문증명서를 소지 유효기간 외에 방문기간 개념 등 명시
	수시방문증명서	복수방문증명서
북한주민접촉	사전·사후 신고 의무	북한주민접촉 신고 면제, 사전·사후 신고 의무
교역	교역당사자 지정 제도	교역당사자 지정 제도 폐지
협력사업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 제도	협력사업자 승인제도 폐지 및 협력사업 승인제도로 일원화
	—	협력사업 신고제도 도입
행정조사 등 지도·감독	—	협력사업을 하는 자, 보조금을 받은 자 등에 대한 행정조사권한 마련
벌칙	승인을 받지 않고 방북·교역·협력사업· 수송장비운행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 에 부정한 방법으로 방북·교역·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는 벌금 대상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송장비운행 승인을 받은 경우를 벌금 대상으로 추가
	—	협력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협력 사업을 시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사업을 신고 한 경우를 벌금 대상으로 신설
과태료	북한주민접촉 신고를 하지 않고 접촉하 거나, 교역·협력사업 결과 보고를 하지 않은 자는 과태료 대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주민접촉 신고 또는 교역·협력사업 결과 보고를 한 자를 과태료 대상으로 추가
	—	북한주민접촉·협력사업 신고 수리 시 부가한 조건을 위반하거나, 행정조사를 거부·기피 방해한 경우를 과태료 대상 으로 신설

□ 제2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결과

(통일부, 2009. 1. 22)

○ 정부는 2008년 1월 13일부터 19일까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서면) 「이산가족 교류 촉진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등 5건을 심의·의결

① 이산가족 교류촉진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를 위해 이산가족 교류경비, 교류주선단체 지원, 업무위탁 비용 등 총 2억 9,76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무상으로 지원

② 거래말큰사전 편찬사업 남북협력기금 지원

- 남북 언어체계 통합·정비를 위한 거래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의 2009년 소요경비 30억 5,400만 원을 「거래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에 무상으로 지원

③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소요경비 남북협력기금 대출

- 개성공단의 관리 및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의 2009년 운영경비 89억 1,000만 원을 대출

※ 대출 조건 : 대출기간(5년 거치, 10년 상환), 대출이자율 1%, 상환조건 연 1회, 총 10회 균등 상환

④ 2009년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운영경비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 남북 기업 간 경험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의 2009년 운영경비 1억 6,200만 원을 무상으로 지원

⑤ 2009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운영경비 및 지하자원 개발 관련 조사연구비 지원

- 북한 지하자원 개발 관련 이행기구인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2009년 운영경비 및 조사연구비 7억 원을 무상으로 지원

< 자 료 >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 개정 상황(2008년 11월 이후)

1. 「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개정, 고시

(통일부고시 제2008-7호, 2008. 11. 28)

○ 개정이유

- 새 정부 출범 이후 기금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보다 엄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 지원여부 결정
- 민간단체에 대한 기금지원 기준을 제도화함으로써 정책적 일관성 유지 및 투명성 확보

○ 주요내용

- 기금지원 기준 구체화
 - 1개 단체에 연 1회 지원을 원칙(정책적 지원은 예외)
 - 기금의 목적 외 사용자, 교류협력법상 형사 제재자, 기금신청일로부터 1년 내 교류협력질서 위반자 등 지원 대상 제외
 - 지원대상사업 선정 기준 명시
 - ※ 우선지원사업 : 방남·초청경비, 국제행사참여 등 정책사업
 - ※ 지원제외사업 : 중복사업, 단순 일회성·이벤트성 행사, 정치적 행사 등
 - 대북지원 승인금액에 대한 변경사용 가능비율 축소 : 30%→20%
- 예외 취급시 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 의무화
 - 상기 지원대상, 지원한도, 자금의 집행 및 사용 등을 달리 정하는 경우 교추협 의결 의무화

2.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

(통일부고시 제2008-8호, 2008. 11. 28)

○ 개정이유

- 새 정부 출범 이후 기금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보다 엄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 지원여부 결정

- 민간단체에 대한 기금지원 기준을 제도화함으로써 정책적 일관성 유지 및 투명성 확보

○ 주요내용

- 기금지원 기준 구체화
 - 1개 단체에 연 1회 지원 원칙(정책적 지원은 예외)
 - 지원대상사업 선정 기준 명시
 - ※ 우선지원사업 : 농업생산성 향상, 보건·의료, 사회복지 분야, 북한인력개발 지원, 분배투명성 확보 등 정책사업
 - ※ 지원제외사업 : 중복지원, 경제적 이익 목적 사업, 단순 일회적 지원, 단체 행사에 부수한 지원 등
- 협력기금사용결과보고 제도화
 - 대북지원자금사용보고서 서식 표준화

3.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개정, 고시

(통일부고시 제2008-9호, 2008. 12. 31)

○ 주요내용

- 지원절차, 기금집행, 결과보고 등 공통사항을 별도 규정으로 정비 (제8조~제11조)
- 「기금관리심의회위원회」 설치근거 명문화(제12조)
- 「교역·경협보험」 제도 운영방식 변경(제21조~제28조)
- 대출 예외취급 사항 구체화(제36조)
- 민원처리기간 현실화(제62조)
- 기금법 시행령·규칙 개정사항 반영 등

4. 「경제협력사업 손실보조 취급기준」 개정, 고시

(통일부고시 제2008-10호, 2008. 12. 31)

○ 주요내용

- 취급기준 명칭 변경: 「경제협력사업 손실보조 취급기준」 →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 보험계약 연장기간 축소(제8조): 보험기간 연장단위를 축소(10년→5년)하여 보험계약자의 보험해지 부담 완화
- 보험료율 조정근거 마련(제10조): 교추협 의결을 통해 보험료율(0.5%~0.8%)을 조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중소기업 할인율(25%) 유지

- 보험계약 변경사항 세분화 등(제19조): 보험계약 변경사항을 세분화하여 중요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승인하고 경미한 사항은 기금수탁관리자가 취급

5. 「교역손실보조 취급기준」 개정, 고시

(통일부고시 제2008-11호, 2008. 12. 31)

○ 주요 내용

- 취급기준 명칭 변경: 「교역손실보조 취급기준」 → 「교역보험 취급기준」
- 교역보험의 신용위험 담보 삭제: 교역보험 가입 기업이 북측상대방의 신용위험 발생 시 현실적으로 사고조사 곤란하고 그 동안 신용위험 가입실적도 전무
- ※ 교역보험에서 신용위험 가입실적(2004년 이후) : 30 건 중 전무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¹⁾

표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1995.9~2008.12

구 분	목 표 (만달러)	실 적 ¹⁾ (만달러)	실적율 (%)	국가별 지원액 (만 달러)
1차 '95.9~'96.6	2,032	927	45.6	미국 222.5, 일본 50, EU 38 등
2차 '96.7~'97.3	4,364	3,439	78.8	EU 860, 미국 717, 일본 600, 한국 335 등
3차 '97.4~12	18,439	15,838	85.9	미국 4,537, EU 2,752, 일본 2,700, 한국 2,533 등
4차 '98.1~12	38,324	21,587	56.3	미국 17,185, 한국 1,087, EU 953, 덴마크 357, 캐나다 354, 노르웨이 304, 스웨덴 279, 호주 130 등
5차 '99.1~12	29,208	18,989	65.0	미국 16,070, EU 798, 스웨덴 383, 캐나다 340, 노르웨이 232, 호주 228, 덴마크 195, 핀란드 72 등
6차 '00.1~12	31,376	15,310	48.8	일본 9,566, 미국 2,923, 호주 666, EU 478, 스웨덴 280, 노르웨이 229, 캐나다 171, 덴마크 151, 핀란드 113 등
7차 '01.1~12	38,398	24,797	63.5	일본 10,489, 미국 10,270, 한국 1,579, 이탈리아 708, 독일 291, 호주 289, 스웨덴 244, 스위스 222, 노르웨이 189 등
8차 '02.1~12	24,684	22,001	89.1	미국 6,349, 한국 1,624, EU 947, 호주 339, 캐나다 245, 스웨덴 228, 영국 171, 노르웨이 144, 독일 135, 덴마크 101 등
9차 '03.1~12	22,937	13,310	58.0	미국 3,152, 한국 1,683, EU 1,602, 러시아 1,000, 이탈리아 652, 캐나다 437, 스웨덴 407, 독일 323, 노르웨이 284 등
10차 '04.1~12	20,880	15,158	72.6	일본 4,660, 한국 2,509, 미국 1,906, EU 1,557, 스웨덴 910, 호주 797, 캐나다 477, 독일 426, 이탈리아 403 등
'05.1~12 ²⁾	-	4,523	-	유럽연합 1,322, 독일 777, 스웨덴 549, 이집트 388, 노르웨이 324, 핀란드 291, 네덜란드 132, 캐나다 132, 한국 107 등
'06.1~12 ²⁾	-	1,915	-	한국 728, 스웨덴 498, 노르웨이 2,21, 호주 78, 아일랜드 70, 덴마크 69, 네덜란드 65, 독일 63, 핀란드 59 등
'07.1~12 ³⁾	-	9,966	-	한국 2,437, 유엔긴급지원자금 1,110, 호주 585, 스웨덴 532, 독일 506, 유럽연합 398, 이탈리아 377, 노르웨이 335 등
'08.1~12	-	4,358	-	한국 1,149, 독일 499, 스위스 430, 스웨덴 415, 이탈리아 370, 유엔긴급지원자금 340, 노르웨이 309, 네덜란드 202 등
총 계	-	172,119	-	

주: 1) 유엔인도지원사무국(UNOCHA)이 발표하는 Financial Tracking Database 자료에 나타난 실적이며 실제 지원된 금액만을 집계한 것임.

2) 2005년부터 유엔합동호소에 의한 통합지원은 폐지되고 개별지원으로 전환됨.

3) 긴급수해복구 지원도 포함.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Dec. 31, 2008)

표 2 2008년도 지원창구별 대북 지원 실적 (2008.1.1~12.31)

지원창구	지원국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쌍방지원	이탈리아	366,032	재난민 지원(AID 8704/01/0)
CONCERN	아일랜드	1,190,322	보건 및 위생 증진을 위한 식수시설 개선사업 (CON 08 03)
	스웨덴	315,623	재난지역 인도적 지원
		소 계 1,505,945	
여러 창구	노르웨이	68,728	정신적 능력 배양(PRK 1083347)
DRK, ICRC, IFRC	덴마크	835,322	국제지원 (46.H.7-1-164)
FAO	네덜란드	909,798	환경보전형 이모작 감자 생산
	유엔긴급기금	599,869	보리 및 채소 생산 지원
	이탈리아	219,619	농업부문 지원
		소계 1,729,286	
German Agro Action	독일	3,374,806	A: 식량이용 증대를 위한 취로사업 B: 식량안보와 과수재배
독일적십자사	독일	443,787	의약품 지원 (VN05 321.50 PRK 01/08)
네덜란드적십자사	네덜란드	1,111,635	농촌지역 보건 증진을 위한 인도지원 (DMV0103809)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	스웨덴	419,460	ICRC를 통한 인도적 지원
국제적십자연맹 (IFRC)	캐나다	201,410	재난관리, 보건 등 (M-012774)
Nordic Institute of Asian Studies	노르웨이	19,763	사회복지, 경제개발-교육정책, 행정에 관한 워크숍
노르웨이적십자사	노르웨이	2,173,913	보건 및 질병예방
PMU Interlife	스웨덴	1,243,709	인도적 지원
Premiere Urgence	스웨덴	664,470	재난지역 인도적 지원
	프랑스	250,378	2008년 수해지역 인도적 지원
		소 계 914,848	
개인 및 단체	체코	170,213	2008년 수해지역 사과묘목 44,500 그루 지원
Psykisk Helsevern Østfold HF v/Norum	노르웨이	1,538	정신의학 프로젝트 연구
Save the Children(영국)	스웨덴	348,847	재난지역 인도적 지원

지원창구	지원국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UNICEF	이탈리아	1,399,689	긴급보건지원
	캐나다	201,410	2008년 UNICEF 실행계획(M-012775)
	유엔긴급기금	540,914	5세 이하 어린이 급성영양실조 경감
	유엔긴급기금	500,007	어린이 질병 감소
	소 계	2,642,020	
UNPF	유엔긴급기금	350,008	취약지역 모성보건 지원사업
스웨덴적십자사	스웨덴	1,162,823	재난지역 인도적 지원(보건의료)
TGH	프랑스	439,239	금성 간척지 복구를 위한 취로사업
WFP	이탈리아	777,605	취약 주민 식량지원
	노르웨이	395,257	식량안보 평가 지원
	스위스	1,066,667	스위스 낙농제품 지원
	스위스	1,738,807	스위스 낙농제품 지원(2009년)
	룩셈부르크	311,042	취약자 식량지원
	캐나다	1,934,236	식량지원(M-012909)
	독일	1,168,224	PRRO(옥수수 1,604톤, 콩 470톤)
	덴마크	866,584	WFP 긴급지원
	에스토니아	41,385	인도지원
	스위스	877,173	수해피해주민 인도지원
	스위스	617,504	스위스 낙농품 지원
	소 계	9,794,484	
WHO	노르웨이	375,490	북한 주민 인도지원
	노르웨이	58,302	수해복구 지원 (PRK 0183052)
	한국	10,270,000	여성 및 어린이 건강 증진(2008-2010)
	한국	1,220,249	말라리아 방제
	이탈리아	933,125	강원도 보건증진사업
	유엔긴급기금	550,000	양강도 및 함경북도 어린이 구제사업
	유엔긴급기금	857,256	어린이 긴급구제사업
	소 계	14,264,422	
합 계		43,582,238	

주: 지원액은 북한에 이미 전달되었거나(contributed) 상당히 구체화된(committed) 액수를 모두 포함함.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Dec. 31, 2008)

표 3 2008년도 분야별 대북 지원 실적 (2008.1.1~12.31)

분 야	지원국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농업	네덜란드	FAO	909,798	환경보전형 이모작 감자 생산
	독일	GAA	3,374,806	A: 식량이용 증대를 위한 취로사업 B: 식량안보와 과수재배
	체코	개인 및 단체	170,213	2008년 수해지역 사과묘목 지원
	이탈리아	FAO	219,619	농업부문 지원
	CERF	FAO	599,869	보리 및 채소 생산 지원
			소계 5,274,305	
경제회 복 및 사회간 접자본	노르웨이	Nordic Institute of Asian Studies	19,763	사회복지, 경제개발-교육정책, 행정에 관한 워크숍
식량	노르웨이	WFP	395,257	식량안보 평가 지원
	스위스	WFP	1,066,667	스위스 낙농제품 지원
	스위스	WFP	1,738,807	스위스 낙농제품 지원(2009년)
	스위스	WFP	777,605	취약 주민 식량지원
	스위스	WFP	877,173	수해피해 주민 긴급지원
	이탈리아	WFP	617,504	스위스 낙농제품 지원
	독일	WFP	1,168,224	PRRO 10488.0(취약주민 식량지원)
	덴마크	WFP	866,584	WFP 긴급지원
	프랑스	WFP	439,239	금성 간척지 복구를 위한 취로사업
	에스토니아	WFP	41,385	인도지원
	룩셈부르크	WFP	311,042	취약자 식량지원
	캐나다	WFP	1,934,236	식량지원(M-012909)
			소계 3,978,336	
보건	이탈리아	UNICEF	1,399,689	긴급보건지원
	이탈리아	WHO	933,125	강원도 보건증진사업
	노르웨이	WHO	58,302	수해복구 지원 (PRK 0183052)
	노르웨이	PHØH	1,538	정신의학 프로젝트 연구
	노르웨이	여러 창구	68,728	정신적 능력 배양(PRK 1083347)
	스웨덴	스웨덴적십자	1,162,823	재난지역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
	프랑스	Premiere Urgence	250,378	2008년 수해지역 인도적 지원
	독일	독일적십자	443,787	의약품 지원
	한국	WHO	10,270,000	여성 및 어린이 건강증진 3개년 사업
	한국	WHO	1,220,249	말라리아 방제사업
	네덜란드	네덜란드적십자	1,111,635	농촌지역 보건 증진을 위한 인도지원 (DMV0103809)
	CERF	UNICEF	540,914	5세 이하 어린이 급성영양실조 경감
	CERF	UNICEF	500,007	어린이 질병 감소
	CERF	UNPF	350,008	취약지역 모성보건 지원사업
	CERF	WHO	550,000	양강도 및 함경북도 어린이 구제사업
	CERF	WHO	857,256	어린이 긴급구제사업
			소계 19,718,439	

분 야	지원국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다부문	스웨덴	CONCERN	315,623	재난지역 인도적 지원
	스웨덴	Premiere Urgence	664,470	재난지역 인도적 지원
	스웨덴	ICRC	419,460	ICRC를 통한 인도적 지원
	스웨덴	Save the Children(영국)	348,847	재난지역 인도적 지원
	스웨덴	PMU Interlife	1,243,709	지난지역 인도적 지원
	캐나다	IFRC	201,410	재난관리, 보건 등(M-012774)
	캐나다	UNICEF	201,410	2008년 UNICEF 실행계획(M-012775)
	노르웨이	WHO	375,490	북한주민 인도적 지원
	노르웨이	노르웨이적십자	2,173,913	PRK 1083272(보건 및 질병예방)
	덴마크	ICRC, IFRC	835,322	국제지원
	이탈리아	양자 지원	366,032	피해주민 지원
			소계 7,145,686	
식수 위생	아일랜드	CONCERN	1,190,322	보건 및 위생 증진을 위한 식수시설 개선사업(CON 08 03)
합 계			43,582,238	

주: 지원액은 북한에 이미 전달되었거나(contributed) 상당히 구체화된(committed) 액수를 모두 포함함.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Dec. 31, 2008)

표 4 2008년도 원조국별 대북 지원 실적 (2008.1.1~12.31)

지원국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캐나다	UNICEF	201,410	2008년 UNICEF 실행계획(M-012775) 재난관리, 보건 등(M-012774) 식량지원(M-012909)
	IFRC	201,410	
	WFP	1,934,236	
	소계	2,337,056	
체코	개인 및 단체	170,213	2008년 수해지역 사과묘목 44,500그루 지원
	소계	170,213	
덴마크	DRK, ICRC, IFRC	835,322	국제지원 WFP 긴급지원
	WFP	866,584	
	소계	1,701,906	
프랑스	Premiere Urgence	250,378	2008년 수해지역 인도적 지원 금성 간척지 복구를 위한 취로사업
	TGH	439,239	
	소계	689,617	
독일	독일적십자사	443,787	의약품 지원 (VN05 321.50 PRK 01/08) A: 식량이용 증대를 위한 취로사업 B: 식량안보와 과수재배 PRRO 10488.0 (옥수수 및 콩 지원)
	GAA	3,374,806	
	WFP	1,168,224	
	소계	4,986,817	
아일랜드	CONCERN	1,190,322	보건 및 위생 증진을 위한 식수시설 개선사업 (CON 08 03)
	소계	1,190,322	
이탈리아	WFP	777,605	북한주민 지원 (DPRK PRRO 10488.0) 긴급보건지원 긴급보건지원 농업부문지원 피해주민 지원
	UNICEF	1,399,689	
	WHO	933,126	
	FAO	219,619	
	양자 지원	366,032	
	소계	3,696,070	
룩셈부르크	WFP	311,042	취약계층 식량지원
	소계	311,042	
네덜란드	FAO	909,798	환경보전형 이모작 감자 생산 농촌지역 보건 증진을 위한 인도지원 (DMV0103809)
	네덜란드적십자사	1,111,635	
	소계	2,021,433	

지원국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스웨덴	Save the Children	348,847	재난지역 인도적 지원
	스웨덴 적십자사	1,162,823	재난지역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
	CONCERN	315,623	재난지역 인도적 지원
	ICRC	419,460	ICRC를 통한 재난지역 인도적 지원
	Premiere Urgence	664,470	재난지역 인도적 지원
	PMU-Interlife	1,243,709	재난지역 인도적 지원
	소계	4,154,932	
노르웨이	WHO	58,302	수해복구 지원 (PRK 1083052)
	WFP	395,257	식량안보 평가 지원 (PRK 1083273)
	WHO	375,490	북한주민 인도적 지원
	PHØH	1,538	정신의학 프로젝트 연구
	노르웨이 적십자사	2,173,913	PRK 1083272/보건 및 질병예방
	Nordic Institute of Asian Studies	19,763	사회복지, 경제개발-교육정책, 행정에 관한 워크숍
	여러 창구 소계	68,728 3,092,991	PRK 1083347/정신적 능력배양
스위스	WFP	1,066,667	스위스 낙농제품 지원
	WFP	1,738,807	스위스 낙농제품 지원(2009년)
	WFP	877,173	수해피해 주민 긴급지원
	WFP	617,504	스위스 낙농제품 지원
	소계	2,805,474	
에스토니아	WFP	41,385	인도지원
	소계	41,385	
한국	WHO	10,270,000	여성 및 어린이 건강 증진(2008-2010)
	WHO	1,220,249	말라리아 방제
	소계	11,490,249	
유엔긴급기금(CERF)	UNICEF	540,914	5세 이하 어린이 급성영양실조 경감
	WHO	550,000	양강도 및 함경북도 어린이 구제사업
	FAO	599,869	보리 및 채소 생산 지원
	WHO	857,256	어린이 긴급구제사업
	UNPF	350,008	취약지역 모성보건 지원사업
	UNICEF	500,007	어린이 질병 감소
	소계	3,398,054	
합 계		43,582,238	

주: 지원액은 북한에 이미 전달되었거나(contributed) 상당히 구체화된(committed) 액수를 모두 포함함.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Dec. 31, 2008)

2.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단체 동향

가. 유엔기구

□ FAO/WFP, 2008년 북한의 곡물 작황 평가보고서

-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은 2004년 이후 중단되었던 북한의 곡물 작황 평가를 재개함.
 - FAO와 WFP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북한의 곡물 작황 평가보고서를 발표하였으나 2005년부터는 북한 당국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작황 평가 작업을 중단하였음.
 - 2008년 미국이 WFP를 통해 북한에 대규모 식량 지원을 추진함에 따라 북한 당국은 2008년산 곡물의 작황 평가단 방문을 허용하게 됨.
- FAO와 WFP는 2008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을 정곡 기준 334만 톤(조곡 기준 421만 톤)으로 추정함.
 - 곡물 생산량에는 감자, 텃밭, 경사지 밭의 곡물 생산량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 이로써 3년 연속으로 곡물 생산량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음.
 - 좋은 기상여건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작황이 좋지 않은 것은 비료와 농기계 연료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지적됨.
- FAO와 WFP는 2009년 북한이 외부로부터 조달해야 할 식량은 179만 톤이며 50만 톤의 곡물 수입과 45만 톤의 국제사회 지원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836,000톤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함.
 - 이 때문에 전 국민의 37%인 874만 명의 취약계층이 외부로부터 기본 식량을 지원 받아야 할 상황임.

자료: FAO and WFP, Special Report: 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ec. 8, 2008)

□ WFP, 북 대부분 지역에서 식량배급 중단

- 세계식량계획(WFP)의 리즐리 대변인은 WFP가 2008년 10월까지의 북한 지역에 정상적으로 식량을 배급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나눠줄 식량이 없어 활동을 중단한 상태라고 밝힘.
- WFP는 2009년 11월말까지 진행할 대북 긴급 식량구호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5억 300여만 달러를 모금할 목표를 세웠지만 2009년 1월 7일까지 목표액의 3.8%인 1,926만 여 달러를 모금하는데 그쳤음.
- 미국 정부는 북한에 지원할 식량 50만 톤 가운데 40만 톤을 WFP를 통해 배분할 방침이었으나 식량 분배 상황을 감시하는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2008년 9월 이후 WFP에 대한 대북 지원용 식량을 배정하지 않고 있음.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WFP, 北 대부분 지역에서 식량배급 중단,” 2009. 1. 13)

□ UNDP, 대북 사업 재개 최종 승인

- 유엔개발계획(UNDP) 집행이사회는 2009년 제1차 정례회의에서 대북 사업 재개를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결정문을 채택함으로써 늦어도 금년 상반기 중에는 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며 3월 초쯤에는 사무소가 문을 열게 될 것으로 예상됨.
- UNDP는 자금 전용 의혹을 받아 2007년 3월부터 사업을 중단하였으며 5월에는 북한사무소도 폐쇄하였음.
- UNDP의 대북 사업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북한 사업에 대한 독립적 회계감사, 경화 지급 방식 변경, 북한 현지 직원 선발 절차 개선, 사업내용 조정 등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집행이사회는 이들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판단하여 사업재개를 승인함.
- UNDP가 다시 북한에 들어가게 되면 현재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금(UNICEF) 등 유엔기구들에 대한 총괄 조정기능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음.
- UNDP는 1981년부터 북한의 농경지 복구, 인적자원 개발, 경제개혁 지원 등 다양한 개발지원사업을 추진하였음.

- UNDP의 대북 사업이 재개되더라도 앞으로는 인도적 지원에 국한하여 추진될 예정이다.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UNDP 대북한 사업 재개 최종 승인,” 2009. 1. 23)

□ CERF 고위급 회의 개최

- 유엔긴급지원기금(Central Emergency Responss Fund) 고위급 연차회의가 12월 4일 유엔경제사회이사회 본부에서 개최됨.
 - 이번 회의는 기금의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음.
 - 2006년 총회에서는 연간 기금 지원 목표를 4억 5,000만 달러로 설정한 바 있음.
 - 2008년 CERF가 지불하거나 지불을 약속한 금액이 4억 3,228만 달러로 집계됨으로써 연간 목표에서 1,800만 달러가량 부족함.
- 2008년 10월의 기금 지원 실적 가운데는 북한도 포함되어 있음.
 - 최근 북한 주민의 영양가 다소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양실조 위험이 존재하고 있음.
 - 특히 동북부 지방이 취약하기 때문에 CERF는 20만 명의 임산부와 신생아의 영양 개선을 위해 WHO를 통해 85만 달러를 지원함.

자료: <http://www.cerf.un.org> (CERF, CERF News, Nov. 2008)

□ 북한, 유엔기구에 소액대출사업 재개 요청

-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유엔의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이 지난 1996년부터 2008년 6월까지 진행한 북한의 협동농장 주민을 위한 소액대출지원사업을 북한의 요청에 의해 2010년부터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힘.
 - 사업평가를 위해 북한을 방문한 IFAD의 가네쉬 다파 북한담당자는 지난 12년 동안 북한의 90,9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미화 50달러 미만의 소액대출을 지원해 왔으며 이를 통해 대출을 받은 협동농장 주민들은 대출금으로 돼지나 씨감자를 구입하여 예정보다 나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힘.

- IFAD의 소액대출 지원사업은 IFAD가 북한의 조선중앙은행에 자금을 지원하면 이 은행은 자체 자금을 더해 군 단위의 지방은행을 통해 선정된 협동농장과 주민에게 소액 자금을 대출해 주고, 이 돈을 받은 농장과 주민들은 가축이나 영농기구를 마련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킨 후 잉여 가축이나 식량을 팔아 지방은행에 자금을 갚는 방식으로 사업이 운용됨.
- IFAD는 지난 12년 간 북한의 잠업개발사업(1996~2002), 축산복구지원사업(1997~2003), 산간지대 식량안보사업(2001~2008) 등에 총 6,910만 달러의 자금을 10년 거치 40년 상환, 수수로 0.75%의 조건으로 자금을 대출해주었음.
- IFAD의 직원은 정기적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WFP나 FAO 직원의 도움을 받아 감시 활동을 펴고 있음.
- IFAD 이외에도 호주의 마라나타 신탁회사가 2004년부터 북한 재무성과 합작으로 ‘조선-마라나타’은행을 설립하여 북한의 공장과 기업, 일반 주민에게 자금을 대출하고 있으며 미국의 소액 대출 민간단체인 ‘키바(KIVA)’도 대북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북한 당국과의 합작 없이 민간차원의 대출사업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북한 진출을 미루고 있음.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北, 유엔기구에 소액대출사업 재개 요청,” 2008. 12. 12)

나. 개별국가 및 비정부기구

□ 호주 정부, 북한에 375만 달러 지원

- 호주의 스테판 스미스 외무장관은 북한 주민에게 375만 달러의 인도지원을 제공한다고 발표함.
- 북한 주민의 40%가 이번 겨울에 충분한 식량을 섭취하지 못할 것이라는 FAO와 WFP의 보고에 따라 호주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 지원을 결정함.
- 이로써 호주 정부는 2008-09년 동안 북한에 총 675만 달러의 인도지원을 하게 되는 셈임.
- 호주의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사용될 계획임.

- WFP가 추진하는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식량지원을 위해 200만 달러
- UNICEF가 20,000명의 주민에게 제공할 물과 위생 프로그램에 100만 달러
- 나머지 75만 달러는 국제적십자연맹이 추진하는 물과 위생 프로그램, 재난 관리 및 경감 프로그램에 사용됨.

자료: <http://www.reliefweb.int> (Government of Australia, Humanitarian assistance for North Korea, Jan. 13, 2009)

□ 미국의 지원 식량, 1월 두 번째 주에 북한 도착 예정

- 미국 국무성은 미국의 식량 수송선이 1월 둘째 주 말쯤에 북한에 도착할 것이라고 발표함.
 - 총 21,000톤의 지원 식량을 선적한 수송선은 기상 상태가 좋지 않아 수송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1월 둘째 주 말쯤에는 북한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이번에 수송되는 식량은 미국의 민간단체가 분배하게 됨.
- 국무성 관계자는 지난해 약속한 대로 WFP를 통한 식량지원은 아직 중단되지 않았다고 언급함.
 - 2008년 5월 미국은 WFP를 통해 40만 톤, 미국 NGO를 통해 10만 톤의 식량을 2009년까지 북한에 지원하기로 공급 발표한 바 있으며 2008년 동안 143,000톤의 미국산 밀, 옥수수, 콩을 지원하였음.
 - 현재의 대북 식량지원계획은 미국의 국제개발청이 2000년 이후 북한에 처음 실시하는 원조사업임.
 - 현재 WFP의 대북 식량지원사업은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요원의 비자 발급 문제 등 기술적 문제 때문에 지원이 중단되고 있음.
 - 미국과 북한 사이의 합의 내용에는 대북 식량 지원을 위한 WFP와 미국 NGO의 요원의 한국어를 구사 능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약이 없음.

자료: <http://www.reliefweb.int> (AFP, US food aid due in NKorea this week, Jan. 7, 2009)

□ 미국과 WFP, 식량분배 감시 한국어요원 수 이견

-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는 미국 정부와 세계식량계획이 북한에 지원하는 식

량의 분배 감시활동을 위해 한국어를 구사하는 요원의 숫자를 놓고 미국과 북한이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전함.

- 미국은 대북 식량지원의 조건으로 한국어 구사 요원의 규모를 놓고 협의 중이나 진통을 겪고 있다고 손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이 밝힘.
- WFP의 폴 리슬리 아시아사무소 대변인은 한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요원이 식량 전달 과정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긴급 인도지원사업에서 한국어 구사 요원의 유무는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말함.
- 미국의 NGO 관계자는 WFP에는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요원이 거의 없지만 NGO에는 감시 요원 16명 가운데 한국계 미국인과 한국어를 배운 요원 등 적어도 6명이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다고 설명함.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美·WFP, 식량분배 감시 한국어요원 수 이견,” 2009. 1. 6)

□ 미국의 대북 지원식량 6차분 남포 도착

- 미국의 대북 지원식량 50만 톤 중 6번째 선적분인 옥수수 21,000톤이 2009년 1월 8일 북한 남포항에 도착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함.
 - 미국 국적선 ‘이스턴 스타’호가 남포항에 도착하여 하역작업이 진행 중임.
 - 이번 선적분은 당초 1월 3일 북한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기상 상태가 좋지 않아 도착이 지연되었음.
- 미국의 대북 지원식량 50만 톤 중 10만 톤은 머시코, 월드비전, 사마리탄스 퍼스, 글로벌 리소스 서비스, 조선의 그리스도인벧들 등 5개 미국 NGO들이 평안북도와 자강도의 25개 군에서 분배를 담당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 미국은 2008년 6월부터 지금까지 북한에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옥수수, 밀, 콩 등 미국산 곡물 143,330톤을 전달함.
 - 이 중 45,260톤은 NGO를 통해 분배하고 나머지 98,070톤은 WFP를 통해 평양, 평안북도, 황해남북도, 함경남북도, 강원도, 량강도 등 8개 지역에 분배함.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美 대북 지원식량 6차분 남포 도착,” 2009. 1. 10)

□ 북한 나진에 태양열 온실 시범 건설

- 국제기술지원(EMI)라는 국제 개발지원봉사 단체가 2008년 북한의 함경남도 나진에 태양열 온실을 건설하여 50여 명의 주민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감자, 가지, 토마토, 오이, 배추 등 다양한 채소를 연중 재배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함.
- 가로 8m, 세로 22.6m의 온실은 전력이 필요 없으므로 겨울에도 작물 재배가 가능하도록 고안된 것으로 나진의 한 마을에 시범적으로 건설됨.
- 온실 건설에 참여한 미국인 토목기술자 님 웬크씨는 자신이 본 북한의 사회, 경제상이 40여 년 전 자신이 머물렀던 태국의 시골마을보다 열악했다고 밝힘.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北 나진에 태양열 온실 시범 건설,” 2009. 1. 2)

□ 대북 식량지원 9년 만에 제로

- 2008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정부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게 됨.
- 정부는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 무상으로 쌀 15만 5천 톤을 북한에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며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2001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였음.
- 1996년부터 시작된 국제기구를 통한 식량지원도 1999, 2000, 2006년을 제외하고 매년 추진되었음.
- 이에 따라 2008년분으로 1,974억 원을 책정했던 대북 쌀 지원 예산은 전혀 사용되지 않았으며 2008년에는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간접 식량지원도 무산됨.
- 정부는 지금까지 차관으로 제공하던 대북 식량 지원을 2009년부터 무상지원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쌀 40만 톤 지원 예산으로 3,520억 원, 이와는 별도로 비료 30만 톤 지원 예산으로 2,917억 원을 각각 2009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용계획에 반영하고 있으나 현재로는 집행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움.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대북 식량지원 9년 만에 ‘제로,’” 2008. 12. 28)

□ 에스토니아 정부, 북한에 50만 크룬(32,000 유로) 지원

- 에스토니아 정부는 WFP를 통해 50만 크룬(32,000 유로)를 북한 주민에게 지원할 계획임.
 - 에스토니아 외무부 장관은 향후 몇 달 동안 북한의 870만 명에 달하는 주민이 긴급하게 식량 지원을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지원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함.
- WFP는 2009년 10월 수확기까지 900만 명의 주민에게 80만 톤의 지원 식량이 필요로 하다고 추정하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일주일에 800만 달러가 필요함.

자료: <http://www.reliefweb.int> (Government of Estonia, Estonia helps the needy in North Korea with 500,000 Kroons, Dec. 11, 2008)

□ 북한 당국의 경사지 농사 금지 조치로 기아 증대 우려

- 한국의 한 대북 민간지원단체 관계자는 북한이 경사지 농사를 금지할 경우 북한 주민의 식량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함.
 - 북한 당국은 2008년 9월 29일 2012년까지 모든 산에 대한 조림을 완료한다는 정책 강령을 발표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최근 경사지 농사를 금지하는 조치가 증가하고 있음.
 - 북한 당국은 홍수 발생의 주된 원인을 땀감의 채취나 농경지 확장을 위한 무차별 벌채로 돌리고 있으나 집단농장을 강요하는 정책은 식량부족의 원인이 되고 있음.
- 북한 당국의 경사지 농사 금지 조치는 장기적으로 필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북한주민의 식량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

자료: <http://www.reliefweb.int> (AFP, NKorea plan to ban hillside farms will increase hunger: aid group, Nov. 10, 2008)

□ 한국 정부, ‘통일쌀’ 대북 반출 승인

- 한국 정부는 2009년 1월 9일 민간단체가 대북지원 차원에서 추진하는 ‘통일쌀’ 지

원사업을 승인함.

-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농민본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북 쌀 지원 사업과 관련, 8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승인했다.”고 밝힘.
 - 6.15농민본부 등은 경기, 강원 등 8개 도에서 회원이 직접 재배하거나 민주노총 모금을 통해 구입하는 방법으로 162톤(4,313가마)의 ‘통일쌀’을 확보하고 이를 1월 9일 인천-남포 항로를 통해 북한에 지원할 예정임.
 -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2007년부터 북한에 ‘통일쌀’ 보내기 운동을 펼쳐오고 있음.
-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은 도내에서 수확한 쌀과 도민의 성금으로 마련한 쌀 12톤을 북한에 보낼 예정임.
- 전농 충북연맹은 ‘통일쌀’ 40kg짜리 301포대를 인천항을 통해 북한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힘.
- 전농 강원도연맹은 1월 7일 오후 강원도청 앞에서 회견을 갖고 전농이 오는 1월 9일 통일쌀 174톤을 북한에 보낼 것이라고 밝힘.
- 전농 강원도연맹은 2008년 ‘통일쌀 짓기 강원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춘천, 홍천, 횡성 등 도내 3개 지역에서 쌀 2.5톤을 수확하였음.
- 창녕군농민회는 1월 6일 오후 창녕군청 앞에서 ‘통일시대젊은벗’과 부산민주항쟁 기념사업회와 함께 2008년 통일쌀 환송대회를 개최함.
- 창녕군농민회는 2008년 창녕군과 창녕공무원노조 등의 지원을 받아 창녕군 도천면과 대합면 일대에서 통일쌀 2톤을 생산함.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정부, ‘통일쌀’ 대북반출 승인,” 2009. 1. 9)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충북전농, 쌀 12t 北에 보낸다,” 2009. 1. 8)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전농 강원연맹, 통일쌀 174t 北에 보낸다,” 2009. 1. 7)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창녕군농민회, ‘통일쌀’ 2t 北에 보낸다,” 2009. 1. 6)

□ 미국의 대북 지원식량 6차분 남포 도착

- 미국의 대북 지원식량 50만 톤 중 6번째 선적분인 옥수수 21,000톤이 2009년 1월 8일 북한 남포항에 도착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함.
 - 미국 국적선 ‘이스턴 스타’호가 남포항에 도착하여 하역작업이 진행 중임.
 - 이번 선적분은 당초 1월 3일 북한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기상 상태가 좋지 않아 도착이 지연되었음.
- 미국의 대북 지원식량 50만 톤 중 10만 톤은 머시코, 월드비전, 사마리탄스 퍼스, 글로벌 리소스 서비스, 조선의 그리스도인벧들 등 5개 미국 NGO들이 평안북도와 자강도의 25개 군에서 분배를 담당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 미국은 2008년 6월부터 지금까지 북한에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옥수수, 밀, 콩 등 미국산 곡물 143,330톤을 전달함.
 - 이 중 45,260톤은 NGO를 통해 분배하고 나머지 98,070톤은 WFP를 통해 평양, 평안북도, 황해남북도, 함경남북도, 강원도, 량강도 등 8개 지역에 분배함.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美 대북 지원식량 6차분 남포 도착,” 2009. 1. 10)

□ 미국의 대북 지원식량 7차분 2009년 1월 북한에 도착

- 미국 정부가 북한에 지원하는 식량 50만 톤 중 7번째 선적분인 4,940톤이 2009년 1월 중순께 북한에 도착한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함.
- VOA는 한 NGO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2009년 1월 19일까지 옥수수와 콩 혼합물, 식용유가 남포항에 도착될 예정이며 이번에도 미국의 5개 NGO가 분배를 담당한다고 밝힘.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美 대북 지원식량 6차분 남포 도착,” 2009. 1. 10)

□ 경기도, 2009년 대북사업 2008년과 같은 규모

- 경기도는 북한측이 수용한다면 2009년 대북 지원사업을 2008년과 비슷한 규모로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힘.
- 경기도는 2008년 대북 지원사업에 60억원 가량을 투입함.
- 경기도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 대북 지원사업은 개성성 개풍의 양묘장 운영과 말라리아 공동방역, 벼농사 자재공급사업 등임.
- 이 중 개풍 양묘장사업은 2008년 5ha의 면적에서 묘목 100만 그루를 생산하였으나 2009년에는 이를 9ha, 150만 그루까지 늘릴 계획임.
- 임진강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는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공동방역사업도 북한측과 협의하여 약품 등의 지원 물량을 결정할 계획이지만 2009년에도 2008년과 비슷한 규모로 지원할 계획임.
- 경기도는 벼농사 기술 전수 차원에서 2006년 평양 인근 마을에서 벼농사 남북공동사업을 벌였으나 2008년에는 북한측의 요청에 따라 자재만 공급하였음.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경기도 내년 대북사업 올해와 같은 규모,” 2008. 12. 24)

□ 월드비전-북한 농업과학원 ‘감자혁명’ 성과

- 12월 18일부터 평양 보통강호텔 회의장에서 개최된 제8차 남북 농업과학 심포지엄에서 남북한의 농업 과학자들은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북한에서 ‘감자혁명’을 통해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
- 월드비전은 2000년 3월 북한의 농업과학원과 씨감자 생산사업 실무합의서를 체결하고 조직배양기술과 수경재배에 의한 씨감자 생산기술, 병해충 방제기술, 채종 및 증식기술 협력사업을 추진함.
- 이를 통해 월드비전과 북한 과학원은 평양을 비롯하여 량강도 대홍단군, 평안북도 정주, 함경남도 함흥, 황해남도 배천 등 5개 지역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북한 전역에서 2008년 300만 톤의 감자를 생산하게 됨.
- 감자농사로부터 출발한 월드비전의 대북 농업지원사업은 이제 과수, 채소, 토양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
-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북한의 농업과학원 소속 연구자들과 남한의 농업전문가들은 함께 감자농사뿐만 아니라 채소, 과수, 육종, 종자, 토양 등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논의함.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월드비전-北농업과학원 ‘감자혁명’ 성과,” 2008. 12. 21)

□ 나주시 북한에 4년째 영농자재 지원

- 전남 나주시는 북한농민의 영농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겨울 영농자재인 비닐하우스 4채 분량과 경운기 5대를 북한의 강서농장에 전달함.
- 나주시는 지난 2005년부터 북한의 강서농장에 벼 못자리용 비닐 101톤을 지원하기 시작하여 2006년에는 집약식 육묘장 10채 건립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에는 육묘판 3만 개를 전달함.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나주시 4년째 북한에 영농자재 지원,” 2008. 12. 19)

□ 광주시 북한에 4년째 영농자재 지원

- (사)광주시남북교류협의회(상임공동대표 조철현)는 2008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하나로 평양시 인근 지역에 배합사료 생산공장 건설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힘.
- 배합사료 공장은 2008년 12월부터 2009년 5월까지 남북한이 공동으로 건설하며 남측은 자재와 사료배합기 등 기계설비를 지원하고 북측은 부지와 건물, 공사인력을 지원하게 됨.
- 2008년 10월에는 북한 수해지역 주택복구 지원사업으로 시멘트와 강재 10,024톤을 지원함.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광주시남북교류協, 북한에 사료공장 건설” 2008. 11. 6)

□ 구호단체 JTS, 북한에 밀가루 500톤 지원

- 국제구호단체인 JTS(이사장 법륜 스님)sms 북한 강원도 주민에게 긴급식량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8년 10월 31일 인천항을 통하여 밀가루 500톤(4억 원 상당)을 북한의 남포항으로 보냄.

- 25,000 포대의 밀가루는 11월 1일 남포항에 도착하여 강원도 원산시의 육아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어린이와 양로원 노인들에게 100톤, 법동군, 고산군, 통천군, 세포군 주민들에게 각각 100톤씩 전달될 예정임.
- JTS는 국내에서 2차례에 걸쳐 밀가루 700톤, 중국을 통해 국수 495톤을 북한에 보내 량강도, 함경북도, 평안북도, 황해북도, 강원도에 사는 어린이와 노인들에게 긴급 지원하였음.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구호단체 JTS, 北에 밀가루 500t 지원” 2008. 10. 31)

□ 제주 감귤 및 당근 1,300톤 북한에 전달

- 통일부는 사단법인 남북협력 제주도민운동본부가 제주 감귤과 당근 총 1,300톤을 2009년 1월 16~23일 북한에 보내기로 했다고 밝힘.
-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남북협력 제주도민운동본부는 감귤 300톤, 당근 1,000톤을 1월 16일부터 23일까지 북한에 전달할 계획이라며 사업규모는 약 6억 원(수송비 2억 5,800만 원 포함)이라고 소개함.
- 1998년부터 대북 감귤 및 당근 지원사업을 해온 제주도 측은 당초 2008년 12월에 30억 원 상당의 감귤 및 당근을 북한에 제공하기로 하고 정부에 수송비 20억 4,000만원을 지원해달라고 신청하였으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심의 과정에서 분배투명성에 대한 보장이 미비하다는 사유로 수송비 지원이 부결되자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한 가운데 중앙 정부의 지원없이 사업을 추진함.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제주감귤·당근 1천 300t 北에 전달(종합), 2009. 1. 12)

□ 제주도민, 평양에 제주흑돼지농장 지원

- 제주도와 남북협력 제주도민운동본부는 ‘남북 흑돼지 사육협력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양돈장 내부기자재 2억 2,000만원 상당을 2009년 1월 16일 북한에 보낸다고 밝힘.
- 제주도민운동본부는 평양시 사동구역 덕동리 평양돼지공장 분만사 3개동에 대한 내부기자재 및 제주흑돼지 공급지원사업을 진행하며 2009년 상반기중에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임.

- 이에 따라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단계로 제주흑돼지 농장이 설치될 평양 양돈장 1개동에 분만틀과 급이기, 사료통 등의 기자재를 보내 설치토록 한 후 4·5월게 wpwnsdrkemf이 기증한 흑돼지 100마리를 공급할 계획임.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평양에 제주흑돼지농장 만든다, 2009. 1. 15)

□ 영국 감리교단, 北식량난 지원

- 영국 감리교단은 북한의 겨울철 식량난을 덜기 위해 5,000유로를 지원하고 호주의 외교부는 375만 호주달러(미화 250만 달러)를 지원키로 결정함.
- 영국 감리교단의 지원금은 북한의 조선그리스도연맹이 운영하는 라면공장과 빵공장, 온실 관리 등에 쓰일 예정임.
- 한국 감리교단은 1월 29일 인천항을 통해 북한에 내북 약 6천벌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힘.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영국 감리교단, 北식량난 지원, 2009. 1. 15)

북중 고역 동향

1. 북한의 수입 동향

북한의 주요 곡물류 대중 수입 실적

품 목 HS코드	보 리 1003	옥수수 1005	쌀 1006	잡 곡 1007+1008	밀가루 1101	두 류 1201	합 계
수입액(천 달러)							
2007.11	0 (0)	2,880 (317)	1,570 (1,118)	164 (17)	3,527 (2,129)	840 (24)	8,981 (3,615)
12	0 (0)	1,758 (592)	7,217 (1,191)	164 (0)	5,350 (2,646)	72 (30)	14,561 (4,459)
2008. 1	0 (0)	547 (88)	3,707 (1,164)	0 (19)	1,770 (2,518)	674 (250)	6,698 (4,040)
2	0 (0)	6,875 (268)	2,976 (1,952)	2 (19)	0 (1,257)	1,331 (686)	11,184 (4,181)
3	160 (3)	4,300 (168)	38 (279)	0 (19)	0 (1,880)	7,166 (26)	11,665 (2,374)
4	0 (0)	0 (662)	0 (2)	0 (40)	0 (2,888)	97 (467)	97 (4,059)
5	0 (0)	0 (0)	0 (0)	0 (0)	0 (2,115)	166 (2,930)	166 (5,045)
6	0 (0)	11,504 (431)	0 (2,903)	0 (0)	0 (2,581)	0 (3,754)	11,504 (9,669)
7	0 (0)	4,410 (996)	0 (2,309)	0 (0)	0 (1,927)	0 (1,769)	4,410 (7,001)
8	0 (1)	0 (596)	0 (3,500)	30 (57)	0 (2,064)	38 (12)	68 (6,230)
9	0 (0)	0 (1,188)	0 (2,687)	73 (0)	0 (4,372)	1,037 (0)	1,110 (8,247)
10	0 (0)	0 (1,145)	0 (2,183)	0 (0)	0 (4,718)	438 (92)	438 (8,138)
합 계	160 (8)	32,275 (6,450)	15,508 (19,288)	433 (172)	10,647 (31,095)	11,860 (10,040)	70,882 (67,051)

수입량(천 톤)							
2007.11	0	14,400	5,065	364	13,565	1,424	34,818
	(0)	(2,113)	(3,855)	(57)	(10,138)	(62)	(16,225)
12	0	9,253	21,870	443	20,577	73	52,216
	(0)	(3,700)	(3,970)	(0)	(12,600)	(91)	(20,361)
2008. 1	0	2,605	11,233	0	6,556	1,087	21,481
	(0)	(550)	(3,880)	(0)	(10,948)	(658)	(16,036)
2	0	27,501	8,752	21	0	2,773	39,047
	(0)	(1,673)	(6,729)	(60)	(5,464)	(1,804)	(15,731)
3	390	15,927	99	0	0	14,930	31,346
	(13)	(985)	(845)	(60)	(8,173)	(71)	(10,147)
4	0	0	0	0	0	123	123
	(0)	(3,780)	(1)	(0)	(12,544)	(1,226)	(17,681)
5	0	0	0	0	0	210	210
	(0)	(0)	(0)	(0)	(8,956)	(9,912)	(18,868)
6	0	37,111	0	0	0	0	37,111
	(0)	(2,485)	(9,685)	(0)	(10,818)	(12,145)	(35,133)
7	0	14,227	0	0	0	0	14,227
	(0)	(5,174)	(7,593)	(0)	(8,111)	(5,942)	(26,820)
8	0	0	0	67	0	45	112
	(2)	(3,284)	(10,509)	(180)	(8,613)	(30)	(22,618)
9	0	0	0	150	0	1,140	1,290
	(0)	(6,346)	(8,187)	(0)	(17,218)	(0)	(31,751)
10	0	0	0	0	0	600	600
	(0)	(5,706)	(6,486)	(0)	(18,402)	(196)	(30,790)
합 계	390	121,259	46,966	1,045	40,518	22,443	232,621
	(28)	(35,845)	(61,723)	(553)	(131,992)	(32,155)	(262,296)

주: () 안은 전년 동기 실적임.

자료: <http://db.kita.net/>(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 북한은 2008 양곡연도(2007.11~2008.10) 동안 중국으로부터 232,621톤의 곡물류를 수입함으로써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수입이 11.3% 감소하였음.
- 그러나 국제곡물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수입액은 7,088만 달러로 전년 대비 5.7% 증가하였음.
- 2008 양곡연도 동안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곡물 수입량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수해로 인하여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곡물 수출

제한과 북한의 외환 부족 때문임.

- 북한은 2008년 4~10월 동안 옥수수과 두류를 제외한 나머지 곡물의 수입실적이 전무함.
 - 4~8월 동안 옥수수 수입 실적이 거의 없었으나 6~7월에는 큰 폭으로 늘어나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옥수수 수출 쿼터를 일시적으로 확대한 것으로 보임.
 - 4월 이후 콩 수입량이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9~10월에는 수입 크게 증가함.
 - 밀가루는 1월 이후 수입 실적이 전혀 없음.
- 북한은 2008 양곡연도 동안 중국에서 수입한 전체 곡물류 가운데 옥수수 수입량이 절반 이상을 차지함.
 - 2007 양곡연도의 경우 옥수수 수입량은 전체 곡물류 수입의 13.7%에 불과하였음.
 - 이처럼 옥수수 수입 비중이 증가한 것은 외환이 부족한 가운데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옥수수 수입을 대폭 늘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북한은 2007 양곡연도 동안 중국에서 132,000톤가량의 밀가루를 수입하였으나 2008 양곡연도에는 밀가루 수입량이 40,000톤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였음.
 - 이는 중국이 2008년에 밀가루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임.
- 북한은 2008 양곡연도 동안 중국에서 총 27,831톤의 화학비료를 수입하였으며 수입액은 1,166만 달러임.
 - 2007 양곡연도 동안의 수입량 69,875톤(수입액 1,101만 달러)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음.
 - 북한이 2007년과 2008 양곡연도 동안 중국으로부터의 비료 수입액은 비슷하나 수입량이 40% 수준으로 감소한 것은 비료가격의 상승에 기인함.
 - 2008년의 수입 단가는 톤당 419달러로 2007년의 157달러의 2.7배에 달함.
 - 2008년 전체 수입 비료의 98.7%는 요소 비료로 2007년과 유사한 경향을 보임.

농업자료

● 북한의 기상

북한의 기상

□ 기 온

- 2008년 10~12월의 기온은 평년에 비해 대체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음.
 - 10월 평균 기온은 11.9도로 평년에 비해 1.7도, 11월은 2.8도로 평년에 비해 0.3도, 12월은 -3.8도로 평년에 비해 0.8도 높았음.
 - 2008년의 경우 2월을 제외하고는 모든 달의 기온이 평년에 높았으며 특히 3, 4월은 평년에 비해 2도 이상 높았음.
- 수확기(9~10월)의 높은 기온은 벼의 등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벼의 작황 호조를 가져옴.

□ 강수량

- 2008년 10월의 강수량은 평년에 비해 높았으나 11~12월은 평년에 비해 낮았음.
 - 9월 강수량은 평년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여 옥수수의 수확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 하였으며 벼의 생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10월의 평균 강수량은 평년에 비해 높았으나 청진과 장진 등 일부 북부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강수량은 평년을 밑돌아 채소 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그러나 보리 밀 등 이모작 작물의 초기 생육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의 가뭄은 발생하지 않음.
- 동해안 북부 지역의 11월과 12월 강수량은 평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겨울 가뭄의 가능성도 있음.
 - 주요 평야지대의 11월과 12월 강수량도 평년에 비해 대체로 낮은 수준임.

□ 누적강수량, 10~12월

단위: mm

선봉	삼지연	청진	중강	혜산	강계	풍산
72.2 (72.9)	85.7 (110.4)	554.3 (82.6)	38.0 (73.3)	30.2 (52.1)	28.3 (88.2)	45.6 (67.9)
김책	수풍	장진	신의주	구성	희천	함흥
88.1 (115.1)	32.2 (107.2)	42.1 (74.0)	24.4 (103.5)	41.5 (105.7)	65.4 (125.1)	29.1 (91.2)
신포	안주	양덕	원산	평양	남포	장전
47.4 (102.5)	41.3 (94.4)	54.2 (93.6)	86.6 (170.0)	47.1 (96.3)	45.6 (118.4)	485.3 (266.3)
사리원	신계	용연	해주	개성	평강	
37.3 (106.0)	50.3 (106.4)	74.4 (92.1)	64.8 (92.1)	81.9 (97.2)	63.7 (122.1)	

* ()는 평년 누적강수량을 나타냄.

□ 북한 주요지역의 월평균기온 및 강수량

단위: °C(기온), mm(강수량)

구 분		안주	평양	해주	청진	함흥	원산
10월	기 온	12.6 (11.1)	14.3 (11.8)	15.5 (13.6)	13.0 (10.9)	13.4 (12.0)	14.9 (13.4)
	강수량	23.0 (41.2)	16.3 (43.3)	33.3 (36.0)	553.6 (30.4)	19.1 (40.1)	46.2 (66.3)
11월	기 온	3.5 (3.3)	4.7 (4.1)	7.0 (6.1)	4.5 (3.5)	5.5 (4.7)	7.0 (6.6)
	강수량	6.9 (38.7)	23.5 (34.6)	9.6 (38.8)	0.0 (33.3)	0.0 (36.0)	18.7 (74.7)
12월	기 온	-3.3 (-4.0)	-1.7 (-3.1)	0.5 (-0.6)	-1.7 (-2.7)	-1.2 (-1.4)	1.0 (0.6)
	강수량	15.3 (14.5)	7.3 (18.4)	21.9 (17.3)	0.7 (18.9)	10.0 (15.1)	37.5 (29.0)

* ()는 평년 평균기온 및 강수량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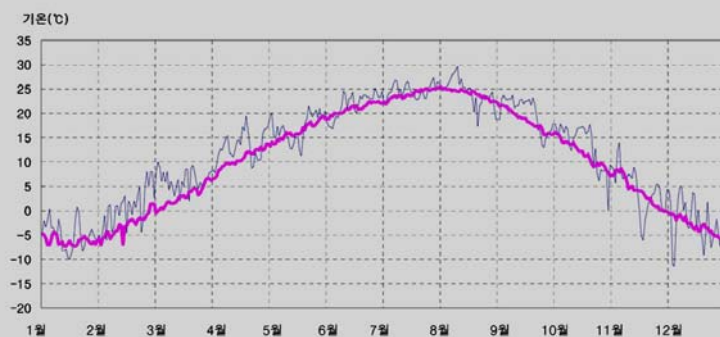
27개 기상관측지역의 평년 기후값 가운데 선봉, 청진, 중강, 혜산, 강계, 신의주, 함흥, 원산, 평양, 사리원, 해주, 개성 등 13개 지역의 통계기간은 1973~1994년이며, 삼지연, 풍산, 수풍, 장진, 구성, 희천, 신포, 안주, 양덕, 남포, 장전, 신계, 용연, 평강 등 14개 지역의 통계기간은 1981~1994년임.

□ 월 평균기온

안주



평양



해주



— 평년 기온 — 2008년 기온

청진



함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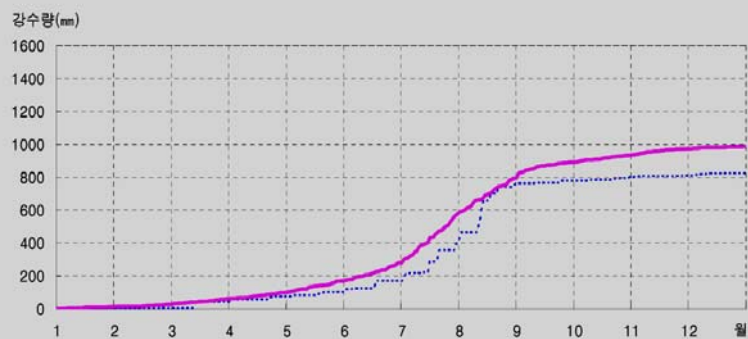
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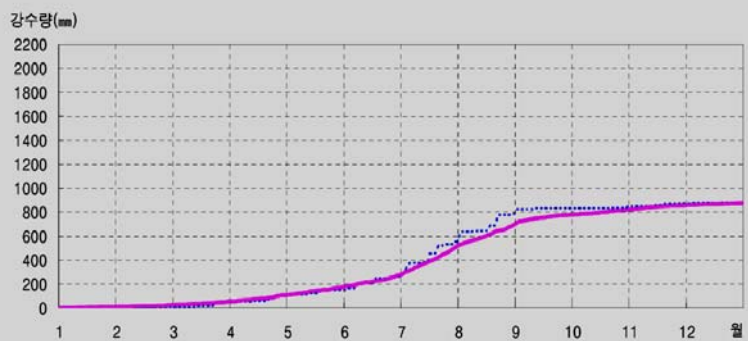
— 평년 기온 — 2008년 기온

□ 누적 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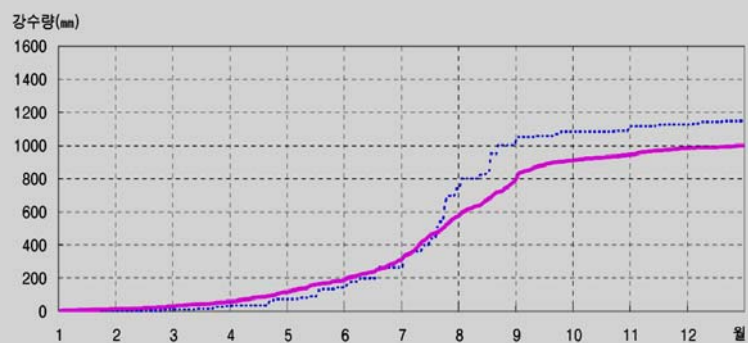
안주



평양



해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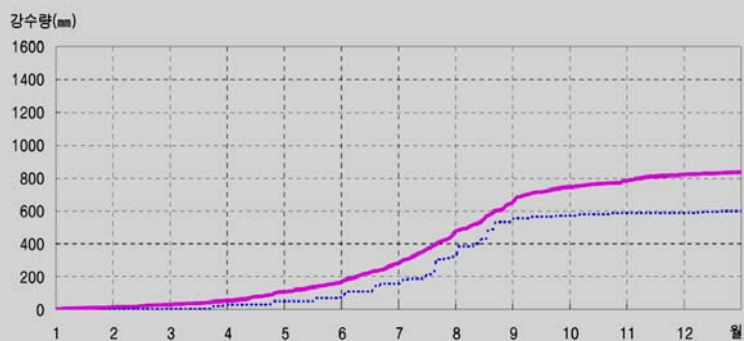


— 누적 강수량 — 2008년 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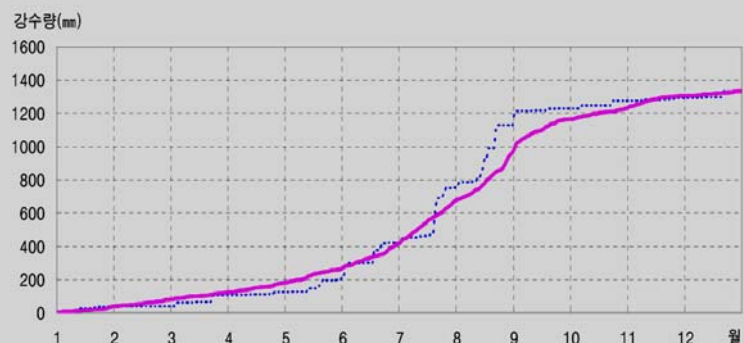
청진



함흥



원산



— 누적 강수량 — 2008년 강수량

E02-2008-04 KREI 북한농업동향 제10권 제4호

찍 은 날	2009. 1.	펴낸날	2009. 1.
발 행 인	오 세 익		
펴 낸 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 (Tel. 3299-4000)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홈페이지	http://www.krei.re.kr		
등 록	제5-10호(1979. 5. 25)		
찍 은 곳	경희정보인쇄(주) (代) 2263-7534		

- 본지에 수록된 원고는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